한국전력공사 공인협약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사찰, 주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쓸/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 / 논설고문:고은 / 편집국장:최정희 / 인쇄인:김규석 / 등록번호: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737-8881 / 편집국:722-4162 FAX:737-0698 / 광고국:737-0692 / 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3월 3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16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스님들 고급승용차 이용

22일 오후 2시 서울견지동 조계사 주차장. 정확히 75대가 주차해 있는 승용차의 차종을 조사해 본 결과 그랜저 다이너스티 엔터프라이즈 등 시가 2천만원을 웃도는 고급 대형승용차는 9대, SM5 포텐샤 프린스 소나타 등 고급 중형차는 47대, 마티즈 등 소형차는 단 2대였다.

지난해 말 전국불교운동연합이 실시해 모 일간지에 게재된 바에 따르면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사용차량 대부분이 그랜저 다이너스티 엔터프라이즈 포텐사 등 최고급 승용차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가뜩이나 조계종 사태로 어두웠던 당시 불자들의 마음을 더욱 씁쓸하게 했다.

종단이나 사찰의 요직을 맡고 있는 스님치고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은 스님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직위가 올라갈수록 차도 고급화된다. 심지어는 외제차를 거리낌 없이 타고 다니는 스님도 있다.

차는 교통수단일뿐 권위 과시품 아니다

조교일선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려면 요즘 세상에 승용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안정성이나 피로도를 고려하면 소형차는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다. 또 산세가 험한 곳에 위치한 사찰의 스님들이 주로 지프형 차를 이용해야만 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차를 교통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식품이나 자신을 빛내는 과시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이 승가에까지 스며들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출가자는 검소하고 청정해야 한다. 고무신에 기운 옷을 입는 이유가 신이 없고 옷이 없어서인가. 작은 승용차를 이용해도 포교를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승용차도 다 정재로 마련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유없이 큰 차, 고급차를 선호하는 것은 삼보정재를 마구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현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불교종합정보센터 '부다피아'는 매일 교계뉴스 속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부다피아에 접속하셔서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교계 소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사찰환경 보존지역' 지정 촉구

조계종, 정부에…산사 오폐수 시설비 국가분담도

2기 사찰환경위 발족

사찰의 수행과 문화환경 지킴이를 자부하는 조계종 제2기 사찰환경보존위원회가 31일 발족과 함께 '사찰환경보존지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한다.

이같은 방안은 지자체가 실시되며 세수수익 확대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수행과 문화, 자연환경 파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찰지역은 자연환경이 양호한 것은 물론 역사적인 문화재들이 산재하고 종교적인 수행환경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군사보호구역이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존구역처럼 '사찰환경보존지역' 지정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요구를 정부에 제기하고 시·도의 조례제정등 법제화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1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개원법회를 갖는 제2기 사찰환경보존위원회는 또 국·도립공원 입장료에 오폐수비를 책정토록 요구하고 1억원 가량 소요되는 오폐수시설을 자체부담하는 것은 무리라며 공공시설인 사찰의 오폐수시설 설치비의 국가분담도 촉구키로 했다. 사찰환경보존위는 또 산사의 오폐수를 줄이기 위해 바루공양을 대중사찰에서 생활화하고 산사에 딸린 경작지의 주말농장화 방안을 각 사찰에 제안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단위로 보존위원회를 설립해 친환경적인 불사를 유도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망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산사에 적합한 오폐수 처리시설 모델제시및 적합한 업체선정, 사찰환경문제 조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사찰환경보존위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으로 ▲사찰환경보존을 위한 정책수립및 자문 ▲국립공원 보존위 설립지원 ▲지역순회강연및 조사활동 ▲분쟁사찰지원 ▲정책자료및 교육자료 발간 ▲사찰환경수련회 개최 ▲사찰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백서발간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김대중대통령 초청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 김대중 대통령, 고산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스님.

"화쟁정신으로 지역감정 풀자"

김대통령-불교계 인사 104명 청와대 오찬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 등 불교계 대표 104명은 23일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종교편향 시정 해불사건 재발방지에 정부가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인 지역대립 구도를 불교계가 특유의 화쟁정신으로 풀어달라"며 "남북통일의 기반을 범종교적으로 이뤄가자"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문화유산의 선양과 관광진흥에도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기사 2면>

고산스님은 경제난을 극복해 준 대통령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정치안정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모임에는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총무원장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을 비롯한 교계언론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고산스님, 교황청 초청 수락

교황청대사 총무원예방 '교황 방한' 도 논의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24일 주한 로마교황청 대사 조반니 모란디니 대주교의 예방을 받고 10월 24~29일 로마에서 열릴 세계종교지도자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고산 총무원장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기 위해 종교지도자들의 화합이 중요하다"며 "종교지도자회의 참석해 교황의 한국방문 의사를 들어보겠다"며 초청할 뜻을 비쳤다.

모란디니 대사는 "이번 대회의 목적은 더 나은 세계를 이루기 위해 종교인들이 모든 면에서 협조하자는 것이 목적"이라며 "교황님도 의장님이 초청하면 큰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종교지도자회의는 87년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인 기도모임에서 비롯됐으며,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의현스님이 참석했다. 종교인 기도모임은 매년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기도모임과는 달리 인류평화를 위한 실천지침을 담은 종교지도자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성운 기자

남·북·일 종교인 평화모임 4월25~27일 북경서 연다

한국과 북한, 일본 종교인 대표들이 참석하는 종교인 평화모임이 4월 25~27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다.

종교인 평화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범종교단체 남북교류협력협의회(공동대표 성조스님 외 9인)는 22일 서울견문동 수운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종교인 북경 평화모임의 계획 및 일정을 확정했다. 조선종교인협회(회장 장재언)는 24일 북경 평화모임에 5명의 대표를 보내겠다고 우리측에 전해왔다. 이 모임은 애초 3월 중순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조선종교인협회의 연기요청으로 미뤄졌었다.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북경 평화모임에 한국에서는 성조스님을 비롯해 12명, 일본측에서는 10여명이 참석해 세미나와 합의문 발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현대, 신계사복원위 구성

신계사 등 금강산 사찰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현대아산은 24일 조계종에 공문을 보내 "불교를 포함한 종교계, 학계, 문화계 인사들로 가칭 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신계사 복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계종단에서 신계사 복원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수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새 종정 4월2일 추대 3면

구산선문 참선 기행

4월:가지산문(보림사)-운주사 · 쌍봉사

본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불교의 선맥을 따라 '구산선문 참선기행'을 떠납니다.

구산선문(九山禪門)은 나말여초 당나라 유학승들에 의해 전래된 선종(禪宗)을 바탕으로 성립된 우리 나라 선문의 아홉 도량을 의미합니다. 그 현장에서 선문의 역사와 사상을 배우고 참선을 체험하는 이번 기행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관련기사 14면>

가지산문의 중심 도량인 보림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사천왕과 석등(국보 제44호), 머리와 몸집에 비해 손이 작은 철제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117호) 등 고찰의 연륜을 잘 드러내는 문화재가 가득합니다.

와불로 유명한 인근의 운주사에서는 파격적인 탑과 불상들로 인해 색다른 체험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쌍봉사에서는 대웅전의 고풍스런 모습과 우리나라 부도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고 있는 철감선사부도탑(국보 제57호)의 정교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연발할 것입니다.

◇출발: 4월24일(토) 밤10시 · 조계사 앞
◇안내: 황호균(전남대 박물관 학예연구사)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효)

2기 명예기자를 찾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우리 생활과 밀착된 살아있는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신심을 북돋우기 위해 명예기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준 1기 명예기자에 이어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실 2기 명예기자를 찾습니다.

◇자 격: 주부, 직장 및 불교단체 종사자(지역 무관)
◇인 원: 00명
◇활동내용: 취재 및 제보
◇대 우: 채택된 기사 원고료 지급
◇접수마감: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처: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02)722-4162

마케팅프론티어대상 수상
('99 한국마케팅학회선정 고객성공부문)



21세기 경영
더욱 투명해집니다
철강으로 나라사랑
포항제철

사 설

성보문화재 보호대책

사찰소장 성보문화재(聖寶文化財)의 보호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엊그제 또다시 순천 선암사에 문화재 절도범이 침입해 탱화를 절취해 가는 등 금년에 일어난 불교문화재 도난사건만 해도 벌써 5건에 이른다. 특히 선암사의 경우는 3월에만 두 차례의 탱화절취사건이 발생해 불자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사찰소장 문화재가 이토록 수난을 당하는 것은 성보문화재에 대한 빗나간 인식 때문이다. 문화재 절취범이나 밀매자들은 불상이나 불화를 종교적 귀의와 예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저 환금가치 높은 보물로만 여긴다. 호법신장도 두려워하지 않는 절도범들에 의해 훼손되고 절취된 사찰소장문화재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따지고 보면 국내외의 박물관이나 개인소장 불교문화재는 하나같이 전문도굴범들이 전국의 사찰에서 훔쳐낸 것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성보문화재가 도난 당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들은 불자들이다. 지극한 종교적 귀의로 예배하던 탑과 불상과 경전과 탱화가 무참하게 절취됐을 때 느끼는 참담함은 이루 형언키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수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교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수준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성보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이 깊은 산중에 있는 데다가 성보문화재의 특성상 공개된 장소에 봉안하다보니 절도범들은 마음껏 사찰을 헤집고 다닌다. 근년에 일어난 굵직한 사건만 해도 송광사 조사전 진영 절취사건을 비롯해 기림사 불상훼손 복장유물 도난사건 등 수십 건이 넘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계와 관계 당국이 공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찾아낸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찰 내에 성보전(聖寶殿)을 지어서 성보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성보전은 사찰 내에 위치함으로써 예배도 하고 박물관처럼 관리도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미 송광사등 8개 사찰이 성보전을 지었고 다른 사찰도 올해중에 6개를 더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작은 사찰은 이마저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에는 관계당국의 대폭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또 한가지는 문화재사범 전담수사반의 설치 문제다. 문화재 사범들은 워낙 전문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한 전담수사반 운용이 필수적이다. 최근 검찰이 개가를 올린 1백억원대 문화재 도굴 밀매범들의 검거는 지속적인 수사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들을 검거하지 못했으면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석가여래 복장유물을 비롯해 순천 선암사의 후불탱화 등 수십 점의 불교문화재는 영원히 찾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관계당국은 문화재 관리국의 문화재사범을 수사할 수 있는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포함해 검찰내의 전담반 구성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함께 불교계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도 중요하다. 아직까지도 종단은 지정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자료정리와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사진자료나 상세한 기록부가 없다보니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겨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고작이다. 예산타령만으로 성보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성보문화재의 보호관리는 우선 불교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선 사찰만 문책하려 말고 종단차원의 보호관리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찰을 인생상담소로"

조계종 포교원, 4월중 상담교육협 구성

각 사찰·포교당이 친근한 인생상담소 역할을 하게 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사찰의 신행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상담포교사, 교사 등 양성된 상담전문가를 활용 지역사찰의 신행상담 역량을 강화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19일 회의실에서 불교상담교육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가)불교상담교육협의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포교원은 이달중에 조계사 능인선원 불광사 수원포교당 등 상담실을 개설하고 있는 사찰과 자비의전화 파라미타 교사불자연합회 부산자비회 등 상담관련기관 대표자 면담을 갖고 4월중에 협의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상담관련 제반 교육의 공동실시, 상담원 상호교류 및 연수프로그램 실시, 불교상담이론 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상담현황 발표회 등 불교상담분야 발전을 위한 제반활동에 나설 불교상담교육협의회는 최근 몇년간 불교계에 전문성 있는 상담실 및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교계 교육기관 중 상담관련학과가 전무한 실정에서 불교상담, 이론 정립이 시급하고 개별적 교육 및 상담실 운영의 낭비적 요소를 방지, 우수한 불교 상담인력을 개발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특히 엄숙한 사찰의 이미지를 탈피해 신도 및 일반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상담기법을 개발해 포교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포교원이 이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배경에는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단체 상담교육기관 선정에 대비 종단차원의 공신력있는 상담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타종교에 우선권을 빼앗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자비의전화 신희권 국장은 "포교 자체가 상담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비불자에게도 적용되는 뛰어난 불교상담 이론을 정리·개발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20일 서울 수송동 사무실에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진로지도 관련 상담전화(02-720-0218)를 개통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정화회의관련 의원 7명 사표수리

사미니승가대 증설·문화재 지적소유권 확보 제안

조계종 139회 종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22일 139회 임시중앙종회(결산종회)를 개회하고 상임분과위원회별로 집행부 결산검사 및 업무보고, 질의를 벌였다.

총무분과위(위원장 영담)는 결산검사 보고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사찰의 이축 증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법 시행세칙과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정부 활동에 나서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 종무원의 자격심사 강화를 요청했다.

교육분과위(위원장 지하)는 승가대학이 6월까지 정원(30명)을 채우지 못해 인가 취소될 지경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교육원에 촉구했다. 또 사미니 승가대학의 시설이 부족해 매년 60명의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미니 교육기관 증설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교분과위(위원장 지홍)는 중앙신도회 관리 업무가 포교원과 총무부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 일원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회분과위(위원장 여연)는 또 불교문화재에 대해 종단이 지적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법분과위(위원장 대원)는 멸빈자들의 도제에 대한 관리방안 강구, 해종특위 업무지원으로 중단된 일반사건 처리의 재개를 호법부에 촉구했다.

해종특위(위원장 범종)는 활동보고를 통해 23일까지 초심호계원 심판 결과 멸빈 11명, 제적 14명, 공권정지 57명 등 모두 82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중앙종회는 작년 조계종사태 당시 정화회의에 관련된 성우탄우 종광 진구 종훈 종운 인행스님 등 종회의원 7명이 제출한 사표를 찬성 33표, 반대 23표, 무효 1표로 수리했다. 해종특위는 7명의 스님에 대해서는 징계회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종회는 24일 휴회를 선언하고, 회기를 31일까지 연장해 29일 속개했다. 정성운 기자

현호·현근스님등 6명 호계원에 재심청구

월탄·성문스님 멸빈 확정

17차 초심호계원 심판(2월 23일)에서 멸빈의 징계를 받은 현호, 현근, 현소, 법일, 정우, 원학스님 등 6명이 22~24일 사이 재심호계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월탄, 성문스님은 재심청구서 제출시한인 24일까지 재심청구를 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멸빈의 징계가 확정됐다. 재심호계원(위원장 월서)은 4월 1일부터 심리 및 심판을 시작한다. 정성운 기자

교계인사 청와대 초청 김대통령 발언요지

"불교가르침 인류의 공동자산"

불자는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 불교는 자비롭고 관대한 평화의 종교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외침은 불교의 인권선언이다. 불교의 보시공덕은 오늘날의 사회보장·사회정의와 상통한다. 만물 실유불성(萬物悉有佛性)은 자연과 인간의 평등관을 밝힌 것이다. 환경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위대하고 탁월한 사상이다.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건, 그렇지 않건 불교의 가르침은 인류의 공동자산이다.

한국불교는 두 가지 특색을 지니고 있다. 당나라에서 수입됐으나 해동불교로 재창조됐다. 또 하나는 호국불교의 전통이다. 조선시대 불교 박해에도 불구하고 호법전통을 이어온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불교의 가르침과 전통을 기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나는 불교의 친구이다. 항시 존경하고 협력하겠다.

불교문화는 한국문화의 골격이자 문화유산이며 관광자원이다. 98년에 37억불의 관광흑자를 냈는데, 불교의 문화유산 덕택이다.

불교계가 지역감정 해소에 앞장서주길 당부한다. 지역감정은 30년 묵은 구습이며, 제2 천성화될 정도로 심각하다. 불교계가 이 업보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주길 거듭 당부드린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초발심으로…"

조계종은 출가절인 25일 오전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범종단 초발심회복운동 선포식을 봉행하고 자정과 개혁의 역량을 강화 발전시키고 이타행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선포식은 참회 및 선포문 낭독, 법어, 발원문, 108배 참회정진, 실천지침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선포식 후 고산 총무원장과 정련 포교원장 등은 우정국로로 나가 지나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초발심으로!' 스티커를 나눠줬다.

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기초선원 정원제 운영 필요"

조계종 교육원 간담회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20일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지하)와 공동주최로 기초선원 운영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타 기본교육기관에 비해 기초선원은 정원규정이 없어 예산지원과 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 정원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현재 122명이 정진중인 동화사 기초선원이 수용능력을 초과하고 있어, 백담사나 마곡사 등지로 분산교육을 실시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기초선원측은 선원의 특성상 정원을 정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동화사를 기초선원 중심도량으로 정한만큼 경내에 새 건물을 증축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종단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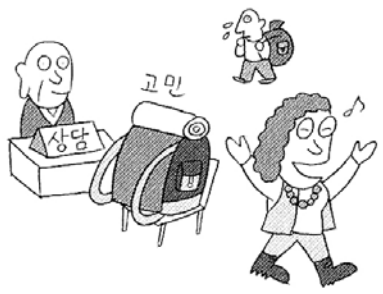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예비승인 사미승들이 강원교육을 받지 않은채 무조건 선방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돼 기본교육기관 재정립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는 사미니 기초선원 설립, 선원 및 안거성만자 집계 필요성 등도 지적됐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풀고가세요

50여년 불사기념 법회와 만일기도 회향

대둔산 태고사 는 신라때 원효대사께서 터를 잡고 터가 하도 좋아서 가사 장삼을 수하시고 3일 동안 춤을 추시면서 "세세생생 도인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태고사는 고려 말 태고 보우국사께서 중창하시고 삼창은 이조 중엽 진묵대사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6·25 동란으로 인하여 전소당한 것을 제가 주지 임명을 맡아서 태고사 성지도량을 수도도량·기도도량 양 쳐소로 살리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사를 해온 지가 어언 50여 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삼불전·극락전·관음전·삼성각·지장전을 지어 놓고 지금은 백팔계단을 놓고 있는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종각 불사와 요사채 불사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남은 불사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심으로 하루 하루 쉬지 않고 불사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의 상좌 정안(正安)스님이 68년도부터 중창기도를 시작한 것이 99년 음력 2월 18일 지장재일에 만일기도 회향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고사 중건 중창불사 50여년 불사기념 법회와 만일기도 회향 및 다시 천일 지장기도를 큰스님을 모시고 입재코자 하오니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다 오셔서 동참하시어 신심이 견고하고 영불퇴전하고 속성정각하셔서 광도중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소원 이루시길 바랍니다.

주지 김 도 천 합장

1999년 4월 4일 일요일 (음력 2월 18일)

- 오전 7시 30분~10시 관욕
- 오전 10시 ~ 12시 권공, 축원, 회향 및 입제
- 오전 12시 ~ 1시 큰스님 법문
- 오후 1시 ~ 3시 마침

❋ 천일지장기도입제 영가 1인당 1만원

❋ 만일기도회향 7일 용맹지장기도 입재 영가 1인당 3,000원

❋ 만일기도회향 7일 용맹특별지장기도 입재

방생 법회일

1999년 4월 28일 (음력 3월 13일) 수요일

■방생장소 : 등명해수욕장 (동해바다 강원도 정동진역 옆)

- 방생 : 오전 11시 ~ 오후 1시
- 법회 : 오후 1시 ~ 2시 큰스님 법문
- 등명낙가사 참배 - 귀가

※ 회비 1인당 20,000원, 점심 각자 지참

■접수처

- 진산 태고사 (0412) 752-4735
- 대전 관음사 (042) 282-6261
- 금산 고보련심 (0412) 751-0120
- 진산 하성국 (0412) 753-6848
- 서울 수효사 (02) 313-3060
- 부산 조보리심 (051) 516-5506
- 대구 김홍련화 (053) 558-3111

대둔산 태고사 ☎(0412)752-4735 충남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산29번지

4월2일 조계종 새종정 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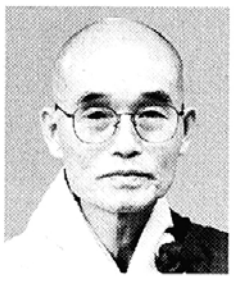
조계종 최고권위의 상징인 종정을 추대하는 역사적인 회의가 4월 2일 열린다. 종정은 부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불가의 최고 어른이다.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다. 종헌에서는 '종정은 본종의 신성(神聖)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정의 추대 절차는 종헌과 원로회의법에 따른다.

종정은 원로회의 의원, 총무원장, 호계원장과 중앙종회의장이 추대하며,… 추대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종헌 21조 1, 2항) 원로회의법에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되어 있으나, 31일까지 회기를 연장해 열리는 138회 임시종회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바꿔 종헌과 상충되는 조항을 개정한다.

종정 추대를 위한 회의는 종정의 입기 만료 3개월 전이나 유고시에 원로회의 의장(현 의장 혜암스님)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30일 열린 승려대회에서 월하스님이 불신임되어 종정은 유고상태다. 또 불신임과 관계없이 월하스님의 임기가 5월 12일까지이므로 이번 회의소집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


혜암스님


서옹스님


석주스님


관응스님

혜암-서옹-석주-관응스님 물망

원로의원·총무원장 등 25명 추대위 구성

종정 유고시의 추대 시기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

현재 원로의원은 22명이므로 추대위원은 모두 25명이다. 그러나 이번 종회에서 원로회의법 중 원로의원 자격을 현행 '연령 6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80세 이하'로 개정하고, 4명을 새로 추천해 원로의원이 되면 1명이 줄어 24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종정의 자격은 승납 45년 이상, 연령 65세 이상, 대종사의 법계여야 한다. 임기는 5년,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종정은 전계대화상 위촉권을 가지며, 포상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을 행할 수 있다. 원로회의의 제청으로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다.(종헌 20~24조)

원로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종정 추대를 위한 회의는 비공개로 해왔다. 추대의 방식이므로 후보가 나서지 않는다. 추대위원들 사이에 사전에 어느 정도 공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이 상정되면 추대위원 중 한 위원이 '어른'을 거명하면 토론이나 반대없이 모두 동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종헌에는 '추대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만장일치로 종정을 모셔왔다. 이번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계종 10대 종정에 추대될 스님으로는 현재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79), 5대 종정을 역임한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87), 94년 개혁회의 의장을 지낸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90), 직지사 조실 관응스님(89) 등이 떠오르고 있다.

혜암스님은 94년 당시 의현 총무원장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한데 이어 지난 해 조계종사태 때도 '종헌종법 준수'를 선언해 종단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궂은 일을 마다않고 나선 어른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고산 총무원장과 같은 법어문중이어서 문중편중에 대한 경계론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서옹스님은 한국불교 최고의 선지식이라는 추앙을 받고 있다. 지난 해 무차선회 및 국제선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고령에도 불구하고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70년대에 종정을 이미 지냈으며, 고령이라는 점이 재추대를 망설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종정 추대 때마다 빠짐없이 거론되는 석주스님은 온화한 인품과 포교·사회활동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종도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총무원장을 세 번, 중앙승가대학장, 포교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큰 산중에 주석하지 않았으며, 거론되는 원로스님 중 가장 고령이라는 것이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관응스님은 한국불교 최대의 강백이자 선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령임에도 직지사 산내암자인 중암에 주석하며 법을 청하는 신도들을 뿌리치지 않고 맞아 들인다. 그러나 중앙종회를 주도하고 있는 법등스님(직지사 부주지) 등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종회 '사설사암 문제' 해결 촉구

5백여사찰 미등록 추산
종헌준수 풍토 절실

조계종 139회 임시종회의 집행부 질의의 쟁점은 사설사암(私設寺庵)의 종단등록 및 법인의 조계종 관장을 규정한 종헌 9조 3항의 준수 촉구였다. 총무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부각됐다.

성관스님은 질의에서 백련문화재단을 예로 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택스님은 "개정 정관에 따라 임원을 개편해 등기를 마쳤다"고 답변했다.

장곡스님은 "교구 종무원들 가운데도 9조 3항을 위배한 스님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총무원의 적법한 조치를 촉구했다.

원택스님은 또 "사설사암의 종단등록을 권유하기 위해 신문에 공고해 신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계종 소속 스님들이 건립한 사찰은 1천8백여개이나, 종단과 행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찰은 1천1백여개이다. 90년 이후 종단등록 촉구가 강화되면서 등록 사설사암이 늘었으나 재산등록까지 마친 사찰은 2백여곳 뿐으로 아직도 미등록 사설사암은 5백여개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헌의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분란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이미 모 종회의원의 사설사암 종단 미등록으로 종회의원 자격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했다. 선학원 등 법인의 종단등록을 유도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실태 파악과 함께 현재 드러난 문제부터 종헌에 의거해 처리해 '원칙'이 확립되는 종단 풍토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화합의 봄' 오는듯

초심징계자 6명 재심청구 '의의'

고산 총무원장, 종회에 영축총림 해제 보류 요청
통도사 기자회견 취소

지난 해 조계종사태로 표출된 승가내의 첨예한 갈등양상이 최근 정점을 넘어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초심징계자의 재심청구,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영축총림 해제 보류 요청' 발언에 따른 통도사측의 기자회견 취소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심호계원에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스님 가운데 월탄, 성문스님을 제외한 현호, 원학, 법일, 현소, 현근, 정우스님 등 6명의 재심청구서 제출의 의미는 작지 않다. 현 총무원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정화개혁회의의 강경한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를 둔 것이다. 더구나 정화개혁회의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했던 스님들의 재심청구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려 있다. 정화개혁회의의 약화가 가속화·표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정화개혁회의 상임위원장 월탄스님이 조계종사태와 관련해 사과성명 발표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영축총림 해제 보류 요청'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고산스님은 22일 139회 임시종회 개원식 인사말을 통해 "안건에 영축총림 해제의 건이 있다. 심사숙고해 보류해달라"고 말했다. 총무원장이 종회 안건에 대해 보류 요청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통도사와의 화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통도사 월하스님으로부터 즉각 반응이 왔다. 통도사 산중총회 결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급히 취소시켰다.

종회의 소임을 맡고 있는 한 종회의원은 "총무원장 뜻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말로 종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고산 총무원장도 '보류'를 요청한 것이었고, 통도사측도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단서를 달아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새로운 국면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불교 최대의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을 화합의 분위기로 맞아야 한다는 불자들의 바램이 이뤄질 것인가. 그러나 아직은 징조만 감지될 뿐이다. 화합을 위한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는 것이 많은 종도들의 평가다.

정성운 기자

목어

밀레니엄 베이비

우리의 선조들은 태교를 중요시 했다. 석성우스님의 저서 〈태교〉에 이런 말이 있다."임신했을 때 가졌던 부모의 마음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임신부가 마음과 몸을 바르게 갖지 않을 수 없는 법문이다. 부모의 마음과 행실이 그대로 태어날 자식에게 전이된다는데 어느 예비부모가 착하고 단정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요즘 부모될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기는 이야기가 화제로 오르내리고 있다.

병원들의 '뉴 밀레니엄 베이비' 1호 쟁탈전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000년 1월 1일 0시에 태어나는 아기에게 평생 진찰권, 분유, 기저귀를 선물하기로 했다. 강남 차병원은 여기에 부모선물과 유아용품을 얹었다. 일부 병원은 뉴밀레니엄 첫아기 '잉태지침'을 내놓았다고 한다.

어느 병원에는 밀레니엄 베이비 1호를 낳는 방법에 대한 문의 전화가 하루에 20~60통에 이른다고 한다. 미끼를 던진 병원의 홍보에 예비부모들이 군침을 삼키고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는 3천여명이다. '잉태지침'에 따른 임신부들이 병원으로 몰려가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 나설 경우 2000년 1월 1일 0시에 태어날 수 있는 아기들은 3천여명이다.

병원 밖에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날 밀레니엄 베이비 1호는 염두에 두지 않은 계산이다. 오히려 그런 아기를 찾아 선물을 전하는 것이 더 순수하고 병원 홍보도 되지 않을까.

새 천년 새 세기를 새롭게 시작하자는 뜻은 좋지만 지나치면 호들갑이 된다. 그리고 내년은 단기 4333년이다. 이 기회에 우리의 연호도 한번쯤 되새겨 보자.

신성한 생명탄생에 상혼과 욕심 그리고 흥미마저 깃들면 태교가 무색해진다. 태교를 잘 지키는 것은 개인은 물론 나라의 희망을 가꾸는 일이다. 착하고 건실한 아들·딸들이 태어날 테니까.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다.

"업이 보(報)를 어기지 않고 보가 업을 어기지 않는다."

밀레니엄 베이비 1호를 꿈꾸는 이들에게 주고픈 가르침이다. 석성우스님의 태교시 '하늘 맑은 날'의 일부도 들려주고 싶다.

"마음과 마음이 맑아야 하나니 하늘 맑은 날에 씨앗을 묻으소서 여명이 누리 감쌀 때 씻앗 받으소서 욕망은 욕망을 낳나니 피와 피가 하얗도록 참회하소서"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을 밝힙시다

조계종 사회복지 법인 승가원이 운영하는 원주 치악산 소쩍새마을. 이곳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부랑자와 장애인, 무의탁 노인들 3백여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소쩍새마을은 현재 강원도 횡성에 새로운 보금자리 승가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소쩍새들의 보금자리 건설불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 불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올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본사는 승가원과 함께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 하나를 밝혀 동체대비의 무량 복전을 일구시기 바랍니다.

△동참비: 1인1등 1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복지법인 승가원 (02)928-0750
△접수내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음 양). 영가등도 접수 받습니다.
△접수기간: 3월3일~5월 21일
△입금계좌
- 한빛은행 059-170968-13-001
- 외환은행 142-22-01704-2
- 국민은행 093-01-0293-459
- 우 체 국 011809-0332390
- 농 협 063-01-19213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승가원 소속 스님 13분이 축원해 드립니다.

通度寺聖寶博物館 開館 法會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지난 1987년, 통도사를 찾는 이들에게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이 보여 준 성원과 격려는 사찰 박물관의 가능성을 무한히 일깨워 주었고,
나아가 대중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서의 신축 박물관 건립으로 이어졌습니다.
1994년 신축 공사에 착공했던 저희 박물관이 이제 5년이라는 긴 役事를 마치고 마침내 개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도사성보박물관 개관법회>를 봉행하오니
부디 왕림하시어 이 역사적인 회향법회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靈鷲叢林 通度寺 住持 月 把 合掌

♣ 일시 : 1999년 4월 11일(일요일) 14:00
♣ 장소 : 양산 통도사 내 성보박물관 앞 광장

靈鷲叢林 通度寺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 0523)382-1001, 384-0010 / 팩스 : 0523)384-0030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 운영안내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문화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불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봉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의 전통문화 및 박물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쌓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전통공예를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개인의 취미와 소질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박물관대학 및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박물관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 모집인원 : 145명(선착순)
· 모집대상 : 전통문화와 역사에 관심있는 20세 이상의 남녀
· 수강기간 : 1999. 4. 23~ 2000. 2(매주 금요일, 3시간 강의)
· 강의내용 : 역사학 · 고고학 · 미술사학 · 민속학 · 불교미술 등 한국의 전통문화 전반
· 수 강 료 : 330,000원

제1기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안내

· 모집인원 : 각 분야별 30~50명
· 모집대상 : 전통공예를 실생활에 활용하고 싶은 20세 이상 남녀
· 수강기간 : 1999. 4. 26 ~ 1999. 7. 28(3개월간)
· 개설분야 : 사진영상반, 한지공예반, 서각공예반, 불화그리기반
· 수 강 료 : 각 분야 별 100,000원

※ 자세한 문의는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로 연락주십시오 ※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0523)384-0020 / 팩스 : 0523)384-0030

"불교발전 · 종교화합 노력합시다"

고산스님 불교언론인회 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20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 한국방송개발원 사무처장)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종단 화합과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고산스님은 불교언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불교발전과 종교간 화합을 도모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신광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계종단의 혼란 속에 행정수반으로 취임한 고산스님께 거는 기대를 전하고 종단 안정과 불교발전을 이루는데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김대곤 부장은 "사찰이 수행공간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가족휴식공간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찰별로 특성화 사업을 펼쳐 불교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종단적 배려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을 비롯한 총무부장 원택스님, 기획실장 만성스님 등 간부스님과 한국불교언론인회 고문인 김종서 전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공종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동국대 객원교수), 이은윤 중앙일보 불교전문위원, 이두석 삼성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장, 이태행 불교TV 본부장, 안길모 동아방송대 교수, 강신철 경향신문 편집국장, 이계홍 대한매일신문 편집 부국장, 최정희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김대곤 한국경제신문 문화부장, 박찬 대한매일신문 문화부장 등 전직 불교언론인 30여명 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불교언론인회는 고산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지난 20일 열린 고산스님 초청 불교언론인회 간담회.

"회관건립 · 모교발전 위해 최선"

신임 동국대 총동창회장 권노갑 고문



"동국대의 전신 명진학원이 설립되던 시기는 일제식민지로 전락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갔고 지고한 건학이념과 숭고한 불교정신은 지금도 동국인의 가슴에 흐르고 있습니다. 동국대를 졸업했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제20대 회장으로 취임한 권노갑 고문(국민회의 · 59년 경제학과 졸)은 앞으로 총동창회관 건립의 초석을 다지고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발전을 이룬 회장'으로 남겠다고 밝혔다.

"역대 회장님들의 노력과 업적을 이어받아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권노갑 회장은 19일 오후 7시 앰베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총동창회와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칩시다"라며 동문들의 화합을 촉구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8년간 군포교에 헌신

포교대상 원력상 박상길 회장



지난 20일 조계사에서 열린 제10회 포교대상 수상식, 이날 원력상 수상자인 박상길 前군불교진흥회장(74 · 서광건설산업 명예회장)을 대신해 이하전 사무국장이 대신 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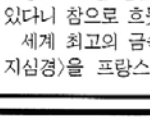
국방부 중앙법당 등 6개의 군법당을 신 · 증축한 것을 비롯해 96년부터 매년 부처님오신날 군불자에게 위문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공적을 인정받은 박 회장은 92년부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군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8년간 군불교진흥회 회장 소임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맡아왔다.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2월28일 임기만료를 끝으로 회장직을 마감한 박회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지만 군포교의 황금어장을 일구려는 원력을 놓지 않는다. "회사가 정상화 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시금 군포교에 매진하겠다"는 것이 노 포교사의 눈물어린 서원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교차로

정토회관서 '깨달음' 법문



대행 한마음선원장 스님은 4월11일 오전 11시 서울 정토회관에서 열리는 정토회 백일법문 법회에 참석, '새 문명의 지평, 수행과 깨달음'을 주제로 법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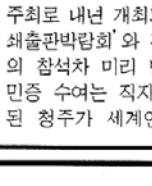
'노인의 해' 스티커 배포



각현 연꽃마을 이사장 스님은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최근 효의 사회화 운동 차원에서 기념 뺏지와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02)2203-3677

제4회 가나미술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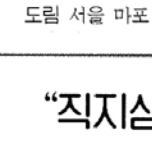
범하 통도사 박물관장 스님은 〈한국의 불화시리즈〉를 발간한 공로로 18일 가나아트 아카데미홀에서 제4회 '가나미술상'을 수상했다.



제정구의원 49재 봉행

원혜 봉은사 주지는 28일 오후2시 봉은사 법왕루에서 故 제정구 의원 49재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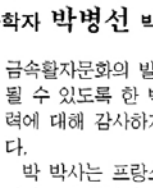
본각사 대웅보전 낙성



벽해 서울 양천구 본각사 주지는 4월1일 오전 10시 대웅보전 완공 및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한문법회경' 출간기념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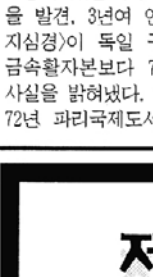
도림 서울 마포 법화정사 주지는 25일 〈한문 법화경〉 출판기념법회를 가졌다.



전치수씨 49재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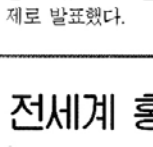
혜명 서울 홍제동 능인선원 주지는 31일 오후5시 불교학자였던 故 전치수씨 49재를 봉행한다. (02)738-8552

군불교 진흥회에 염주전달



능화 동국대 불교대학원 15기 회장스님(인천 구양사 주지)은 30일 동국대 문화그릴에서 종학 발대식 및 신입생 환영회를 열고 군불교진흥회에 염주를 전달했다.

한일문화교류 심포지엄 참가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는 23일 열린 '21세기를 향한 한일 문화교류' 심포지엄에서 '한일 문화교류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봉선사 종회의원 태공스님



일면스님의 교육원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조계종 25교구 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단독출마한 태공스님이 무투표 당선됐다. 스님은 66년 범어사에서 명허스님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 대교과와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재 경기 양평 사나사 주지로 있다.



심장병 교포어린이 수술비 전액지원

경남 나농축산업 협동조합 상평지소 황신곤(37 · 사진 오른쪽) 지소장은 중국 길림성에 사는 교포 김미화(12) 어린이를 초청해 심장병 수술에 드는 수술비 전액을 지원했다. 김미화 어린이가 지난 4일 마산의료원에서 수술을 받고 17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자 황소장은 박봉이지만 한생명을 살리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광주전남 신도회장에



김두원 능인회 회장은 20일 오후 광주불교능인회관에서 제9대 광주 · 전남불교신도회 회장에 추대됐다.

"직지심체요절 전세계 홍보"

청주 명예시민된 재불학자 박병선 박사



"요즘 고국에서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하 직지심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니 참으로 흐뭇합니다."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경〉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찾아내 우리나라의 고인쇄술을 세계에 공인받게 한 주인공 재불서지학자 박병선(73) 박사가 18일 충북 청주시를 찾았다. 4월 15일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시민증을 받기 위해 귀국한 박 박사는 청주시 주최로 내년 개최되는 '국제인쇄출판박람회'와 관련, 자문회의 참석차 미리 방문했다. 시민증 수여는 직지심경이 인쇄된 청주가 세계인쇄문화사에 금속활자문화의 발상지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한 박 박사의 노력에 대해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

박 박사는 프랑스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67년 이곳에 소장돼 있던 〈직지심경〉 하권을 발견, 3년여 연구끝에 〈직지심경〉이 독일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보다 70여년 앞선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72년 파리국제도서전에 〈직지심경〉을 출품,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임을 입증했다.

1926년 서울에서 태어난 박 박사는 서울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55년 프랑스에 유학, 소르본대학에서 동양언어학을 전공해 석 · 박사학위를 받은 뒤 72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현재 파리 근교에서 생활하며 한국 무속에 관한 연구서를 집필중인 박병선 박사는 "청주가 인쇄문화의 발상지임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여생을 바치겠다"고 말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승가학원 고산 이사장 · 현성 총장 취임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조계종 총무원장 · 고산스님) 및 총장(현성정사 주지 현성스님) 취임법회가 24일 중앙승가대학교 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前 이사장 월주, 청담학원 이사장 혜성스님과 동국대 송석구 총장, 한나라당 권익현의원, 자민련불자회장 박철언의원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제10회 포교대상 시상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20일 오후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0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공로상 수상자인 능인선원장 지광스님과 경철 광주불교대학장, 원력상 수상자인 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회장 심산스님, 정남복 교도관, 김진홍 서울경찰청불교회 총무, 임완숙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회장, 불자가수 김민종 등이 수상했다.



서울경찰청 '나라와 국민 위한 법회'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동광 도선사 주지)은 24일 서울경찰청 1층 기내식당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 및 청장취임축하 기념대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 정련 포교원장, 도선사 주지, 동광스님등 경승 50여명, 이무영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불자 경찰가족 4백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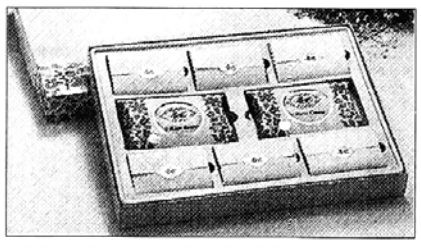


특수전학교 군법당 호국사 기공식

육군 특수전학교 군법당 백마호국사 기공식이 21일 오전 거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봉은사 주지 원혜, 포교원 연구실장 법성, 도원정사 주지 원봉 스님과 백마호국사 지도법사인 박의진 · 최성문 법사, 봉은사거사회 최호중회장, 분당불자회 회원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법당의 신축불사는 봉은사 신도회(회장 조선환) 등이 전폭 지원하고 있다.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쳐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제 1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밀교종단으로서 불교관련 다양한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불교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특히 밀교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진각논문대상'을 신설하여 논문을 공모코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주제 : ①불교 일반 (불교 교학, 불교사, 불교관련 응용분야)
②밀교 일반(밀교 교학, 밀교사, 밀교관련 응용분야, 진각종 종학 등)
▷응모자격 : 제한없음
▷전형방법 : 논문계획서 1부
▷전형일정 : ① 접수마감 : 4월 24일(우편접수 만)
② 1차 합격자 발표 : 5월 1일
③ 논문계획서 발표회 : 5월 10일
④ 최종 논문 작성자 6명 선정 : 5월 중순
▷당선작 및 상금 : ① 불교 · 밀교 분야 각 우수작 1편, 가작 2편
② 우수작 - 상금 200만원, 가작 - 상금 100만원
▷접 수 처 : 136-132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 홈페이지 : WWW.jingak.or.kr
e-mail : purusa(천리안) / purusa@chollian.net
전화 : 02)913-0133~4 / 팩스 : 02)913-0135

대 한 불 교 진 각 종

직장직능단체 봄철 성지순례

금융단 · MBC 불자회 등 명찰 찾아 야외법회
가족과 함께 기도정진…신심 증장 · 화목다져

전국의 산과 들에서 봄바람에 실려 온 꽃내음이 바쁜 직장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든다. 꽃샘추위를 보낸 이달 말부터 전국 산사를 순례하는 직장직능 신행단체들의 명찰순례 봄 나들이가 한창이다. 직장직능 신행단체의 성지순례는 부처님 숨결이 가득한 산사에서 신심을 한층 더 증진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불자직장인들에게 일상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만끽하게 해줘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회원가족들이 함께 동참하는 곳도 많아 상호간 친목과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대전운전기사불자연합회 금강지부(지부장 송화영)는 31일 당일코스로 설악산 낙산사를 순례한다. 이날 참석한 30여명의 회원들은 IMF로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도와 정진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042)626-6463

동불라이온스클럽(회장 윤천수)은 4월3일~4일 경주 남산일원 성지순례 법회를 갖는다.

3일 오전 7시 조계사 앞에서 출발하는 동불라이온스클럽은 성지 남산을 삼릉계곡에서 용장사지로 하산하는 코스로 순례한 후 감은사지, 문무대왕암, 오어사, 자장암, 기림사, 골굴암, 백율사 등을 이틀에 걸쳐 참배할 계획이다. (02)733-4800

구미개인택시운전불자회(회장 서병욱)도 4월8일 동백꽃으로 유명한 여수 향일암으로 성지순례 겸 봄나들이를 떠난다. (0546)53-3244

또 MBC불교연구회(회장 유희근)는 지난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서울, 부산, 대구 3개 지역사 불교연구회가 합동수련대회를 가진데 이어 4월24~25일 내설악 백담사에서 부산, 울산, 포항, 대구, 청주, 마산, 대전 문화방송 등 전국 10여개 지역사와 합동으로 성지순례법회를 봉행한다. (02)789-2371

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회장 김방일, 0431-276-6812)는 4월 중순과 4월25일 쌍계사, 칠불암 등 지리산일대 사찰순회를 겸한 기념법회를 갖는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수행자는 자신과 싸워야 한다"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12)

〈지난 호에 이어〉

그리고 극히 위생적이다. 발우는 자기 발우를 사용하고 또 자기 손으로 씻어 먹는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넣는 집이 천으로 되어 있고 발우 보자기와 발우는 닦개가 있어서 식사도구에 먼지 같은 건 침입할 틈이 없다. 발우 닦개는 며칠만에 빨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다. 발우는 가사와 함께 언제나 바랑 속에 넣어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몇대를 물린 발우도 있다. 대를 거듭한 발우일수록 권위가 있다.

장난기 많은 스님들 때문에 만두국 공양시간이 어지럽고 소란했다.

공양이 끝나자 과묵하신 조실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옛날 어느 회상(큰스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도량)의 공양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간에 앉아 공양하는 조실스님의 눈길이 공양하는 행자에게 주어졌대요. 그런데 그 행자의 국그릇에 생쥐가 들어 있었어요. 행자는 대중이 알까봐 얼른 국그릇을 입에 대고 생쥐를 삼켜버리더래요. 그러자 탁자위의 부처님이 손을 길게 뻗어 행자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더래요. 행자가 국 그릇에서 삶아진 생쥐를 꺼낸다면 대중들의 비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먹지 못하는 생쥐도 감쪽같이 먹었는데 짜고 맵고 뜨거워도 먹는 것인데 비명과 탄성을 지르면서 공양시간을 어지럽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먹는 음식에 장난을 한 스님들이 시은(施恩)에 배반한 업보에 대해 우리 다 같이 참회하도록 합시다."

장난질을 했던 스님들의 고개가 숙여졌고 비명과 탄성을 질렀던 스님들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으며 입승스님의 표정에는 곤혹스러움이 가득했다. 별식(別食)이 죄식(罪食) 같은 기분이었으나 조실스님의 훈고(訓誥)는 심성도야에 훌륭한 청량제였다.

■12월30일 섣달그믐

섣달 그믐날이다. 낮의 시간은 울력으로 보냈다. 떡방아도 찧고 대청소도 했다. 세탁도 하고 목욕도 했다.

잠자리에 들었으나 얼른 잠이 오지 않았다. 세모(歲暮)라는 감정때문이다.

세모는 날 일깨우면서 돌아다보라고 한다. 인간은 직립(直立)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나간 날을 돌아보고 비쳐볼 줄을 아는 의식의 거울을 가졌기에 비로소 인간일 수 있다고 하면서.

일년이 하루같이 단조로웠던 선객생활이었는데 돌아다 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더욱 돌아다 보라고 세모는 말하고 있다. 돌아다보니 하자투성이다.

나는 정초에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계획을 세울만큼 희망적인 계기도 없었지만 계획을 세워 계획이 달성되지 못했을때 가져야 하는 절망감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다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으나 그렇질 못했다. 무엇보다도 아쉬움이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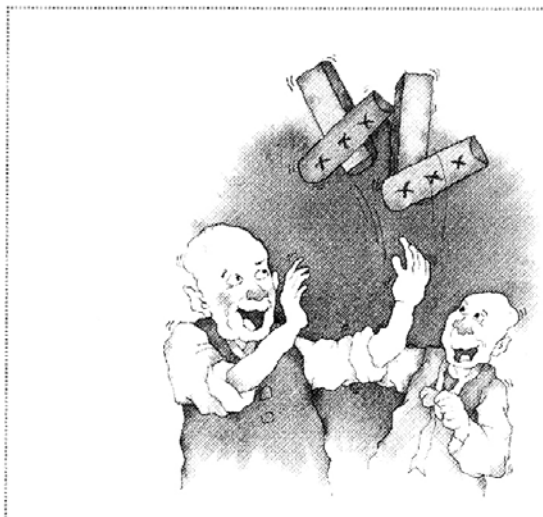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올해도 견성 못했으니 보은 못하네
사무치게 고독한 정초 화두에 충실

정초는 태백산 토굴에서 화두와 함께 맞이했었다. 화두는 어떤 의미와 내용으로 살펴보아도 정초와 똑같을 뿐인데 나의 등신(等身)은 많은 변화를 주었다. 이가 하나 빠혀 나갔고 이마의 주름살은 수를 더해 가면서 골을 깊이 했고 머리 숱은 수를 줄여가면서 윤기를 빼앗겨버렸다.

받은 것이 있었다면 주어야 하고 준 것이 있었다면 받아야 하는 이 세모에 나는 갚지는 못하고 또 빚만 지고 말았다. 불은(佛恩)을 무한히 입어 선방에 머무를 수 있었고 시은으로 육신을 지탱할 수 있었음에도 견성을 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보은하리. 회한이 몸서리 쳐진다.

그러나 세모는 나에게 알려 온다. 이제 한 해의 시간은 다 가고 제야가 가까왔음을. 그러면서 타이른다. 한해의 것은 한해의 것으로 돌려주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달력장을 미련없이 뜯어버리고 새 달력장을 거는 용기를 가지라고.

인간이란 과거의 사실만을 위해 서 있는 망두석(望頭石)이 아니라 내일을 살려고 어제의 짐을 내려 놓으려는 자세가 있기에 비로소 인간이라고.

화두는 어서 변화를 보여달라고 하면서도 깊은 잠속으로 끌고간다.

밤에 우는 산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울드랭사인' 처럼 아쉽게 들렸다.

■1월1일 스님의 위선

신년 정초다. 버렸거나 버림을 받았거나 혈연과 향관(鄕關)이 망막 깊숙이서 점철되어지는 것은 선객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비정하기에 누구보다도 다정다감할 수도 있다.

오늘은 쉬는 날이다. 뒷방이 만원이다. 여러 고장 출신의 스님들이라 각기 제 고장 특유의 설 차례와 설빔 등에 관한 얘기들을 나눈다. 평소에도 선객들의 먹는 얘기는 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다보니 끼리끼리 앉아 있게 마련이다. 남방출신은 그들대로, 북방출신은 그들대로. 호마의북풍(胡馬依北風)이요 월조소남지(越鳥巢南枝) 때문이겠다.

오후에는 윷놀이가 벌어졌다. '감자 구워내기'를 걸고서. 떡국을 잘 먹어 영양감사가 부럽지 않은 위의 사정인데도 구운 감자가 또다시 식성을 돋우니 상원사 감자 맛은 역시 미식가도 대식가도 거부할 수 없는 특이한 맛이 있나 보다. 경상도 사투리가 관을 치는 윷놀이가 끝이 나고 구운 감자도 먹었다.

어둠이 깃드니 무척이나 허전하다. 어제는 세모여서 허전하다 하겠지만 오늘은 정초인데 웬 일일까. 고독감이 뼈에 사무치도록 절절하다. 세속적인 기분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면서 불쑥 고개를 치민다. 이럴 때마다 유일한 방법은 화두에 충실할 수밖에. 그래서 선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열반경〉은 가르치고 있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다는 것 그 자체만도 벅찬 일이기 때문이다." 고독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백은 '월하독작(月下獨酌)'에서 고독을 노래했다.

꽃이 만발한 숲속에 한동이 술이로다
그러나 친구가 없어 홀로 마실 수 밖에
잔을 들어 돌아 오르는 달을 맞이하고
그림자를 대하니 세사람이 되었구나
달은 본디 술을 못하고
그림자는 부질없이 나를 따라 움직일 뿐이로구나.

〈계속〉

한빛은행 불자회 창립

고산스님 "실천하는 불자 되라" 법문



합병은행 불자회가 첫 출범했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합병사인 한빛은행 불자회(회장 소병식 분당동지점장)가 20일 한빛은행 본점(구 한일은행 본점) 5층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가졌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한빛은행 불자회가 상견례를 가진데 이어 열린 이날 법회에는 한빛은행 각 지역 불자회 회원과 제일은행불자회 서울은행불자회 기업은행불자회 회장 등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 회원, 합창단원 등 1백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빛은행 불자회 전국 3백여명의 회원이 활동에 들어갔다.

소병식 회장은 "한빛은행불자회의 창립은 화합을 강조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법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펴 보인 것으로 불자회를 재창립하고자 하는 타 합병은행사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 회장은 "직장의 발전과 더불어 함께하는 불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불자행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은 "부처님 말씀을 결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불법은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다. 불교전문서적을 보고 이론에 해박한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부처님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헤아려 실천하는 불자가 더 소중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항상 자기의 행동을 자기 양심에 반조해 살줄 알고 회사일에 보탬이 되는 불자직장인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필선 기자

운불련 대의원 총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박영조)는 31일~4월1일 수덕사에서 제4차 대의원 총회 및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수련대회에 앞서 21개 지역회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임원선출과 규약개정 안을 논의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마곡사 · 약사산악회 창립

충남공주마곡사산악회(회장 윤석환)와 대전약사불교산악회(회장 박암이)가 4일 마곡사에서 합동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마곡사신도회와 대전지역 약사들을 중심으로 각각 구성된 충남

우리 모임에선

공주마곡사산악회와 대전약사불교산악회는 법회 당일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손현수 총재로부터 회기와 인준패를 전달 받는다.

이날 법회에는 서울 · 경기지역 불이산우법회와 연심회를 비롯 대전불교산악회, 비룡불교산악회, 한밭불교산악회 등 4백여명의 전국 불교 산악인들이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교사불자련 사무실 현판식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가 20일 사무실(서울 종로구 청진동 수성빌딩 4층)개소 기념 현판식〈사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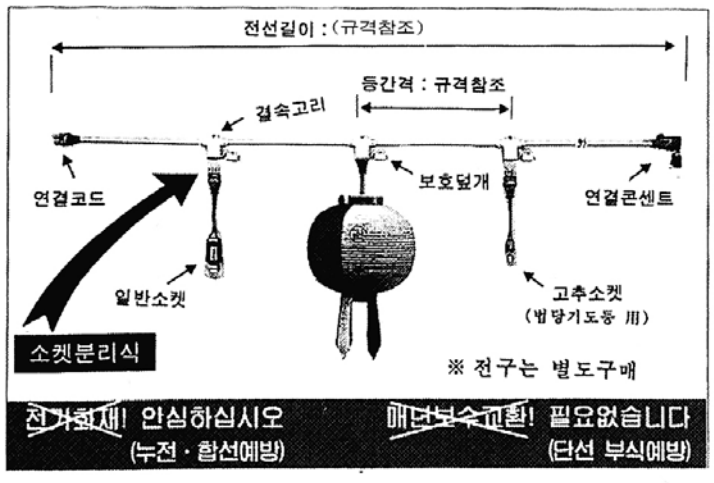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현진스님을 비롯 불자교사, 불교계 제단체 종사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현판식에 이어 집들이겸 조촐한 다과회가 마련됐다.

왕산비로자나불 공양법회

상주법우회(회장 김종하)는 4월10일 상주 왕산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왕산비로자나불 공양법회'를 봉행한다.

봉축행사 가로등 · 법당기도등用 전기배선 매직케이블 안내



전기화재! 안심하십시오 (누전 · 합선예방)
매년보수교환! 필요없습니다 (단선 부식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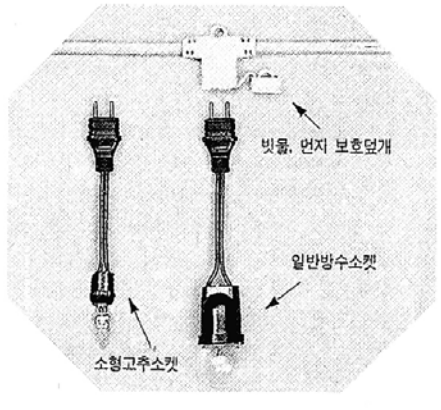
제품의 특징
· 누전 · 합선이 예방되므로 안전 하고
· 소켓이 분리되어 설치 · 수거 · 보관이 매우 편리 하며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꼽아 쓸수 있어 효율적 이며
· 단선 · 부식이 예방되고 소켓파손시 교환이 가능하므로 반영구적 입니다.

제품규격
· 전선굵기 : 2㎟, 3.5㎟(내수용) 2.5㎟, 4㎟ (수출용)
· 등 간 격 : 25㎝ 30㎝ 50㎝ 1~5M 기타사양 주문제작
· 전선길이 : 12.5M, 15M, 25M, 50M 기타사양 주문제작

"매직케이블을 구입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소켓이 분리되는 세계유일제품!

연등 用으로 특수처리(장력보완) 된 연등 전용 특수 전선임.
(일반 기성품 전선 아님)



의장원 14959호

삼정전기산업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38-3

※ 전국 각사암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 받고 있는 본 제품은
● '96년 제일안전공사에서 업계 최초로 전국 각 사암에 납품시작
'96 국제안전기기 展 히트상품선정 (납품실적 : 대구동화사外 150여 사암)
● '97년 기 제품의 문제점 (장력外)을 보완 · 개선시킨 신개발품으로 납품
'97 국제 안전기기 展 히트상품 선정 제1회 한국전기문화대상 (노동부장관상) 수상, (납품실적 : 제주약천사 外 570 여사암)
● '98년 IMF 환란으로 제일안전공사로부터, 본 제품제조업체였던 삼정전기산업에서 사업권 인수. (납품실적 : 광주 무각사 外 250여 사암)
● '99년, 삼정전기산업에서 직접제조 및 납품, 원자재 가격하락등으로 인한 제품 가격 대폭인하조치 단행.
⊙ 본제품을 이미 구입하신 전국 각 사암에서 추가 구입시 특별한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한번 맺은 인연은 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 구입후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100% 반품 받습니다.
· 주문 접수순에 의거 계획생산되오니 꼭 미리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등 및 전구는 원하시면 구매 대행 써비스 해드립니다.

■ 본사 주문 및 상담전화 (032)676-8884 (代)
☎ (032) 676-8881~3 FAX 032-676-8885
H.P 016-360-3676 성 기 홍 합 장

이렇게 들었다

생명의 소중함

사람 몸 수억겁 인연의 결과

"사람의 몸을 타고 나기 어렵기가 우담화(優曇花)의 꽃핀 것을 만나는 것 같거늘, 나는 이제 얻었도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지중한 인연인가를 이렇게 설명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남성의 미성숙 정자를 쥐의 고환에서 배양하는 방법을 사용해 아기를 탄생시켰다 한다. 불임부부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이는 획기적인 신기술로 평가되고 있지만 반면 의학적 윤리적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 않은채 시도됐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쥐아기 보도는 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못지 않게 생명공학이 인간의 삶 전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이란 무수한 연기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경전의 말씀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눈 먼 거북과 부목은 다른 데를 돌아다니더라도 혹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범부에 이르러서는 오취(五趣)를 휘돌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가 저 거북의 경우보다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부지런히 노력해서 뛰어난 의욕을 일으켜 가르침을 닦아야 하느리라. 〈잡아함경〉

▨여섯 원인이 모여 사람의 육체가 되는 바, 지(地)의 원소, 수(水)의 원소, 화(火)의 원소, 풍(風)의 원소, 공(空)의 원소, 식(識)의 원소가 그것이다. 〈정사오원경〉

▨사대(四大)가 잠시 모여 있으므로 편의상 이름지어 몸이라 하는바, 이 사대에는 주재자(主宰者)가 없는 터이니까 몸에도 자아(自我)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유마경〉

▨인명(人命)의 멈추지 않음이 산골짜기의 시냇물보다 심해서, 오늘 살아 있다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 어떻게 마음을 단속지 못해 악법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젊은 육체의 머무르지 않음이 오히려 달리는 말과도 같다. 어떻게 그것을 믿어 교만을 일으키겠는가? 〈열반경〉

▨모든 생명은 안락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안락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안락을 얻지 못한다. 〈법구경〉

▨존재의 진실 불변한 본성(本性)은 원래 공적(空寂)하여 이런저런 양상이 없으니, 허공 같아 분별이 불가능하다. 여러 집착하는 생각을 초월하고 말할 길이 끊어진 상태여서, 진실·평등하고 언제나 청정하다. 〈화엄경〉

▨중생의 받은 몸도 역시 그러해서, 일단 몸을 받고 나면 바로 온갖 괴로움의 그릇이 되고 말아서, 큰 나무의 무성한 꽃과 과일을 뭇새들이 쉽사리 깨는 것과 같고, 많은 마른 풀을 조그만 불이 능히 태우는 것 같아, 중생이 받은 몸도 괴로움에 의해 파괴되고 마느니라. 〈열반경〉

▨"무엇을 일생이라고 합니까." "한 번 잉태되어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일생이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차례로 무수한 생에 이릅니다." 〈선견율 비바사론〉

▨어떠한 생명이든지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도 저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므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된다. 〈상응부 경전〉

▨죽이는 인(因)과 죽이는 연(緣)과 죽이는 방법과 죽이는 업(業)으로 목숨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된다. 보살은 항상 자비스런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방자한 생각과 통쾌한 마음으로 산 것을 죽인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범망경〉

▨산것을 몸소 죽여서는 안된다. 또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도 안된다. 난폭한 짓을 두려워하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숫타니파타〉

▨불자는 자비한 마음으로 산 목숨을 놓아주는 일을 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육도 중생이 모두 내 아버지요 어머니다. 그러므로 산 목숨을 잡아먹는 것은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내 옛몸을 먹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범망경〉

열반절의 참뜻 새기자

제언



성관스님
인도 대한사 주지

니르바나(nirvana)는 불교의 최종 목적이며 불교에 있어서 그것은 일체의 실천수행과 사상적인 제요소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빠알리어 율장 소품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말씀이 있다. "비구들이여! 드넓은 바다 전체가 한결같이 소금의 짠 맛이듯 나의 모든 가르침도 오직 해탈이라는 한 맛만을 가지고 있다." 일체의 고, 즉 불안 걱정 질병 등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때 인간은 진정한 해탈을 얻게된다는 견지에서 열반을 자기소멸로 해석하고 있다. 열반은 죽음과 더불어 성취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삶가운데서 이룰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원래 열반은 불을 입으로 불어서 끄는 것, 불어서 꺼진 상태를 나타내며 타오르는 번뇌의 불을 없애서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를 완성한 경지를 말한다. 이는 곧 생사를 초월하여 넘어선 원각(圓覺)의 세계로서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목표이다. 열반에 이르기까지 실천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8가지 바른 길(팔정도)이 있다. 즉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을 잘 닦는다면 지혜를 얻어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해탈의 경지이다. 열반절을 맞아 부처님께서 마가다와 같이 화려한 나라의 베살리같이 풍성한 거리를 버려두고 어찌하여 외롭고 가난한 쿠시나가라에서 대열반에 드셨을까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쿠시나가라는 우타르프르데쉬주에 있다. 열반당 안에는 5세기경의 와불이 있어 참배객들을 숙연케 한다. 그 뒷편에는 부처님사리탑이 있으며 열반당 앞에는 부처님 당시 것은 아니지만 두 그루의 사라수가 있다. 쿠시나가라에는 여러 불교국가들이 세운 절이 있다. 미얀마 절이 가장 먼저인 1902년 세워졌다. 중국절은 1948년, 티벳절은 1968년, 일본절은 1985년에 지어졌다. 우리나라 절인 대한사 맞은편에는 태국절이 있는데 태국정부와 왕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재 위빠사나수행관, 병원, 학교 등의 공사가 한창이다. 대한사는 1992년 불사를 시작해 지금 진행중이다.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준다면 부처님열반지에 한국절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열반절을 맞아 한국불교의 포교와 불교중흥의 기도처인 대한사가 어서 회향의 날을 맞길 기원해 본다.

연락처: (인도)001-91-5564-72108, (한국)011-269-7208

목탁소리

김원우 〈취재1부 기자〉

재가회의와 재가연대

지난 95년 지성불교를 주창하며 사회지도층불자 2백여명이 50만원의 회비선납등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며 교계의 관심속에 창립됐던 한국불교 재가회의가 20일 조용히 막을 내렸다.

재가회의는 해산과 함께 재가연대에 귀속키로 하고 남은 재정도 50%는 재가연대에 이관하고 50%는 불교방송에 기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95년 재가회의의 출범은 거창했고 교계의 기대를 모으면서 불교개혁의 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경주살리기 고속전철 통과반대에 앞장서는 등 활동을 펴기는 했으나 출범에 걸맞는 후속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스스로 해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재가회의의 해체가 갖는 파장은 단순히 한 단체가 없어졌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재가지성인들이 도출해낸 단체의 행보는 곧 재가불교의 역량과 앞날을 가늠하게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제 재가회의의 다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28일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가 창립됐다. 재가연대는 재가회의의 전철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재가연대 창립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흐지부지돼 버리지 않을까하는 우려 또한 있음을 새겨야 한다.

재가연대는 종단사태 와중에서 결합했다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단체들간의 화합과 역량을 맞춰가며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바로세우기'를 주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종단에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일정부분 수행해야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천가능한 사업내용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크게는 연대단체로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펼쳐야 한다. 재가단체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문제의 공동대처 방안마련도 간과할 수 없다.

재가회의·재가연합의 행보에 실망한 불자들의 기대가 재가연대에 모아지고 있는만큼 이를 바탕으로 불교재가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재가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센터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wwkim@buddhapia.com)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승가구성' 놓고 의견 분분
재가불자 포함해야 마땅

승가의 구성은 출가2부중인가, 4부대중인가. 이 논쟁은 재가불자들의 불교 내 위치와 역할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나의 의견은 승가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귀의의 세 번째는 '歸依僧 衆中尊(귀의승 중중존)'이다. 그러나 이 승에 대한 규정은 화자에 따라 달라진다. 경전의 서술 역시 이 부분은 한쪽의 손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 굳이 가르자면 원론적으로는 출가자를 지칭하는 쪽에, 현상적으로는 사부대중에 가깝다.

승가란 용어는 불교 고유의 용어가 아니라 상공업자 조합이나 정치적 단체, 공화정체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였으나, 불교에서는 교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이 승가의 특징은 평등, 무차별의 교단이었다는 점과 만인에게 개방된 교단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등, 무차별의 불교승가의 목적은 화합승(和合僧;samagga-samgha)의 실현이었다.

엄밀한 의미의 승가란 출가수행자에 가깝고 재가자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듯하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교단의 구성에서 재가자는 빠질 수 없는 존재이고 불교의 이상인 깨달음 역시 만인을 향해 열려 있었다. 초기 경전에는 재가신자이면서도 출가한 아라한과 다름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나 강한 신앙과 법력을 소유한 남녀 불제자가 많음을 서술하고 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재가자 가운데 법을 설하는 설법자가 존재했고, 일단의 대중을 통솔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재가불자가 단지 법의 수용자나 단순한 외호자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깨달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듯이 법의 호지와 전수 역시 모든 대중에게 열려있었던 것이다.

김승호 〈조계종 포교사·서울 상도동〉

수입물고기 방생 삼가고
불우이웃 위해 인간방생

요즘 신문기사를 보면 방생법회가 많이 열리는 것을 알수 있다. 방생이란 보통 죽음에 직면한 생명을 살려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불교 5계중 으뜸이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니 방생이란 이러한 불살생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수행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무수한 선행이 있지만 죽게 된 목숨을 살려주는 것보다 지고한 선행은 없을 것이다. 물질만능주의로 흐르는 요즘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불자들의 실천덕목이 이타행이 아닐까 한다. 수입된 물고기를 방생하다보면 토종물고기들이 수입물고기에 의해 멸종까지 되어 자연과괴와 생태계 파괴로까지 연결된다니 이왕이면 인간방생을 하자. 잡혀 죽을 목숨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산 물고기를 사서 풀어주어 자신과 가정의 복을 기원한다면 그것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윤회의 수레바퀴처럼 돌고돌아 갈수록 업장만 두텁게 쌓이는 것은 아닌지.

이제부터라도 인간방생에 관심을 가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같이 나누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

김진형 〈충남 공주시〉

불교방송·불교TV 살리기
불자들 십시일반 정성을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고자 설립된 불교방송 불교TV가 재정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 불교방송 후원회보를 받아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럽다. 방송으로 영상으로 불법을 널리 펴는 일이 얼마나 고마운가. 안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공부를 저절로 할 수 있는 고마운 방편인데 불자로서 불교방송 불교TV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면 안될 것이다. 요즘 어느 누구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 불자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인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꼭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깨침을 주고 배움을 주는 불교방송, 불교TV를 위해 십시일반 마음과 정성을 모으자.

김갑숙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스님-거사 호칭 구분은
불교의 질서 세우는 일

부처님 당시부터 출가자와 재가신도는 분명히 구분되었다. 아무리 뛰어난 도인이라 할지라도 처자가 있는 한 ○○거사로 불리워졌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인지 분명 환속해 처자가 있는데도 ○○스님이라고 불리워지거나 ○○선사로 호칭되고 있다. 유마거사 방거사 부설거사 세 분은 모두가 인정하는 도인들이다. 물론 이분들 외에도 도를 터득한 거사가 여러분 있지만 도를 터득했다고 해서 ○○선사라고 하지 않지 않는가.

원효대사라는 칭호는 후대인들이 그분의 훌륭하신 업적과 여러 상황이 고찰되어 붙여준 것이지만 원효스님께서는 파계후 스스로 '소성거사'로 칭했다는 것이 기록에 분명히 나온다. 한국불교를 바르게 하는 일, 우선 호칭부터 분명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동묵 〈전북 전주시〉

한글로는 뜻 이해 어려운
불교용어 한자병용 했으면

한글세대를 겨냥하여 현대불교신문은 '한글오로지쓰기'를 하고 있는데 대해 한마디 건의하고자 한다. 전적으로 한글로만 쓰면 그게 무슨 뜻인가 이해하기 힘들때가 있다. 예를 들면 '성보 도난 백서' '광덕대선사 원적' 책이름 '귀소야' 등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리려면 괄호를 치고 한자를 병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문에 박식한 사람으로 불교에 해박하다면 한글로만 써도 유추해서 알겠지만 불교신문이라고 반드시 불자들만 읽으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생소한 불교용어는 한자병기를 꼭 해주었으면 한다.

최덕환 〈서울 종로구 사직동〉

건·강·보·조·식·품·허·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익수영진고 시판개시!

선(仙;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푸르름(靑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의 물(水)·불(火)·흙(土)·쇠(金), 네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소멸하여 자식격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8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義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 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람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송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정(強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복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흑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숙성시켜 수천 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종합영양 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 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휴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 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의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이며, 건강보조식품허가**(98.3.31)를 받았다.

앞으로 기적의 우리 지리산 소나무 종합강정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 본사제품
솔선식, 효소정액, 익수영진고
(KBS 6시내고향 99.1.28 방영)

솔효소정액
원액 2,800㎖
(700㎖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

솔선식
환약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

익수영진고
옛날 방법으로 1개월간 은은하게 달이며 600g(한근정도)
최고급 보약중의 보약
₩1,000,000원
(약 2개월 분)

■ 구입문의 :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한방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불교문학 신작 못내 '우울'

작품성보다 사업성 '저울질'
출판사들 불황여파 긴축
탈고작품들 서랍신세

불교문학이 동맥경화에 걸렸다.

불교소설 창작에 몰두해 온 작가들의 신작들이 출판사 문전에도 가지 못하고 서랍에 갇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출판계의 불황이다. 요즘 같은 불황에 책을 냈다가 초판도 다 소화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어지간한 작가들의 작품은 받아 주질 않는다는 것. 거기다 불교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특수성도 작가들에게 불리한 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천년의 반지'를 발표했던 백금남씨는 조만간 소설 '유마'를 탈고한다. "작업이 이정도 진행되면 인연있는 출판사들로부터 섭외가 오기 마련인데 요즘은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백씨는 여기저기 출판사들이 자신의 작업 과정을 알고 있으면서 연락이 오지 않는 이유를 잘 알고 있지만 "완성된 작품을 출판사와 독자라는 길로 순환시키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불교희곡집을 낼 계획인 하유상씨도 계획을 한껏 접어 둔 상태다. 12편의 희곡을 묶어 불교희곡집을 내려 했으나 선뜻 달려드는 출판사가 없다. "돈이 안되겠다 싶은 거죠. 요즘 같은 불황에 누가 돈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작품성이 평가되기보다 상업성이 먼저 저울질되는 폐단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경기가 좋아져도 작가들의 기는 살아나기 어려울 겁니다."

97년 '삼국지', 98년 '태평양을 마당처럼' 등을 발표해 온 이광복씨도 불교성향의 작품을 꾀 모아 뒀지만 서랍에서 꺼내지 못하고 있다. 장편 1편과 중단편집 2권 분량의 작품들을 묶어 두고 있다. "한 마디로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열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작품을 쓰지만 발표할 길이 막혀 있는 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잘 나가는 상업성 소설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저기 원고뭉치 싸들고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사실 돌아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지만 출판은 안됩니다." 이광복씨의 경우 작품을 쓰고도 출판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대학 다니는 자녀를 휴학시킬 수밖에 없었다.

서점가의 찬바람을 온 몸으로 맞고 있는 작가들 사이에서는 이 위기를 수행의 기회로 삼자는 주장도 있다. 윤후명씨는 지금 내 놓아도 실패하지 않을 자신 있는 작품들이 서랍에 쌓여 있다. 그러나 짐짓 출판을 하지 않는다. "기다리고 싶어서 묶어두고 있습니다. 서점가의 호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절실히 출판을 하고 싶어질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선문답 같은 윤씨의 말에는 깊은 뜻이 있다.

이미 탈고된 작품일 지라도 곁에 두고 퇴새김질을 해가며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생길 때 성패를 가늠하지 말고 독자들 앞에 떳떳이 내 놓자는 것이다. "이런 기회에 작가적 태도를 점검하고 고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상업적인 계산보다는 좋은 작품에 목숨을 거는 작가의 양심을 존중하는 풍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작가들, 그 가운데서도 불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작품을 쓰는 작가들까지 거꾸로 달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설가는 좋은 소설을 쓰고 독자들이 읽을 때 문학은 존재의 가치를 얻는다. 서점가의 찬바람과 출판가의 냉정한 계산이 불교소설의 통로를 막아버린 문단의 동맥경화 증세. 대다수의 작가들이 이 암울한 환자복을 벗어 던질 날만 기다리며 작업실에 칩거한 채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또 쓰고 있다. 작가이기 때문에.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한국불교문학연구' 펴낸 인권환교수

"불교문학연구 30년 결실 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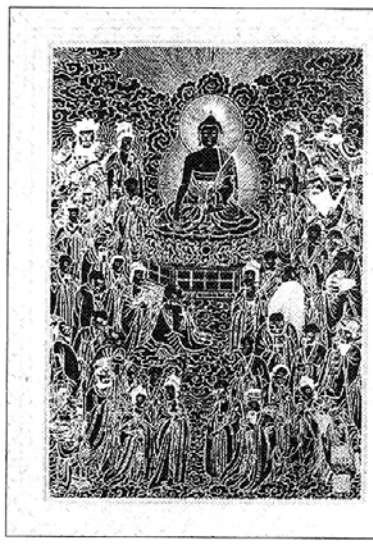
"대부분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에 '불교문학'이라는 학과목은 없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특별하게'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제 불교문학 영역을 탐구한 결과물들이 석사학위 논문으로 적잖게 나오고 있으며 박사학위 논문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960년 '한용운 연구'로 석사학위를 83년에는 '고려시대불교시연구'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불교문학 연구에 몰입해 온 인권환교수(고려대)가 최근 '한국불교문학연구'를 펴냈다. 불교문학에 대한 정의가 일반화 되지 않은 시절부터 이 분야에 정열적으로 달려들었던 30년 세월의 열매다.

불교문학의 정의에서 시와 소설 등 장르별 역사와 정신의 통찰, 혜심, 일연을 거쳐 김시습 한용운으로 이어지는 불교문학작가에 대한 탐구. 불교문학서들에 대한 평가 등이 담겨 있는데 불교문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강단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불교문학이란 연구영역을 한국문학사에 새겨 넣은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 연구서는 주목되고 있다.

인교수는 "연구를 하자면 수많은 경전과 선사들의 시 게송 등 무한한 마당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연구분야에도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우리시대의 불교문학을 양산해 낼 작가들의 수적 질적 향상도 필요하다"고 오늘의 불교문학을 진단했다. 인교수는 앞으로 우리나라 불교전래 이후 현재까지의 불교문학사를 정리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무형문화재 박정자씨
'금니금속불화' 선보여

단청장 박정자씨(중요무형문화재48호)의 불화가 '티타늄 골드'라는 새로운 소재의 금니금속불화로 재창조돼 주목받고 있다.

티타늄은 골프채나 항공사업 등에 사용되는 금속으로 내구성과 보존성이 뛰어난게 특징. 평소 불화가 쉽게 훼손되거나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던 김명환(54·불화연구소장)씨가 훼손 없이 후대에까지 물려 줄 수 있는 재료를 찾던 중 자체 개발한 것. 금니금속불화는 박씨의 불화를 스캔하고 이것을 다시 티타늄 골드에 컴퓨터로 출력해 재현한 것으로 금으로 그린 불화보다 면이 매끄럽고 색상도 양호하다.

4월중 경주서 열리는 '불교예술대전'에서 박씨의 '영산회상도'와 '관세음보살'등 총 82점의 불화를 재현한 금니금속불화와 사방을 금니금속불화로 장식한 복전함 등이 전시된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김원출씨 음성공양
'천년자리 만년자리'



서라벌 예대 작곡과 졸업. 안마지압사 자격증 취득. 전립선암 말기 환자. 1년간의 기도와 완쾌….

기적 같은 삶을 살아온 김원출씨(69세)가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작곡해 부른 노래가 음반에 담겨졌다. '나의 찬불가 천년자리 만년자리'. 타이틀곡인 '천년자리 만년자리'를 비롯해 16곡이 담겼다. 경쾌한 리듬과 신심이 배어나는 가사가 어우러진 악곡들은 노래부른 사람의 기구한 삶이 일깨워 준 '귀의와 정진'의 서원을 아릿하게 전해준다.

새로 나온 음반

신세대용 불교가요
유승엽 '카르마' 발표



사오정이 불교가요로 신세대들을 만나러 왔다. "무슨 사오정 같은 소리냐"며 의아해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이다.

오카리나 연주가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유승엽씨가 신세대를 겨냥한 불교가요집 '카르마'를 냈다. 김지웅이 이끄는 보컬이 신나게 불러 넘기는 '사오정', 사물놀이와 굿거리 장단을 뒤섞은 가락으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명산대찰' '염라대왕' 등의 노래들은 다분히 신세대들에게 새로운 흥미로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모두 10곡이 담겼다. 작사가 유화정씨가 가사를 만들었다.

전시소식

설봉스님 이웃돕기 도예전

4월 2일까지
강화문예회관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설봉스님(무애원 원장)의 도예전이 27일부터 4월2일까지의 일정으로 강화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전시에서는 설봉스님 특유의 실험정신에서 완성된 백자류의 신작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 개막식이 열린 27일에는 김홍국 남궁옥분 진송남씨등 불자가수들이 함께 한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032)932-5087



◇남궁산作 '생명 그리고 희망'.

'목판에 담은 생명의 향기'

남궁산 목판화전
4월말까지 백양사

산사에서 만나는 목판화. 단조로운 구상에 화려한 생상, 토속적인 정서가 물씬 풍겨나는 작품마다 새로운 삶의 향기를 뿜어낸다.

'생명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하는 남궁산씨의 목판화전이 전남 장성 백양사 고불미술관에서 열린다. 4월1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이 전시는 백양사와 참사람결사운동 추진위원회가 초대전 형식으로 마련한 것. (0685)392-7502

돈에 불국사를 그렸어요

31일까지 '조페아트페어'



◇장시웅作 '불국사 설경'.

지폐에 그려진 그림들을 예술적 안목으로 보는 눈을 키우자.

한국조폐공사가 첫 번째로 '우리돈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주제의 조폐아트페어 열고 있다. 25일부터 31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2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에서는 불국사 설경(장시웅 작) 석굴암 본존불 등을 만날 수 있다.

(02)708-2095

"붓다가 살아 있다면 바로 이런 책을 썼을 것이다!"

입문에서 깨달음의 완성까지—
이 시대의 구도자 무산본각(無山本覺) 선생이 완벽하게 복원해낸 붓다 수행법의 완결판!

쉽게 풀어본
호흡수련과 氣의 세계 2
전통호흡수련의 폐단을 극복하는 '자연호흡'의 세계

"100% 체험"

호흡수련, 이젠 '자연호흡'으로 한다!
언제까지 지식(止息)과 폐기(閉氣)로 자신의 몸에 무리를 줄 것인가? 들숨과 날숨만으로 이루어지는 자연호흡으로도 얼마든지 氣가 생성되고 강화된다! 20년 수련 체험을 바탕으로 쓴 氣 수련의 새로운 지침!

■ 값 10,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지은이 全永光
오랜 공직생활(전 해양수산부 서기관)을 하였으며, 여러 국가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전호흡을 강의하고 있다. '97년 제1회 국제기과학학술대회 초청연사로 氣수련의 에커니즘에 대해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책의 전반인 《호흡수련과 氣의 세계》로 많은 수련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마음닦기
붓다의 글을 통해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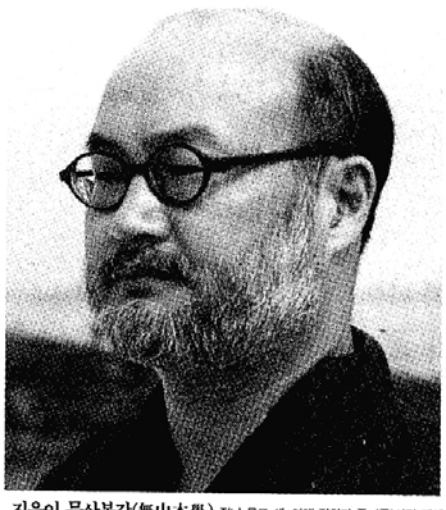
無山本覺 지음
값 12,000원(부록CD 포함)

마음수련의 正道를 밝혀주는
모든 수행인들의 필독서!

· 2,600년 전 붓다가 깨달음에 이른 수행법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본격 수행 지침서.
· 방대한 경전과 논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인 수행법들이 체계적으로 기술된 수행 필독서.
· 일실된 수행법들을 복원하고, 북방 대승불교권의 간화선(看話禪) 전통까지 포용한 본격적인 수련 매뉴얼.
· 여러 종교의 수행법, 현묘지도(玄妙之道), 도가 등의 수련법을 종합하고 해석·비판·융해하여 재구축한 완벽한 수행 시스템.
· 영적 계발을 위해 직접 몸으로 체험한 실천적인 테크닉의 기록.
· 인류 정신발전의 정화(精華)가 함축되어 있는 최고의 수행서.

■ 저자 초청 특강 및 워크샵
1999. 4. 3(토) 오후 2:30~5:30/참가비 6천원(선착순 입장)
■ 12시간 집중수련 워크샵
4. 10(토) 오후 3시~10시/11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
참가비 5만원(선착순 마감)
주최: 정신세계원(747-7033/비원 옆 원시빌딩/안국역 · 종로3가역)

특별부록 …… 確定으로 이끌어주는 CD
무산본각 선생의 육성 기르침. 듣기만 하면 깨달음을 만난다!



지은이 무산본각(無山本覺) 전남 목포 생. 연대 정외과 졸. (주)신경 테헤란 지사장, 주(駐) 이란 한국상사협의회장 역임. 이란·이리크 전쟁중 테헤란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귀국하여 수행자가 됨. 영축총림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받음.

이제는, 더이상,
《한단고기》를
부정할 수 없다!

단군조선은 78개의 속국을 거느린 대제국이었으며, 한반도는 삼한의 일부에 불과하였고, 고구려·백제·신라의 중심지는 현재의 중원 대륙에 있었다…!
한 고대사 연구가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 마침내 긍지에 찬 민족사가 되살아난다—《실증 한단고기》.

《삼국사기》와 중국의 25사 등 방대한 문헌과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중국의 고지도들을 통해 단군조선 47대의 생생한 역사, 왜곡·축소된 고구려 역사의 실체를 낱낱이 고증하고, 백제와 신라의 대륙사까지 새롭게 밝힌다.

이일봉 지음
값 12,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實證 한단고기
단군조선과 고구려·백제·신라의 대륙역사



《한단고기》
임승국 주해|10,0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 팩스 739-8791

역사 인물 설화 사상 속살풀이

김봉렬교수 '시대를 담는 그릇' 고건축 재조명

예술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건축. 불교건축은 불국사가 공간적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심오한 불법속에 문화 예술 그리고 건축가의 정신이 녹아 있는 불국토이다. 고건축의 창작배경과 건축가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면 건축의 속살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우리 건축을 새로운 시각에서 집대성한 책이 나왔다. '한국건축의 재발견 시리즈'의 하나로 펴낸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의 〈시대를 담는 그릇〉이 바로 그것. '세계적 유산의 또다른 이야기-불국사와 석불사(석굴암)', '문화적 전환기의 건축-안압지와 마곡사', '장인정신과 공예적 전통-전북의 작은 사찰들' 등 고건축을 '문화를 담는 그릇'으로서 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시대를 담는 그릇〉은 건축물별로 주제를 선정해 한국전통건축의 전체 맥락과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풀이하고 있다. 또 건축물의 실측도면, 사진, 해설과 주변 문화유산들도 곁들여 한국건축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우리 건축 되찾기 일환으로 준비됐다는 점에서 읽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건축양식에서 역사의 향기가 느껴진다.

〈시대를 담는 그릇〉은 고건축 답사와 감상에만 치우치지 않는다. 석굴암이 왜 최상의 하이테크 건축인지, 마곡사가 보여주는 전환기적 건축의 양식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를위해 저자는 창작 배경과 개념 뿐만 아니라 항목마다 설화를 곁들였고, 건축과 관련한 인물과 인물이 엮은 역사와 사상체계까지 일목요연하게 서술했다. 또한 이 책을 읽다보면 현대건축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형성에 근본적인 대안을 제기하고자 하는 저자의 노력도 엿보인다. 이처럼 〈시대를 담는 그릇〉은 건축을 주인공으로 하는 대하소설이며 문화총서인 셈이다.

> **불국사-공간적 대장경**
> **마곡사-전환기적 양식**
> **만든사람 생각 알면**
> **건축의 본질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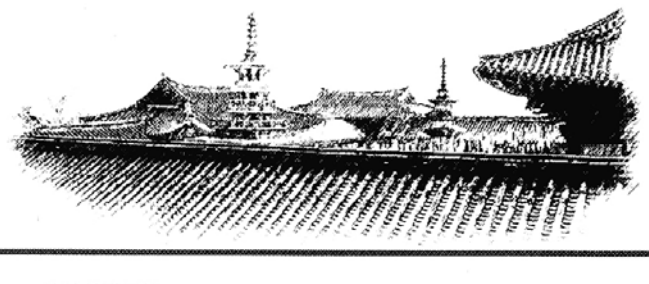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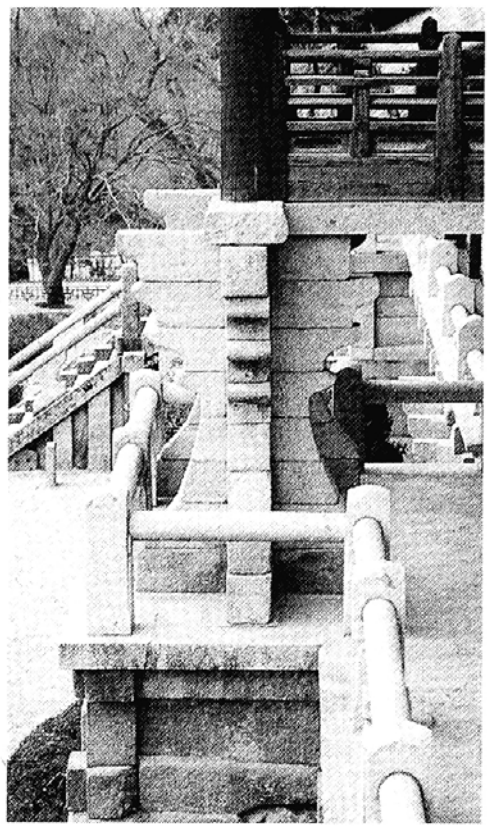
김봉렬교수는 다양한 용도와 목적의 건축들 속에 담겨져 있는 생활과 생각들을 담은 〈앎과 삶의 공간〉, 터잡기부터 세부기법까지, 한국건축의 이론적 내용들을 수록한 〈이땅에 새겨진 정신〉을 연이어 출간할 계획이다.

김봉렬교수는 "한국건축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기 위해 집필했다"며 "건축인 뿐만 아니라 문화인 일반인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간의 의미를 밝혔다.

새로운 시각에서 한국건축을 총망라한 한국건축의 재발견 시리즈는 건축인 뿐만 아니라 우리문화에 관심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권해 볼 만하다. 〈시대를 담는 그릇〉을 펼쳐드는 독자들은 지혜로운 이상세계를 그린 선조들의 깊고 넓은 문화적 안목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불국사 범종루 아래 수미산 기둥. 목조건물의 공포를 돌로 표현한 고도의 추상형태.

해외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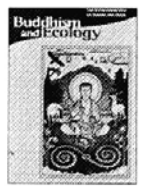
부처님



2천5백여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부처님(Buddha:The Living Way)은 이같은 궁금을 풀어줄 수 있는 책이다. 저자 트리밍햄이 각국의 대표적인 사원에서 봉행되는 불교의식과 스님들의 수행을 낱낱이 소개하고 있다.

Random House 刊. ISBN 06-79457844

불교와 생태학



대승·상좌부 불교의 환경관에서 현대의 에코 부디즘까지의 불교 환경론을 소개한 〈불교와 생태학(Buddhism and Ecology:The Interconnection of Dharma and Deeds)〉이 발간됐다. 미국 하버드대학 세계종교연구소에서 96년부터 3년간 '불교와 환경'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 19편이 수록됐다. Harvard University 刊. ISBN 0945-454139

일본중세의 선종과 사회

일본 선종을 집중 고찰한 〈일본중세의 선종과 사회〉가 나왔다.

구(舊) 불교와의 대립양상을 밝히며 기존의 선종상을 재검토하고 있다. 선종과 염불, 선종의 지역적 전개 등의 사회적 의미를 수록했다. 吉川弘文館 刊 / 하라다 마사도시(原田正俊) 著.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읽은불서 · 새책 한권씩 절로 보내자

절마다 도서실(관)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불·기도·법회를 마치고 도서실에 들어가 불서를 읽거나 궁금했던 교리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불서를 대여받아 집에 가서 가족이 함께 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대불교신문은 올 한해 동안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월1회 기획기사를 통해 도서관과 불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실 만들기·운영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아울러 도서실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우리절에 불서 보내기' 운동도 펼칩니다. 모든 불자들이 다 읽은 불서 또는 새로나온 불서 한권씩을 다니는 절에 법공양 한다면 많은 절들이 도서실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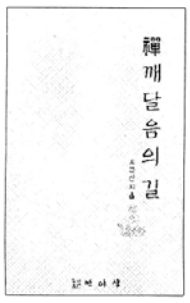
주지스님을 비롯 교계인사, 신행단체, 불자 여러분이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드는 불사는 새 천년을 준비하는 주춧돌 놓기입니다.

△동참안내: ①도서실 만들기에 뜻이 있는 주지스님들은 본사 캠페인팀과 상담해 주십시오.
②불자 여러분은 소속 사찰에 읽은 책 또는 새 책을 보내거나 본사 캠페인팀과 법공양을 의논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02)737-8881 출판부장
후원: 조계종 포교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협찬: 교계 출판사(사찰도서실 법공양 불서 30% 할인)

현대불교신문사

선 깨달음의 길 | 고산스님 지음

조사들 일화통해 살핀 선수행



선(禪)은 단순히 마음을 가라앉힘으로써 삶의 여유를 찾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청정한 본마음을 깨달음으로써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소중한 수행방법이다. 불자라면 이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펴낸 〈선 깨달음의 길〉은 선을 통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조사들의 일화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사들의 기행(奇行)에 대한 바르고 쉬운 해석서가 함께 있어 이해의 폭을 넓게 제시하고 있다. 〈반야샘, 8천원〉

화제의 책

불교성서 | 홍순철 지음

부처님의 삶 재조명한 입문서

초심자나 불교를 처음부터 다시 알고자 원하는 불자들을 위한 불교성전이 나왔다.

〈불교성서〉는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부처님의 역사적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오늘을 사는 모든 이에게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불교경전이 한역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역경전의 굴레를 벗어나 고유명사나 불교의 전문용어 등을 원어인 범어로 표기하여 불교 술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밝히고 있다. 〈관음, 3만원〉



'화엄경 현수기' '금강수보살대교왕경' 동국대 역경원, 한글대장경 2권 출간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화엄경현수기〉 〈금강수보살대교왕경〉 등 2권의 한글대장경이 나왔다.

〈화엄경현수기〉의 원제목은 〈대방광불화엄경수현분제통지방궤〉. 불타발타라가 한역한 60권으로 된 〈대방광불 화엄경〉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화엄종의 교리를 체계화 한 것. 첫권의 전반부분에서는 〈화엄경〉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다음부터는 품별로 해석하고 있다. 역경위원 장순용씨가 번역을 했다.

〈금강수보살대교왕경〉은 부처님께서 금강수보살에게 설하신 일체 귀신을 항복받는 밀교의 경이란 뜻이다. 이 경은 3권으로 돼 있으며 상권에서는 경을 설하게 된 인연을, 중권에는 기도하는 절차와 귀신을 부리는 설명을, 하권에는 분노의 제단을 꾸미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분비구니갈마법〉 등 43개 경전을 함께 수록했다. 김두재 최윤옥 신성현씨가 역경을 맡았다.〈동국역경원, 값 각1만5천원〉

경전·논서 줄거리 간추린 '도서-사교과도집'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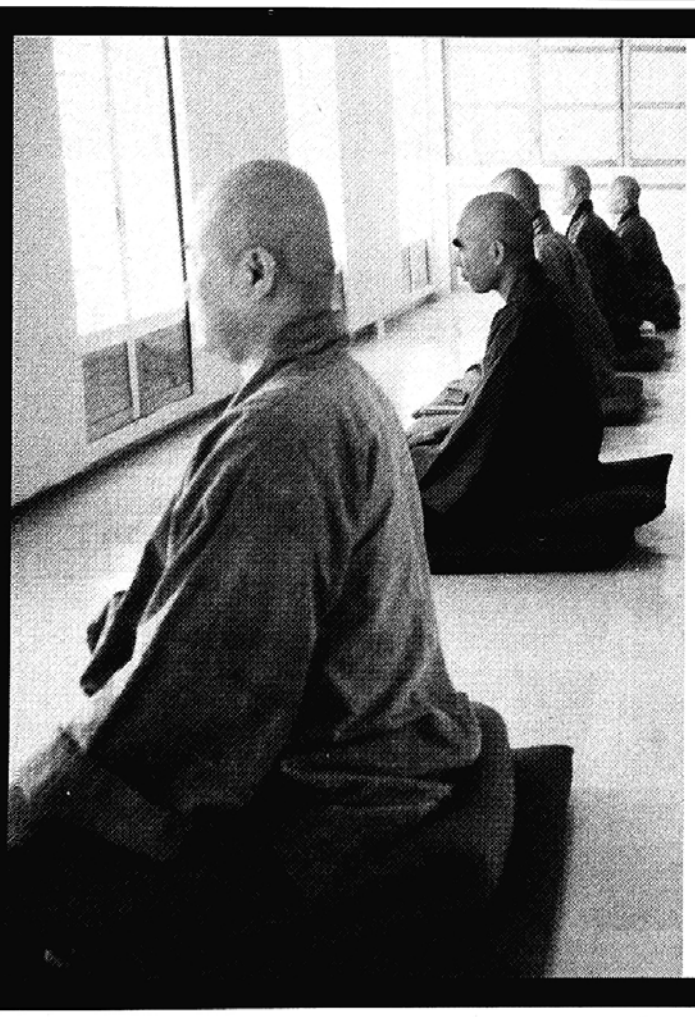
강원에서 학습되고 있는 사교(四敎)를 비롯 〈법화경〉과 사집과목 중 도서(都序)를 묶은 과도집(科圖集)이 나왔다. 과목을 도표로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과도는 경전이나 논서의 줄거리를 간추린 약도로 전체 내용의 개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로부터 경전이나 논서의 연찬(硏鑽)에 과도를 이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배가 시켜왔다. 각 과목의 이름마다 해당하는 경서의 장과 행을 표시하여 제방의 학인과 경학자들이 공부하는데 편리하도록 엮었다.〈은해사 승가대학원, 값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참선요지	대 성	여시아문
3	입산	재 연	문학동네
4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5	티베트의 지혜	소갤린포체지음	민 음 사
6	원효(영원한새벽)	남 동 신	새 누 리
7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말씀	석성우·석지현	민 족 사
8	경허 길위의 큰스님	한 중 광	한 길 사
9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불교다라니
10	있는 그대로	다마노미하라쉬	한 문 화

구입문의:(02)737-0695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禪)은 논리와 변증을 극도로 싫어한다. 상징과 역설로 비틀다가 성에 안 차면 직접 행동으로 나선다. 코를 비틀고 발등을 찧으며, 몽둥이 세례를 주고 손가락을 자른다.

그 동안 선(禪)을 지나치게 교(敎)의 〈혁신〉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선은 교(敎)의 〈연장〉이기도 하다. 선의 혁명은 소승에서 대승에 이르는 난만한 교학의 발전 그 정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점을 놓치면 선의 활발발한 거래를 정당하게 읽을 수 없다. 이 글은 선이 〈언어를 버리기까지〉의 고민과 배경을 살피고, 그 불가해한 언설에 담긴 이론과 맥락을 탐색해 나간다.

선의 문헌은 역설적이게도 방대하기 그지없다. 그 가운데 수행자들의 실지 수련을 위해 간명하게 정리한 화두(話頭)집인 『무문관(無門關)』을 통해 선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는다. 『무문관』은 선의 궁극적인 화두, 즉 "너는 누구냐"라는 실존적 물음에 대한 선의 전형적 접근을 담고 있다.

『무문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책이 아니다. 학인들을 위해 독자적으로 제시했던 화두들을 끌어모아 엮은 것일 뿐이다. 그 편집의 체제를 존중하여 강의 또한 굳이 역사와 사승의 선후를 정리하지 않았고, 또 선의 정신에 입각해 해설 또한 단평과 감상을 주조로 했다. 이런 두서없는(?) 강의에 불편해 할 사람들, 즉 선을 역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군데군데 장문의 해설을 끼워 넣었다. 이들을 기축으로 나머지 강의를 참고하면 선의 대강을 가늠할 수 있다.

이 글은 〈번역〉과 〈해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두 부분 모두 근대교육을 받은 세대들을 위한 온전한 현대어역이다. 필자 자신 한문을 외국어로 익힌 한글세대로서 당연한 선택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14회 뇌허학술상 정병삼 교수 수상



뇌허 김동화 박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뇌허학술상의 14번째 수상자로 정병삼 교수(숙명여대 한국사학과)가 선정됐다.

선정대상 논문은 〈의상 화엄사상연구〉. 의상의 화엄사상과 관음 및 미타신앙, 교단활동이 종합된 불교사상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인 의의를 추구한 저서.

올해 뇌허학술상은 1998년 한해동안 발표된 모든 불교관계 논문 중 97편을 간추려 심사했다, 심사위원은 원의범, 이재창, 김영태, 서윤길, 윤호진 교수가 맡았다.

운영위원장은 광우스님(전 국비구니 회장). 4월5일 오전 10시 정각사에서 시상한다.

상금 3백만원

학술단신

제1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진각종 교육원(원장 일정)은 불교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밀교학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4월24일까지 제1회 진각논문대상을 공모한다.

밀교교학, 밀교사, 밀교관련 응용분야, 진각종학 등 밀교분야와 불교교학, 불교사, 불교관련 응용분야 등 불교일반분야로 논문대상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4월24일까지 논문제목과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5월1일 발표하며 당선 우수작에는 2백만원, 가작에는 1백만원씩의 상금이 주어진다.

(02)913-0753

4월3일 불교교학연수

일본 광명연수회와 대한불교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불교교학연수회가 4월3일 진흥원 대법당에서 개최된다.

한일 불교계의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이번 연수회는 염불을 통한 불국정토 구현을 위하여 불교교학 연구 및 연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연수회의 제1주제는 염불과 현대생활로 가와나미 아키타 교수(河波昌, 일본 동양대학교)가 제2주제인 염불신앙의 실천과 형태는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이 발표한다.

개화기 사찰교육 민중계도 기여

정영희교수 '개화기 종교계의 교육운동 연구'



강원·선원·율원·염불원 민족교육 밑거름

보통학교-지방-중앙학림 3단계 제도 확립

"개화기 불교지도자들은 전국 사찰에 근대식 불교교육기관을 설립해 승려 교육기관이던 강원과 연계교육을 실시하면서 스님은 물론 민중들에게도 근대교육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불교지도자들은 근대교육을 통하여 민중을 계몽시키고 근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고 한국의 근대교육 발전과 근대사회 이룩에도 크게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개화기 종교계의 교육운동 연구〉(혜안 刊)에서 정영희 교수(인천대)는 불교는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자비와 평등, 문화와 전통, 국권수호 사상을 일깨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민중을 계도하는 중심사상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개화기 종교계의 교육운동은 민족지도자들의 주도하에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교사회의 잔재를 청산하고 선진화된 서양의 근대교육제도를 수용해 나간 것으로 보았다. 이들에 의해 추진된 구국교육운동은 유교이념에 바탕을 둔 봉건국가가 근대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조선 말의 종교정책은 기독교는 물론 일본 진종과 일련종에게도 포교를 인정하였으나 유독 불교에 대해서만은 1623년 제정된 '승려 도성출입 금지령'을 고수함으로써 배타정책으로 일관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어 불교계는 위축되었지만 각 교단과 사찰에 강원 선원 율원 염불원 등을 설립하여 승려 양성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사찰은 종합교육기관인 총림을 설치해 전통교육기관으로 키워나갔던 불교계의 교육 목적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도자 양성에 있다고 밝혔다.

개화기 불교지도자들에게 근대의식을 심어주는 선구자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 정교수는 개화승으로 널리 알려진 이동인(李東仁)을 들고 있다. 이동인이 강학 활동을 펼친 봉원사 강원은 스님은 물론 개화인사들에게도 근대의식과 학문을 가르치는 개화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봉원사 강원의 근대의식 수용은 이보담 홍월초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수용됐던 것이다.

불교계의 교육기관으로는 중앙에 명진학교를 비롯해 7개가 있었고 전국 각 지방에 명화학교 등 20여개가 있었다. 이렇듯 불교교육운동은 '사립학교령'으로 많은 사립학교가 폐교되던 가운데에도 10개의 보통학교와 10개의 지방학림 인가를 받아내는 등 보통학교와 중학교 중앙학림으로 연계되는 3단계 교육제도를 확립하는 성과와 함께 구국적인 민족교육 발전의 밑거름을 쌓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정영희 교수는 불교 외에도 유교 기독교 천도교의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추진된 기독교계의 교육운동은 7백여개의 학교를 설립해 운영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정교수는 기독교계의 근대교육운동이 종교적으로 편향된 인생관, 세계관을 주입시킨 폐해가 있지만 배일사상을 고취시켜 한국의 근대교육 발전과 민족의식 배양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한국불교의 잠재력 미래사회속 역할'

'전통과 현대' 봄호 특집 다뤄

한국불교의 잠재력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계간 〈전통과 현대〉 봄호는 '한국불교의 잠재력과 미래'를 특집으로 불교 복지, 불교연구론, 비구니 승단 고찰 등을 담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의 불교'를 고찰한 신규탁 교수(연세대)는 1970년대 동아시아론이 지식을 매개로 한 '지(知)의 제국주의'라는 지적을 하면서 동아시아의 불교 연구도 이런 지의 제국주의의 연장선에서 이뤄져 왔음을 반성하고 21세기 불교연구의 좌표를 지의 제국주의의 극복에서 찾고 있다.

불교와 사회현실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짓고 있는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는 '불교적 복지사회모형의 재구성과 현대적 함의'에서 '사적(私的) 이해의 떠남'을 통한 '사회와의 만남'이라는 불교적 사회철학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시대와 불교자료의 모색'이란 논문에서 심재룡 교수(서울대)는 '정보'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함께 고려대장경 전산화 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했다.

조계종 종단 소속 스님 가운데 비구니스님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하지만 한국불교의 분위기는 여성을 성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국불교의 분위기를 역사 속에서 찾으려는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의 '정업원(正業院)과 사승방(四僧房)의 역사로 본 한국의 비구니'는 비구니 승가공동체의 바른 이해를 돕고 있다. 불교의 공동체 윤리를 21세기 윤리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는 안옥선씨(전남대 강사)는 '21세기를 위한 윤리의 모색:불교윤리의 관점에서'를 통해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자비심을 통한 공동체적 삶의 모형을 탐욕과 이기심으로 썩어가는 물질만능 시대의 양약으로 제시했다.

'불교와 동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 하에 허우성 교수(경희대), 신규탁 교수, 오진탁 교수(한림대) 등이 김석근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가진 좌담에서는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불교사에서의 불교와 정치권력과의 관계, 21세기 불교의 역할 등을 다루고 있다.

강지연 기자

'조당집'의 선승행적 따라 조영록 교수 中복건지역 답사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선가 고승 2백57명의 행적과 어록을 담은 〈조당집(祖堂集)〉의 산실인 청원산 초경사지 등 〈조당집〉의 선승 행적을 따라 중국 복건지역 한국불교유적을 답사한 결과가 슬라이드 상영과 함께 발표됐다.

복건지역 답사는 당말오대(唐末五代) 설봉(雪峯) 계통의 선종과 이를 중심으로 활동한 우리나라 선승들의 구법활동을 조사한 것이다.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회의 제1회 발표회에서 조영록 교수(동국대 사학과)는 지난해 12월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장주의 보복선원(保福禪院), 나한원(羅漢院), 하문(廈門)의 남보타사(南普陀寺), 천주(泉州)의 개원사(開元寺), 승천사(承天寺), 진강(晋江) 주위에 있는 복청사(福淸寺), 복주(福州) 서선사(西禪寺), 고산(鼓山) 용천사(湧泉寺) 등 답사한 사찰들을 소개했다.

강지연 기자

15세기 불교판화-석조미술 조명

정병모 교수-소재구씨 강좌 미술사 세미나서

"15세기의 판화는 주로 묘법연화경변상도, 부모은중경변상도, 지장보살본원경변상도 등이 많이 제작됐으나 성종대에 이르러 삼강행실도라는 유교판화가 제작됐다."

'태·성종대의 판화:15세기의 판화'에 대해 발표한 정병모 교수(경주대)는 제59차 강좌 미술사 학술발표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수는 외적으로 유교를 표방한 왕실이지만 왕족들은 불교를 신봉해 이러한 성향이 판화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불교미술사학회(회장 문명대)와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공동주최한 이번 발표회에서 '태·성종대의 석조미술'을 주제로 발표한 소재구 학예관(국립중앙박물관)은 불교적 유교적 성물이 병존하던 전환기적 과정으로 이시기의 석조미술을 진단했다. 당시 석조물의 축조는 왕실 및 양반 관료 층이 발원자가 되어 불사 추진 외에도 능침 등에 석탑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부다파아 사이버 기행

일본불교 사이트

최근 일본의 정치·종교계 지도자들이 잇달아 해인사와 백양사를 방문해 화제를 모았다. 해인사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유산 '팔만대장경'이 봉안된 곳이며, 백양사는 한국불교의 선지식 서옹스님이 주석하는 고찰이다. 불자네티즌이라면 일본의 두 지도자들이 한국의 고찰 두 곳을 찾아온 것을 계기로 일본불교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사이트를 찾아봄직하다.

불교문헌 전산화 공개

▲화원대학선학연구소

인터넷에 가장 많은 불교 텍스트를 올려 놓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이트가 바로 '화원대학 전자달마' 사이트다.

일본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학교와 연구소에서 불교 문헌의 전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개된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비해 이 연구소에서는 활발하게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 홍보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이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선종관계 텍스트(JIS와 BIG5) △불전 전산화 현황 △선종 관계 예술 △선종기관 관련 정보 △전산화에 관련한 글 △선지식베이스(Zen Knowledge Base) 등이다.

이국적인 종파 '엿보기'

▲정토진종 동본원사

토모넷(TOMO-NET)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본원사(東本願寺)는 교토에 위치한 명찰로 일본 정토진종(염불종) 대곡파(大谷派)의 본산이다. 이 사이트는 진종의 공식 사이트로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진종의 가르침' '연여스님 500 주기 기념사업' '불교의식과 출판물 소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일본어를 읽을 수 있는 불자네티즌은 재미있게 구성된 내용을 따라, 이국적인 종파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방문자 가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동본원사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함께 열람할 수 있다.

이중에는 종조 친난스님의 목상을 모신 건축물로 세계 최대의 목조 기념물인 어영당(御影堂)과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인 아미타당(阿彌陀堂)을 비롯해 섭성원(涉成園·경원), 대곡조묘(大谷祖墓·종조의 묘소) 등을 관광할 수 있다.

청년불자 활동 자세히

▲조동종 전국청년회

백양사를 방문한 이따하시스님이 종정으로 있는 長愍 조동종은 임제종과 더불어 일본 선종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 일본의 조동종은 도원선사를 개산조로 하는 영평사(永平寺)와 형산선사를 개산조로 하는 총지사(總持寺)의 양대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이트는 젊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답게 주요 활동상황과 소식 등의 정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일본 청년불자들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행 환경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조동종 이외에도 임제종이나 다른 종파의 활동 상황을 연이어 찾아 볼 수도 있다.

우리와 같은 선종의 전통인 만큼, 참선하는 방법이나, 참선모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화원대학국제선학연구소 http://www.iijnet.or.jp/iriz/irizhtml/
정토진종 동본원사 http://www.tomo-net.or.jp
조동종 전국청년회 http://www.jtvan.co.jp/~soto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견하기 어려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계신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입안내

○ 합본 제4집 :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48호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40㎝×55㎝』
○ 구입 가격 :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99.1월에 신청하시는 현대불교신문 구독자에게는 발송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및 신청 :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담당자 이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99학년도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대원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38개기 졸업·현재 39기생 모집중)

1.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불교학과 통신과정
2. 지원자격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원하는 신심있는 불자 ○대중불교 운동의 지도자 자질을 갖춘 불자
3. 강의시간 주 4일 수업 (19:00~20:00) 화, 수, 목, 금
4. 교육과목 20개 과목 년간 총 28주 교육

학 년		교 육 과 목		
1 학 년	1 학 기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2 학 기	◇대승불교의 이해	◇중국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의 이해
2 학 년	1 학 기	◇불교문화의 이해	◇비교종교	◇부파불교
		◇초기대승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2 학 기	◇기신론 사상	◇천태 사상	◇화엄 사상
		◇선사상	◇정토 사상	◇불교교리 발달사

※ 매주 의식교육 실시 ※범패의식 특강 (동·하계 스쿨링때는 범패의식 교육)
※ 교수진 :
권기종교수, 조용길박사, 권탄준박사, 장희옥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김사업박사, 김종명박사, 법현스님 (동국대교수 9명), 강건기박사(전북대교수)

5. 원서교부 3월·8월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6. 제출서류 ◇입학원서(반명함판사진 3매)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7.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8. 특전사항 ◇소정의 법사고시를 통하여 법사호 수여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부여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마음 올바로 집중된 상태가 '禪'

경전 속의 禪 사상 12

청정도론〈하〉

글쓴이



강명희
〈대림대 강사〉

선정 닦는 수행방법 40업처 제시
지관쌍수 통해 삼독심 소멸 강조

〈청정도론〉에서 선정(禪定)에 관한 설명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3장에서 13장에 해당하며 각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장-업처(業處)의 파지(把持)의 해석, 제4장-지변(地遍)의 해석, 제5장-여변(餘遍)의 해석, 제6장-부정업처(不淨業處)의 해석 제7장-6수념(六隨念)의 해석, 제8장-수념업처(隨念業處)의 해석, 제9장-범주(梵住)의 해석, 제10장-무색(無色)의 해석, 제11장-삼매(三昧)의 해석, 제12장-신변(神變)의 해석, 제13장-신통력(神通力)의 해석.

우선 제3장의 수행방법(業處)에 대한 해석에서는 선정에 대하여 8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

특히 삼매에 대해서는 선한 심일경성(心一境性)이 삼매(三昧)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삼매는 등지(等持)의 의미에 의해서 성립된다고 하고 등지에 대해서는 어떤 법의 위력에 대해서 마음과 마음의 작용(心所)이 평등하면서도 올바르고 산란하지 않게 머무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요컨대 등지라고 표현되는 삼매라는 선정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잘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청정도론〉에서는 선정을 닦는 방법으로 40업처를 제시하고 있다. 선정수행의 방법이 6가지 인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40업처를 배태하고 있다.

탐욕이 많은 사람(貪行)의 수행방법으로 10부정(十不淨:열 가지 깨끗하지 못한 상을 생하는 것)과 신지념(身至念:신체의 부분 부분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을 권한다. 화를 잘 내는 사람(嗔行)의 수행방법으로 4범주(四梵住)·청변(靑遍)·황변(黃遍)·적변(赤遍)·백변(白遍)을 권한다. 어리석은 자(痴)의 수행방법으로 출입식념을 권하며 신앙심이 없는 사람의 수행방법으로 6수념(佛·法·我·僧·捨天隨念)을 권한다. 지혜가 열등한 사람(學行)의 수행방법으로 사수념(死隨念)·적지수념(寂止隨念)·계차별(界差別)·식염상(食厭想)을 권하며 사변적인 사람(得行)의 수행방법으로 출입식념을 권한다.

이러한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다 언급할 수 없으므로 〈청정도론〉에 나타나는 6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지변(地遍)의 수행방법을 살펴본다. 지변이란 땅(土)을 관하여 정신통일을 얻는 선정법이다. 먼저 이 수행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땅을 색경으로서 구체적인 대상으로 삼아서 오문작용(五門作用:안·이·비·설·신의 인식기관의 작용)에 의해 파악한다. 그 대상을 오문작용에 의해 어느 정도 인식하여 완전히 파악하면 이렇게 파악된 대상은 취상(取相)이라고 불려진다. 이 취상은 이미 외부에 있는 색경은 없고 법경, 즉 의문(意門)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오문의 대상인 색경과 같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 있다.

이와같이 〈청정도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행방법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청정도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정에는 안지정(安止定)·근행정(近行定)·찰나정(刹那定)의 3가지가 있다. 안지정과 근행정은 지(止)를 수행하는 사람이 특별히 닦는 선정이며 찰나정은 관법을 행하는 자가 의지하는 선정이다. 이 때 안지정은 4색계정(四色界定)과 4무색계정(四無色界定)을 말하고, 근행정은 6수념등의 10업처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선정과 안지정에 도달하기 직전의 심일경성(心一境性)을 말한다. 또한 찰나정은 찰나적으로만 존재하는 선정이다.

이 세가지 선정에 의해서 마음은 항상 평등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탐심과 진심과 수면과 들뜨는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과 삼보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없앨 수 있다. 〈청정도론〉에서 밝히고 있는 선정의 상태는 매우 단계적이면서 구체적이다. 또한 지(止)와 관(觀)의 행법은 표면적으로 대립적인 것 같지만 실제 수행상에서는 각각 수행하는 사람의 성격에 따른 수행방법(業處)의 차이이므로 내면적으로는 지수행에 관수행이 도입되고 관수행에 지수행이 도입되어 지관쌍수의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11

반야바라밀다 문헌 ①

우리의 공포와 근심, 걱정, 분노의 폭발 등은 완전한 소유에 대한 갈망이 실패했음을 암시한다. 우리의 완전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것을 '우리 자신'이 아닌 것이라고 부정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극도의 고양된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담대한 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푸르동은 그의 시 〈이방인〉에서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나는 종종 나에게 묻곤 한다. 너는 어떤 종인가?
너의 마음을 연속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을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너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을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
그리고 내가 짜낸 고뇌는 나 자신을 놀라게 하고, 나에게 항상 그의 조국과 이름을 숨기는 한 고귀한 이방인이 내 안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나는 듣는다

얼마동안 믿음 정진 마음챙김 선정 지혜 다섯 가지의 덕을 수행하여 발전시키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들어가는 입구 즉, 정신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접할 수 있다. 다섯 가지의 덕은 우리 주변의 조건지어진 것들에 대해서 편견 없는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여는 그 자체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물질적, 심적 변화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마음을 끄달리지 않으며, 그 속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그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것에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상징이나 사건이나 어떤 대상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장애처럼 보인다. 다시말해 다양한 조건들로 이루어진 대상을 대하면 단순히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부처님이 우리

지혜의 완성 길 안내

타인 존엄성 침해않는 가르침 제시

에게 남긴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길은 계속 이어진다. 길이 나타나면 전에 타파하거나 분쇄하지 못했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덩어리는 분쇄되고 타파된다."

바라밀(pāramitā)은 다섯 가지 덕이 철학화된 불교의 교리이다. 반야바라밀다 문헌에서 부처님 다음으로 권위있는 수보리(Subhuti)는 '평화 속에 머무는 자들' 중에서 첫째라고 특별히 불리는 데, 그들은 싸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며, 평화 속에 있는 그들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반야바라밀다 문헌은 서기전 100년부터 서기 600년까지의 사이에 만들어진 38권의 경전을 말하는데, 이중 4세기경에 만들어진 〈금강경(Diamond Sutra)〉이 대표적이다. 〈금강경〉은 지혜의 완성을 뜻한다. 산스크리트어로 바즈라케디카 프라즈냐파라미타(Vajracchedikā Prajñāpāramitā), 이다.

이들 문헌들의 공통점은 자아의 완전한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지혜의 통찰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그 가르침은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함으로써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섯 가지 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자기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참아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숫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신조에 집착하는 열렬한 지지자는 반대되는 신조를 '하찮은 것'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싸우는 개들과 마찬가지이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로우면, 지식의 창고에 근거를 두지 않으며, 감각이 있는 사물들이 의식 있는 사고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진실을 식별할 수 있겠는가.'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학산책

박테리아

지구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인간인가? 아니면 곤충을 포함한 동물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먹이 사슬의 아래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식물인가?

위테커(R. H. Whittaker)의 생물 분류 5개 계이론 (Five Kingdom Theory)에 의하면 생물은 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핵이 있는 진핵생물은 아메바, 짚신벌레가 속해 있는 원생생물계, 버섯, 곰팡이가 속해 있는 균계, 그리고 동물계와 식물계로 나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핵이 없는 원핵생물에는 박테리아가 속해 있는데 독자적인 왕국을 이룬다.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의 개체수로 기준을 삼으면 지구의 주인은 단연 원핵세포가 될 것이다. 개체 하나 하나에 투표권이 부여된다면 단연 원핵세포의 세상이 될 것이다.

원핵세포는 다양한 곳에 살고 있다. 고지대에서 바다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사람의 창자에도 산다. 우리 60억 인구의 창자에 3.9×10^{25} 가 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창자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이롭다. 위스콘신 대학 에 의 하 면 (http://why-files.news.wisc.edu/shorties/count_bact.html) 말린 한 개체는 1조분의 1그램정도 이지만 원핵세포의 전체를 합치면 지구의 모든 식물의 무게와 동일하다. 즉, 대략 10억톤이 된다. 원핵세포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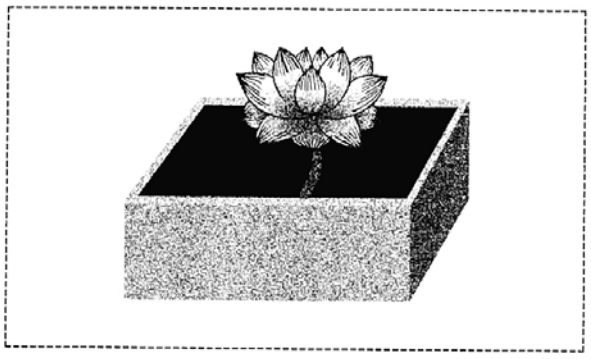
조지아 대학의 미생물학자인 윌리암 화이트만에 의하면 대략 5×10^{30} 이라고 한다. 이 숫자는 뭐로 보나 큰 수이다. 등전 쌓기를 하면 이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가는데에 빛의 속도로 가도 1조 광년이 걸린다. 어떻게해서 이런 엄청난 숫자가 나왔을까? 몰론 죽을 때까지 세도 이 같은 엄청난 숫자는 얻지 못할 것이다.

박테리아는 개개로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위트만과 동료들은 표본 추출 기술을 이용했다. 원핵세포가 사는 세상을 숲, 사막, 담수, 그리고 낮고 깊은 바닷물이라는 대표적인 곳으로 나눴다. 그런다음 과학문헌을 뒤져 각 서식처에 사는 박테리아의 밀도를 찾았다. 그러고 나서는 단순한 곱하기를 했다. 밀리미터 단위의 서식처 크기에다 밀리미터당 서식하고 있는 원핵세포의 숫자를 곱하면 그 서식지에 사는 박테리아의 전체 숫자가 나온다.

1g당 4천종…생물계 절반차지
산소 생산 · 온난화 · 부패에 관여
자연과 인간 상호 공생관계 입증

이 곱셈에 의하면 가로 세로 8미터의 땅 표면에는 26×10^{25} 개가 살고 수중 서식처에는 12×10^{28} 개가 산다. 그러나 실제 많은 수는 지하에 산다. 표면으로부터 8미터 아래에는 25에서 250×10^{28} 개의 원형세포가 산다. 그리고 바다 밑바닥 아래에는 355×10^{28} 개가 산다.

우리 생물권의 반 정도가 나무나 조개, 돌고래가 아닌 원형세포에 의해 덮혀있다니! 심지어 회의적인 사람들에게도 이 연구는 지구에서의 삶을 논할 때 지금까지 무시되었던 원형세포에게 온당한 대우를 해줘야 함을 납득시키고 있다. 실제로 원형세포는 숫자 때문이 아니라 지구온난화, 산소, 질소 생산, 오염물질의 부패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중요한 생물체다.



이 데이타는 또한 원형세포의 놀라운 다양성을 설명해 준다. 이 다양성이 열음에서 끓는 물에 이르는, 지구의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고지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서식지에서 잘 자라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즉, 박테리아는 각 서식처가 제공하는 특수한 환경에 직면하여 자신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그 환경에 잘 적응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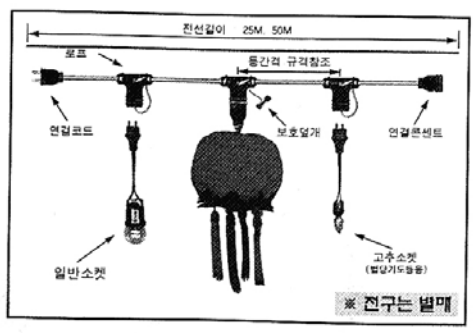
실제 원형세포적인 다양성은 측정할 수 없다. 스칸디나비아의 연구가들은 땅 1그램에는 적어도 4,000 종의 박테리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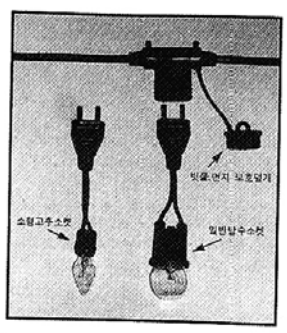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을 이루는 다른 생명체들과 서로 살리고 살리는 생생(生生)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자연과 같이 자연스럽게 살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슬기는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내세울 내가 없기에 다른 생명체에게도 마음을 줄 수 있고 그들의 존재와 역할에 감사할 수 있다. 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고정된 모습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더 넓은 자연의 품에서 자유로움을 즐길 수 있으리라.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불자기업에서 제작되는
봉축연등,사찰 · 법당기도용 T형 플러그식 안전 배선
(봉축연등 · 사찰 · 포교원 법당 기도등, 각종 연등전선 제조 · 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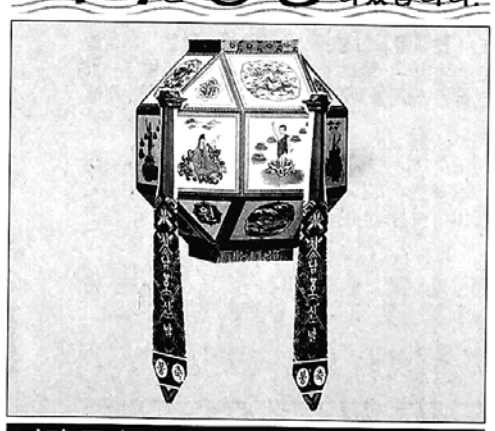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 주문제작
⊙ 모 델 : DW-101(2mm) DW-202(2mm)
DW-305(3.5mm)
※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특징 및 효과
⊙ 소켓이 분리되기 때문에 설치, 수거, 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소켓이 파손되어도 교환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 일반 전구소켓은 물론 소형 고추소켓도 생산하므로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원기업 代表 吳大權(光明) 合掌

본사영업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FAX : (032)571-9470
A/S : (032)583-4023
서울영업소 : 서울시 중구 수표동 56-6 (대한지공빌딩 222호)
TEL : (02)2276-0235
H.P : 019-262-9830 · 017-259-4471
부산 · 김해대리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 302-7
TEL : (0525)322-3929 휴대폰 : 011-833-8018
영 · 호 남 지 사
경남 진주시 칠암동 496-5(조일B/D 3층)
TEL : (0591)757-6411, 757-3331
FAX :(0591)757-3626 휴대폰 : 011-869-4854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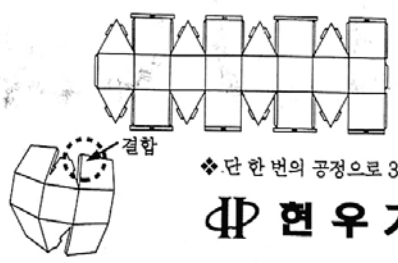
❖ 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02)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성보는 사찰에 있어야 가치있다"

도난성보 90% 제자리 못찾아 '복장터질 노릇'

도난성보 압수한후 소재 명확해야 귀속

대검찰청 압수물 창고. 20일 이후 이 창고에는 성보박물관을 연상케 할 정도로 많은 문화재급 유물들이 들어찼다. 바라보기만 해도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불화와 옛 불자들의 손때가 묻은 경전류들이 제자리를 떠나 창고에 보관된 모습이 안스럽기만 했다. 20일 서울지검 형사 5부(담당검사 최순용) '문화재 전담반'이 국보·보물급 문화재만을 도굴해 밀매해 온 손수선(64) 씨등 문화재 전문털이범 9명을 적발해 압수한 200여점의 문화재들 가운데 성보가 33점(도표 참조)이나 포함된 것.

손씨등이 97년 3월 경주기림사 석가모니불상(보물958호)의 어깨부분을 뜯어내고 훔쳐 갔던 금니천룡탱화와 묘법연화경등 10여종의 유물들, 선암사에서 도난당한 53불회도 일부(2폭), 소재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4괄의 복장물들과 탱화, 경전류들.

불자들이 고운 금분으로 그려진 천룡탱화나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전류들을 만나야 할 곳은 사찰이다. 그러나 이들 성보들은 문화재 털이범들에 의해 우리곁을 떠났었다. 검찰의 수사로 다시 세상에 그 찬연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자칫 사찰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불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기림사나 선암사에서 도난당한 성보들은 원래 소재지가 파악되고 범인들의 자백이 있을 경우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보들이 사찰로 돌아가는 길은 멀기만 하기 때문.

'잃는 것은 많아도 찾는 것은 없는 것'이 성보문화재다. 절도범을 잡기도 힘들지만 잡은 후 도난 문화재를 회수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미 밀매되었거나 해외로 밀반출 되었을 경우에는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설사 도난 성보들이 수사기관에 압수되더라도 다시 사찰로 회수해 오기는 쉽지 않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사찰에서 성보 도난 자체를 모르거나 설사 발견해도 종헌·종법에 따른 행정처벌이 두려워 '함구' 해버린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보·보물등 지정문화재 이외에 비지정 문화재는 도난을 당한 사찰 스스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국가에 귀속되거나 절도범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그야말로 '복장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압수된 성보문화재 역시 피해 사찰이 나서지 않는다면, 우여곡절 끝에 구속·기소한 범인들이 무혐의로 풀려날 뿐만 아니라 도난 문화재가 '범인'에게로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씨 일당이 "압수된 성보문화재 모두 10년 전 구입했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계종 총무원도 "도난 성보문화재중 90% 가량이 원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도난 당한 성보의 원래 소재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더라도 전통사찰이 아니면 그런 유물이 있을리 만무하고 전통사찰의 거의 대부분이 조계종에 소속돼 있다. 조계종의 재산이란 얘기다.

교계에서는 "성보문화재는 법 차원을 떠나서 불교계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장유물의 경우 문화재적 가치보다는 신앙의 대상 즉, 불교의 성물인 만큼 불교계에 귀속되고 성보박물관이나 등국대박물관 등에서 보존·전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단 내에서도 성보를 도난 당했을 경우 처벌을 앞세우기보다는 빠른 신고체제와 관계기관과의 협조등 환수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압수된 성보 대부분이 복장유물인 만큼, 지금까지 복장물이 털렸던 사례를 토대로 성보문화재위원들이 역추적해 피해 사찰을 밝혀내고, 범종단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보 33점을 되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개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해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중론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압수한 성보문화재

기림사	은중경 1권 묘법연화경 6권 능엄경 1권 금강경 1권 불경 1권 단경하 1권 대방광불화엄경(권35) 1책 대반야바라밀다경(권175) 1책 복장유물 1괄
선암사	선암사 53불회도(일부) 2폭
미확인	복장유물 4괄 신중도 1점 천수천안관음보살도 1점 대반야바라밀다경(권35) 1축 대방광불화엄경 7권 묘법연화경(권1~7) 2권 현수제승법수(권1~11) 1권

기림사 복장유물등 돌아온 성보 33점



◇문화재 전문털이범들이 부처님 복장에서 훔친 복장유물. 소재 사찰이 확인되지 않으나 성보가 있던 곳은 전통사찰이므로 당연히 조계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불자들은 말한다.



◇기림사 복장유물중 금니천룡탱화의 부분. 훼손이 심하다.



◇압수한 복장유물중에는 묘법연화경등 경전과 두루말이 경전도 다수 포함됐다.



◇19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수관음보살도. 소재했던 사찰이 확인되지 않는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도난 예방지침

1. 문화재 절취, 도굴 사건이 주로 발생하는 00:00~04:00 사이 순찰시간을 수시로 변경하여 순찰.
2. 취약지역내에 위치한 석불상등은 연고자들로 하여금 관리토록 행정지도.
3. 법당 및 문화재보관시설에 대한 시건장치 및 보관시설장치를 점검 보강.
4. 경보장치 이상유무 확인 및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
5. 사찰 거주인 대상으로 사찰문화재 보호감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감시반 운영, 사찰 내방객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
6. 사찰소장 주요 문화재는 정밀사진과 인화필름을 비치하고 그 규격, 양식, 재원도 기록·보존.
7.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은 인상착의, 차량번호 등을 확인·기록.
8. 사고 발생시에는 경찰서등 수사기관에서 현장검증할 때까지 도난현장을 그대로 보존.
9. 취약지대에 소재한 문화재 등에 인근주민, 문화재 명예관리인등 감시체제를 구축, 관할파출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선암사에서 도난당했던 53희불도중 7불탱화의 일부분. 1702년작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문화재담당 최순용 검사 "사찰방범 강화 성보도난 예방"

"713호실에서 도굴범들과의 '입씨름'으로 6개월 남짓 보냈지만, 불자로서 당연히 부처님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도굴의 '선수급 털이범' 손수석(67) 씨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서 성보문화재 33점등 시가 1백억원대 문화재 200여점을 되찾은 최순용(37) 검사.

서울지검 713호실은 최검사의 직무실이자, 전국 시·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재 전문 검사들의 '사령부'다. 바로 이곳에서 최검사를 중심 축으로, 검·경찰 및 문화재관리국의 사법단속반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 전담반'이 수개월동안 손씨 등을 조사·추적해 왔다. 도난된 성보문화재의 연평균 회수률은 2~3점에 불과했다.

최검사는 "문화재 전문기들과 공조수사를 펴며, 문화재 사범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추적하는 것은 문화재를 지키는 차선책"이라며 "사찰에서 방범 기능을 강화해 문화재 도난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최검사는 "복장유물의 경우 피해자를 찾기 어렵겠지만, '천수관음보살상'등 탱화 2점을 소장했던 사찰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두 성인 길에서 태어나심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30

탄생



◇해인사 대적광전 팔상탱중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부분). 1892년.

평생을 길에서 보내며 정법을 펴 온 부처님과 예수님의 탄생에는 공통점이 있다. 두분 다 태어남부터 길에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카필라성의 축제가 끝나는 날, 흰 빛깔의 잘 생긴 코끼리 하나가 오른쪽 갈비를 헤치고 태에 들어가는 꿈을 꾼 마야왕비는 태기가 있게 된다. 열달 후 왕비는 당시 풍속에 따라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고자 길을 떠난다. 아름다운 꽃들과 온갖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룸비니동산에서 발을 멈춘 왕비는 꽃이 활짝 핀 무우수 가지를 잡으려고 팔을 뻗어올리자 가지가 스스로 내려와 왕비의 손에 닿았으며 그 꽃가지를 잡자 산기가 와 왕비는 아기를 낳았다. 이 아기가 나중에 부처님이 되는 싣달타 태자다. 왼쪽 그림은 마야부인이 룸비니 등산에서 무우수 꽃가지를 잡고 옆구리로 싣달타 태자를 낳는 장면을 그린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이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러 고향에 가는 도중 마리아가 산기를 느껴 묵을 곳을 찾으나 방이 없어 할 수 없이 말구유에서 아기를 낳는다. 오른쪽 그림은 소와 말이 있는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향해 두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보티첼리作 '신비로운 탄생'(부분). 1500년. 런던 국립박물관 소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⑬

誌公十二時歌云 平朝寅
지공십이시가운 평조인
狂機內隱道人身 坐臥不知元是道
광기내은도인신 좌와부지원시도
只慮忙忙受苦辛 此是內外全
지마망망수고신 차시내외전
用息妄功夫也
용식망공부야

또 지공(誌公)의 〈십이시가〉에서는 "새벽 인시(寅時)여, 미치광이의 기틀 안에 도인의 몸이 숨었구나. 앉거나 눕거나 하는 것이 원래 도(道)인줄을 알지 못하고, 다만 허덕이며 고생만 하네"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안과 밖의 전부가 진심의 작용임을 알고 망심을 없애는 공부이다.

九卽體卽用 謂做功夫時 雖冥合眞體
구즉체즉용 위주공부시 수명합진체
一味空寂 而於中 內隱靈明
일미공적 이어중 내은영명
乃體卽用也 故永嘉云 惺惺寂寂是
내체즉용야 고영가운 성성적적시
惺惺妄想非 寂寂惺惺是 寂寂無記非
성성망상비 적적성성시 적적무기비

亦不辨東西南北 將四方八面
역불변동서남북 장사방팔면
只作一箇大解脫門 圓陀陀地體用不分
지작일개대해탈문 원타타지체용불분
無分毫滲淚 通身打成一片
무분호삼루 통신타성일편
其妄何處得起 古人云 通身無縫罅
기망하처득기 고인운 통신무봉호
上下忘圓圖 是乃透出體用滅妄功夫也
상하특단란 시내투출체용멸망공부야

열째는 본체와 작용을 초월하는 것이다. 공부할 때, 안과 밖을 구분하지 말고, 또한 동서남북도 가리지 않고 사방 팔면을 다만 하나의 해탈문으로 만들어서 둥근 구슬처럼 본체와 작용을 나누지 않는다. 그리하여 털끝만큼도 빈틈이 없이 온몸을 한덩어리로 두드려 만드는 것이니 망념이 어디서 일어나겠는가. 옛사람의 말에 "온몸이 궤맨 자리가 없이 위아래가 온통 둥글구나"하였으니 이것이 곧 본체와 작용을 초월하여 망심을 없애는 공부이다.

已上十種做功夫法 不須全用
이상십종주공부법 불수전용

"공부할때 안과 밖을 구분하지 말고 빈틈없이 온몸 한덩어리로 만들라"

旣寂寂中 不用無記 惺惺中
기적적중 불용무기 성성중
不用亂想 所有妄心 如何得生 此是
불용난상 소유망심 여하득생 차시
卽體卽用滅妄功夫也
즉체즉용멸망공부야

아홉째는 본체가 곧 작용인 것이다. 공부할 때, 비록 진심의 본체에 고요히 합해져서 하나같이 비어 고요하지만 그 가운데에 안으로 신령한 밝음이 숨어 있으니 그 본체가 바로 작용이다. 그러므로 영가 스님은"또렷하면서도 고요한 것은 옳으나, 또렷하지만 당상이라면 잘못이고, 고요하면서 또렷하면 옳지만 고요하면서 멍청하면 잘못이다"하였다. 그렇다면 고요한 가운데에서 멍청함을 용납하지 않고, 또렷한 가운데서 어지러운 생각을 용납하지 않으면 망심이 어떻게 생겨나겠는가. 이것이 본체가 곧 작용임을 알고 망심을 없애는 공부이다.

但得一門 功夫成就 其妄自滅
단득일문 공부성취 기망자멸
眞心卽現 隨根宿習
진심즉현 수근숙습
曾於何法 有緣卽便習
증어하법 유연즉편습
之 此之功夫 乃無功之功
지 차지공부 내무공지공
非有心功力也 此箇休歇妄心法門
비유심공력야 차개휴헐망심법문
最緊要故 偏多說 無文繁也
최긴요고 편다설 무문번야

十透出體用 謂做功夫時 不分內外
십투출체용 위주공부시 불분내외

이상의 열가지 공부법은 다 쓸 필요는 없고 다만 한가지 문만 택하여 공부를 성취하면 망심은 절로 사라지고 진심이 곧 나타날 것이다. 자신의 근기에 따라서 전생의 습성이 어느 법과 인연이 있는지 그것을 따라 익히도록 하라. 이 공부는 공부함이 없는 공부이므로 공력을 들여 마음을 써서는 안된다. 이는 마음을 쉬어버리는 법문이 가장 긴요하기 때문에 치우치게 말을 많이 했으나 글의 뜻에는 번거로움이 없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아무 조건없는 보시

혜산스님 〈내소사 회주〉



약력
- 1933년 전북 정주생
- 58년 서울대 농대졸
- 63년 내소사에서 해안스님 은사로 득도
- 73년 범어사에서 구족계 수계
- 74년 해인사 해인총림 선원장
- 75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 종정 수석사서
- 76년 조계사 주지
- 77년 한일불교교류협 이사, 전등선림 선원장
- 79년 동명불원 주지
- 83~93년 내소사주지

지금은 부처님 출가절에서 열반절로 이어지는 참회정진 기간입니다. 새해에 맞이하는 첫 불교명절이라 불자들이 새롭게 각오를 하게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특히 출가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큰 일이지만, 그 뜻이 어디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몸뚱이 출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출가는 마음의 출가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출가는 법다이 인연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학창시절, 학습이나 친구들 보다도 누가 존경할만한 선생님이 신가 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의 수업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하나하나 표본으로 삼으려고 그 선생님 가까이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학교가 휴교를 했을 때도 방구석에서 '인생의 진실이란 무엇인가'하는 등 생각이 무척 많았습니다. 벽에 참진(眞)자를 써 붙이고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가 몰두했던 것입니다. 대학졸업후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직장내에서 "양심의 벗"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나의 '인생의 진실'에 대한 답을 찾는 행로는 계속됐습니다.

그후 원고쓸일이 있어서 조용한 곳을 찾던중 친구의 소개로 불갑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교를 접하게 되었고 친구가 선물한 〈우리말 팔만대장경〉〈불교사전〉이 처음으로 읽은 불서가 된 것입니다. 당시 불갑사 주지스님은 훌륭한 강사이셔서 나의 궁금증에 많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원고 쓰는 일보다도 의문을 푸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꾸 계속되는 질문에 스님은 "도를 깨달은 분, 즉 선지식이라야 답을 할 수 있으니, 변산에 계시는 해안스님께 물으시오"하시며, 해안스님이 쓰신 〈금강경강의〉책을 내주셨습니다. 나는 그 책의 서문을 읽고 반했습니다.

"가장 잘 살고 싶거든 금강경을 읽어라."

이 대목에서는 실로 황홀해졌습니다. 그 즉시 노트를 사서 밤을 새며 그 책 한권을 다 베꼈습니다.

절에서 나와 부산에서 생활하면서 해안스님께 편지를 냈습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질문을 올렸더니 친절하게 답신을 내주셨습니다. 또 다시 의문을 여쭙고 스님은 그때마다 자세히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서신왕래를 3년간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은연중에 이루어진 화두참구였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의문이 시심마(是心麽)로 귀착됐습니다. 시심마를 찾느라 스님께 더 편지를 드릴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여 지나 스님이 주석해 계시는 내소사 밑 지장암에서 하는 특별정진법회에 동참했습니다. 3주일의 과정을 다 마치고 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동안 병을 앓느라고 스님께 편지를 올리지 못했다고 여쭙자, 스님은 "누구나 병을 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너는 병을 앓고 있음을 알았으니 이제 됐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자리에서 나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스님이 살아 계실 때는 절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수행자로 다른 스님이 어떻게 가르치나 궁금하고 호기심도 생겨 돌아 다녀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훌륭한 스님이라면 그 스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철에도 만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밖의 소식은 다니러오는 수좌들을 통해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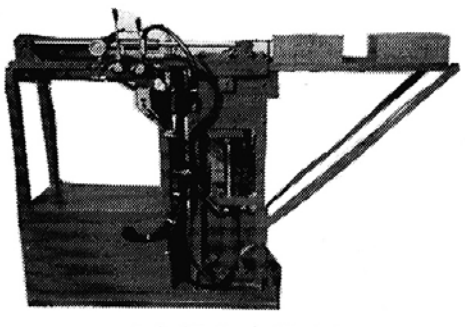
"보시는 다른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구제하며 자신의 탐욕을 제거합니다"

그러다가 10년째 되는 해 어산에 능한 원명스님과 첫 만행 길에 올랐습니다. 걸망들고 탁발해 보리암과 오대산 보궁에서 기도하고 정암사로 가니, 은사스님께서 보내신 전보가 도착돼 있었습니다. "빨리 절로 오라"는 말씀에 즉시 돌아가니 스님께서는 "서울 장경호거사가 대중포교도량으로 대원정사를 남산에다 세우고 지도해달라고 하니 내일 당장 같이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서울 생활이 종단 행정일까지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도 수좌라는 생각에서 떠나 있지 않았습니다. 조계사 주지를 하면서도 하루평균 4시간 밖에 잘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포교 교화 수행을 모두 해내야 하니 어쩔수 없는 노릇이었고, 마음을 들고 사니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요즘 단기출가니 특별기도정진이니 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가자들을 위한 단기 특별정진 수행은 은사이신 해안스님께서 이미 30여년전 원력을 세우셔서 널리 펴셨습니다. 지난67년 부처님의 등불을 전해받아 모든이에게 전한다는 취지로 '불교전등회'를 결성하셨고, 3주일을 단위로 특별정진법회를 여셨던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드러내놓고 "나같은 못난이도 선지식 밑에서 1주일을 공부해서 알게됐다. 내 체험이니 자신을 가지고 시작해라"하시며 직접 이끄셨던 것입니다.

보통 3주일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1주일은 재가자들이 산란하게 살다가 갑자기 정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문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하는 발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주일은 기도를 하게합니다. 마음을 한곳에 모아 모든 잡념을 제거하는 공부입니다. 일념으로 기도하는 순간은 다른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사에 대한

자동황토 흙벽돌기계 (유압식 다목적 믹서기 개발)



▲고유압 자동 황토흙벽돌 기계



▲유압식 다목적 믹서기

· 고압력 유압 압축으로 생산
· 1일 생산량 400~500장
· 작업이 용이함
· 규격별 생산 주문 가능

· 가정용 황토방
· 2~3평
· 모델하우스 공개

· 소규모 건설현장, 건축용 몬탈배합
· 화공약품배합 농 · 축 · 산용,식품용등
· 용량 200ℓ~1,500ℓ, 3,500ℓ제작
· 유압작동으로 고장이 없으며 레버작동으로 작업이 용이

▌황토 흙벽돌 자동화 시설 완비, 흙벽돌 생산 판매, 가정용 황토방 2~3평형 시공.
실내 황토방 시공 맥반석+황토흙 혼합시공, 게르마늄 세라믹스 찜질방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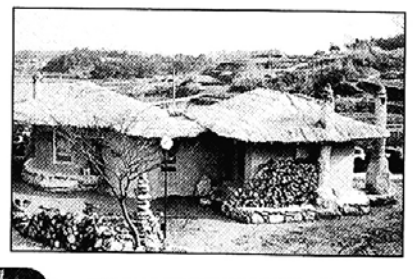
▣기계 사업부 : 산업용 압축기(음식물 압축기, 캔압축기), 산업용 믹서기
(유압식 믹서기, V형 믹서기, 레미콘형 믹서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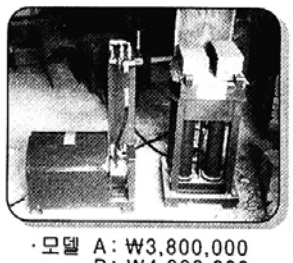
대농산업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254번지
전화번호: 0561)745-5888, 745-5856/ FAX : 745-5856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 지사 · 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큰스님 수행한담

욕망·번뇌 없애는 길”



◇76년 조계사 주지시절 50여개국 주한 외교관·대사 부인들을 초청해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했다. 사진 중앙이 혜산스님.

“지혜로움의 척도는 자비심
배움이 많아도 자비심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 부족해서 중생살림 어려움 연속
믿고 참회하고 실천하면 고통벗어나”

반성을 하게 됩니다. 농도가 깊어지면 울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본심을 드러내게 하고는 마지막 1주일을 화두참선하게 합니다.

당시 불교전등회를 거쳐 일대사 도리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불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은사스님은 출가재가를 막론하고 수행자들을 지도하신 훌륭한 조실이셨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다고 하지만, 특히 부처님 공부는 원래 본인이 하려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내도록 해주는 것은 조실의 역할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결국 본인이 할 일이지만 물을 마시도록 우물가로 데려가는 것이 조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수좌들이 방심하지 못하게 살피셨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수좌의 일거수 일투족을 예의 주시 관찰하시고 잠시도 마음을 멍하게 놓고 살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세수로 봐도 스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늘 죄송스럽고 참회하게 됩니다. 스님께서 주신 법명이 너무나 예민해서 지금은 스스로 우암(愚岩)이라 법호를 지었습니다.

당초 10년 계획을 세웠던 내소사 복원불사도 선방을 완성하고 사지작업을 마치면 모두 끝납니다. 설선당(說禪堂)이 원래 선방이어서 그자리에 다시 공부하기 좋은 선방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소사는 전통깊은 선도량입니다.

지장암에서 출가해 처음으로 백파스님 제사를 모시러 내소사에 갔다가 어찌나 절이 퇴락했던지 대단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인연이 주어지면 반드시 내소사를 복원해야지' 하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3년 내소사 주지를 맡게 됐고 즉시 10년불사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기간은 지연됐지만, 마무리를 하고 있고 출가 재가자들이 공부하는 선방으로 자리잡도록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불자들은 확실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100년살이 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무한한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일선상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찰나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을 권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동전이라도 보시하는 것부터 실천해보라는 것입니다. 불자들에게 가장 귀에 익은 말이면서도 실천에는 비교적 인색한 편인 것이 보시입니다.

불자들은 대개 보시라고 하면 절에 시주를 한다거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희사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더러는 보시를 함으로써 그에 상응한 대가가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기대 속에서 하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보시를 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를 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공덕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보시는 그 목적이 원대한 만큼 그 과보 역시 큰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보시는 연민 때문에 하는 보시, 남을 안락하게 해 주고자 하는 보시, 모든 성인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보시, 온갖 번뇌를 깨고자 하는 보시, 열반에 들어 생존을 끊고자 하는 보시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밑바탕에는 모두 이런 마음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심(佛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강도라도 어린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릴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살인강도의 마음속에도 불심, 즉 비심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즐겁게 해주고 남의 고통을 없애주는 마음이 합쳐져서 자비심이 됩니다.

자비심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자비심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비의 신념은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않은 똑같은 중생, 아니 똑같은 사람이라는 근본적인 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마음은 이기심에 가득찬 어리석은 사람에게서는 결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배움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비심이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일자무식이라도 자비심이 많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비록 무식할지라도 자비심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결코 유식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옛 성인들 가운데는 물질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아낌없이 보시함으로서 마음의 때를 말끔히 씻어내고 마침내 도를 이루신 분들이 많았고, 부처님께서도 과거세에 굶주린 짐승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몸을 버린 일도 있으십니다. 이처럼 거룩한 행을 본받아 이를 실천함으로써 자신도 도를 이루겠다는 각오로 하는 보시가 지혜로운 사람의 보시입니다.

보시는 인간을 괴롭게 하는 욕망 번뇌를 없애주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다 채울 수 없지만, 주는 마음으로는 곧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참다운 보시는 밖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구제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자신의 탐욕을 제거함으로써 부처님과 똑같은 본원성품을 깨닫게 하는 일석이조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진 탓에 직장에서 쫓겨 나고,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 많은 재산을 지혜로운 보시에 쓰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단지 재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재물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밥 한그릇을 보시한 부인에게 하나를 심어 열을 낳고, 열을 심어 백을, 백을 심어 천을, 천을 심어 만을 낳아 마침내 진리의 도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보시라도 그것이 씨앗이 되어 마침내 상상할 수 없는 큰 공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과 보시의 생활화로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그 씨앗이 인연이돼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 대담을 하고 있는 서옹방장(사진 왼쪽)과 이따하시 종정.

“선불교로 인류병폐 치유”

대담 서옹스님-이따하시 日조동종 종정

일본 선종 최대종파인 조동종의 이따하시 꼬우슈우(板橋興宗·73) 종정이 지난 24일 방한 3박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따하시 종정은 방한기간중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과 '21세기 선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대담을 가진데 이어 중앙승가대학 비구니 수행관과 불교방송·TV를 방문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예방 환담을 나눴다.

동북(東北)대학 종교학과를 졸업한 뒤 대성사 주지를 거쳐 지난해 종정에 오른 이따하시 스님은 현재 총지사 방장을 겸임하고 있기도 하다. 조동종은 현재 사원 1만5천여개에 승려 1만6천여명, 신도 6백94만명이 있으며, 구택대학 등 교육기관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서옹스님과의 주요 대담내용을 소개한다.

이따하시스님 : 일본불교는 한국불교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일본 조사스님들이 중국에서 법을 구해오기도 했으며, 이 점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두 나라의 불교는 다른 점이 많다. 그리고 두 나라 불교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던 점은 안타깝다. 이런 자리를 계기로 깨달음을 위한 순수한 교류가 이뤄졌으면 한다.

서옹스님 : 지난해 가을 경도에 있는 묘심사(임제종 본산)에 갔을 때 그곳 화원대학 부학장과 현대의 과학물질문명으로는 인간정신의 타락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다. 불교, 특히 선사상에 의지해 서로 협력하고 인류를 구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더니, 일본스님들은 아직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따하시스님 : 선은 종파에 구애될 이 없는 대자연의 질서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을 기본자세로 삼는다. 선사상이야말로 앞으로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벽을 초월해 선사상이 펼쳐지도록 해야한다. 서양종교나 철학은 인간만을 중심으로 삼고 모든 사물을 부차적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

서옹스님 : 자연파괴 등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불교는 모든 사물을 똑같이 본다. 선사상이 21세기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이것이다. 도덕이나 양심, 우주의 원리를 무시한 철학이나 가르침은 매우 위험하다.

이따하시스님 : 한국에는 스님이나 신부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에서는 주지가 되기 위해 단기간 수행을 할 뿐 다시 세속으로 돌아간다. 한국처럼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서 있는 나라가 풍부한 문명을 이룬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힘과 무기만으로 인류를 구할 수는 없다.

서옹스님 : 논리와 경제력으로도 인류를 구할 수는 없다.

이따하시스님 : 한국에는 여러 종교가 있다. 어떻게 공존하고 있으며,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서옹스님 : 종교의 기본정신은 박애정신이다. 서로 협력하고 교류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런 점에서 다소 부족하다. 얼마전 독일의 어떤 신부가 여기에서 참선공부를 하고 갔는데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따하시스님 : 좌선은 더이상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좌선하며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더욱 잘 될 것이다. 사실 일본불교는 순수한 불교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도 역시 마찬가지다. 절에 가면 신사가 있는 것이 그 예다. 일본선이 한국처럼 순수하지는 않지만 민중에 쉽게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다. 민중포교에 대해서는 한국불교도 한 번 짚어봐야 할 문제다.

서옹스님 :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 양국불교가 더욱 화합할 수 있길 바란다.

장성 백양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천왕산 본각사 삼존불 점안식 및 봉불법회



◆본각사 대웅전 전경

수도서울의 관문인 양천구 목동 천왕산의 지장기도 도량 본각사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웅보전이 완공되어 삼존불 점안식 및 봉불기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동참 인연을 다겁생에 지은 무명업장과 죄업이 쇠멸되어 좋은 인연속에서 무루복락 누리 시옵소서.

— 아 래 —

☒일 시 : 1999년 4월 1일(음 2월 15일) 오전 10시

☒장 소 : 서울시 양천구 목2동 산8번지 본각사 대웅본전

☒문 의 : 02-651-0076/0049, 655-0012
FAX) 655-0013

본 각 사 주지 대붕 벽해 합장



◇천년 역사가 서려있는 가지산문의 중심도량 보림사 일주문. 이 문을 드나든 선승들에 의해 한국 선불교가 뿌리 내렸다.



◇희양산문 봉암사에 있는 지증대사적조탑(보물 제13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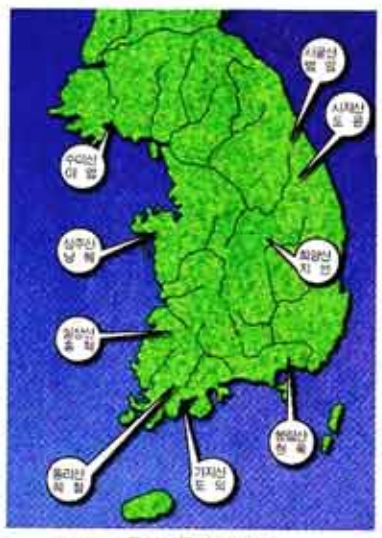


◇구산선문 최초개창 실상사는 들녘 한가운데 서있는 대표적 평지 가람이다.

한국 선불교 고향… 千年 화두 곳곳에

실상산문 북종선 전수…왕실과 가장 밀착
가지산문 도의선사 개창 性相不二 강조
희양산문 순수 국내 산문…일년내내 안거

구산선문



◇구산선문과 개산조.

사자산문 최대 번성 문파…적멸보궁 갖춰
성주산문 千칸 규모 대찰…화엄사상 융합
수미산문 이엄이 해주에 세워…왕정 도와

나말여초 104년간 아홉 선수행 도량 성립
본사 4월부터 '참선기행'…산문돌며 禪체험

신라 말 당나라 유학승들에 의해 전래된 선종(禪宗)은 신라말 고려초의 사회·정치적 격변의 시기에 불교의 새로운 사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시기에 들어온 선종 사상을 조석으로 아홉개의 산문(山門)이 형성 되니 이것이 바로 구산선문(九山禪門)이다.

처음으로 실상산문(實相山門)이 개설된 828년(신라 법흥왕 3)에서 부터 마지막 수미산문(須彌山門)이 만들어진 932년(고려 태조 15)까지는 실로 104년의 긴세월이 흐른다. 현재 우리 불교의 종가를 이루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맥도 바로 이 구산선문에서 부터 비롯 되었다. 본사가 기획한 '구산선문 참선기행'은 한국 선불교의 근본 수행처를 찾아 선맥의 체취를 느끼며 재발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산선문 참선기행'은 번잡스런 도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켜온 도량을 찾아 선불교의 향훈을 체험하는 테마 기행이다. 4월부터 찾아갈 오늘의 구산 선문을 지면을 통해 미리 가본다. 수미산문 광조사는 북한지역에 있어 기행에서 제외된다.

■실상산문(실상사)

구산선문중 가장 먼저 개창된 것이 실상산문이다. 개조(開祖) 홍척스님(?~828)은 중국 서당의 법을 얻어 826년(흥덕왕 6)에 귀국해 산문을 만들고 "정(靜) 하였을 때는 산이 세워지고 움직일 때는 골짜기가 응한다"는 가르침을 전했다. 이는 그가 북종선의 영향을 짙게 받았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 그의 제자로는 편운과 수철이 있었는데 단의장옹주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구산선문중 실상선문이 가장 왕실과 밀착 됐었음을 알 수 있다.

평평한 절마당 곳곳에 잘 보전돼 흩어져 있는 삼층석탑(보물 제37호) 2기와 석등(보물 제35호), 창건주의 유골을 모신 증각대사응료탑(보물 제38호)과 탑비(보물 제39호) 등은 실상사의 내력과 함께 고찰의 역사를 웅변해 준다. 단층 기단위의 탑신 전체에 난간·신중(神衆)·주악천인상(奏樂天人像)들이 정교하게 조각돼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를 연발케 하는 백장암 삼층석탑(국보 제10호)은 통일 신라 시대의 지혜와 향기를 맛볼 수 있게 해 준다. 인근에는 쌍계사와 칠불암이 있다.

■가지산문(보림사)

도의선사(783~821)는 859년(헌안왕 3)에 왕의 청으로 보림사에 머무르며 김언경 등의 후원 아래 사원 세력을 확장시켜 가지산문을 형성했다. 이때부터 그는 성(性)과 상(相)이 다르지 않으며 마음이 족하면 뜻이 일어난다(心足意隨)는 화두를 강조했다. 이후 가지산문은 염거·체증·형미·진공 등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 왔다.

전라남도 장흥군에 위치한 보림사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각 사천왕상과 긴 세월 속에서 자태와 위용을 한껏 뽐내는 삼층석탑, 석등(국보 제44호)을 만날 수 있다. 또 왼쪽 어깨에 새겨진 8행의 기록을 통해 보림사의 역사를 증명해 주는 커다란 불상인 철제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117호)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근처에 있는 운주사와 쌍봉사도 가 볼만 하다.

■희양산문(봉암사)

구산선문 중 유일하게 중국에 들어가지 않고 산문을 성립시킨 희양산문의 개창자 지증선사(824~882). 그는 다른 선문 개산조와는 달리 유학에 밝았고 선승으로서의 특별한 인연을 나타내는 탄생·금기·출가 등 6이(異)와 불사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6시(是) 등을 주장했다.

봉암사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1년내내 오직 참선으로 수행·정진하는 도량이다. 이 사찰의 최대 자랑 거리는 장중한 형태와 정교한 조각이 일품인 지증대사적조탑(보물 제137호)과 탑비(보물 제138호). 인근에 김용사와 대승사가 있다.

■동리산문(태안사)

중국 서당의 법을 받아 개창했던 또 하나의 산문이 바로 동리산문이다. 개조 혜철스님(785~861)은 839년(신무왕 1) 중국에서 돌아와 처음에는 왕실과 연결해 산문을 이끌고 나갔다. 그의 제자로는 개성 중심의 풍수지리설을 제창한 도선이 있었는데 그의 사상은 왕건이 고려 국가를 건설해 후삼국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큰 몫을 했다고 전해 진다.

이 사찰에서 순례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맞배지붕 건물인 옛 누각 능파각. 긴 역사에 비해 절을 이루고 있는 건물수가 적어 전체적으로 단출한 느낌을 준다. 선원이 있는 언덕에 오르면 동리산문을 개창한 적인선사 혜철의 부도탑인 조륜청정탑(보물 제273호)에 이르게 된다. 태안사는 부도 이외에도 1454년(단종 2)에 만든 대비라 한쌍(보물 제956호)과 1581년(선조 14)에 제작된 명문이 새겨진 대웅전 동종, 해회당 마루에 걸려 있는 직경1m의 금고(金鼓) 등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인근에는 화암사와 천은사가 있다.

■사굴산문(굴산사지)

사굴산문은 범일스님(810~889)에 의해 개창됐다. 범일은 831년 중국에 들어가 마조의 제자인 염관의 법을 받아 846년(문성왕 8)에 귀국했다. 평상의 마음이 바로 도(道)라 말한 그는 "석가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친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 그 뒤 진귀대사를 만나 깨친 것이 바로 조사선의 경지다"고 설해 여래선보다 우월한 조사선을 주장했다. 그의 제자로는 행적·개청·신의 등이 있으며 이 산문은 강릉과 오대산 일대에 세력을 미쳤다.

굴산사는 851년(신라 문성왕 13)에 범일 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신라말에서 고려초까지는 매우 유명했던 사찰이다. 전성기때에는 승려 수만도 2백여명이 넘었으며 딸 셋은 뜨물이 동해에 까지 흐를 정도로 큰 가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소실돼 세인의 관심 밖에서 사라졌다. 이후 1936년 강릉지방의 대홍수로 6개의 주춧돌이 노출됐고 이때 부근 주민이 '사굴산사'라는 한문 글씨가 새겨진 기와를 발견함으로써 이절이 굴산사였음이 밝혀지게 됐다. 현재 민가가 들어서 있는 절터에는 통일신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5.4m '굴산사지 당간지주'(보물 제86호)가 마주 보고 서 있다. 또 이 절터에는 '굴산사지 부도탑'(보물 제85호)과 '굴산사지 석조 비로자나 삼존불상'이 남아 있다. 인근에는 등명낙가사와 보현사가 있다.

■봉림산문(봉림사지)

봉림산문의 개창자는 현욱선사(787~868)이다. 현욱은 824년 중국에 들어가 마조의 제자인 장경의 법을 받아 837년에 귀국한 뒤 봉림산문을 만들었다. 그의 제자 심희는 김해지방의 가야계 김율희와 연결해 봉림사를 열었고 이어 918년에는 왕건의 권유로 고려 왕실에 나가기도 했다. 이어 심희의 제자 찬유는 "동일한 진성(眞性)이 일심(一心)이며 일심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했고 천태사상을 받아 들이기도 했다.

현재 봉림사 절터에는 남아 있는 문화재가 거의 없다. 봉림사지에는 본래 보월능공탑(보물 제362호)과 탑비(보물 제363호) 그리고 3층석탑(지방유형문화재 제26호)이 있었는데 탑과 탑비는 일제시대때 경복궁으로 이전됐고 석탑은 1960년 사지 3km 밑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겨졌다. 인근에는 성주사와 장위암이 있다.

■사자산문(법흥사)

사자산문의 개창조인 도윤스님(798~868)은 825년(현덕왕 17) 중국에 들어가 마조의 법제자인 남전의 법을 받아 귀국했다. 먼저 화순 쌍봉사(雙峰寺)에서 산문을 열었지만 번성하지 못했다. 이후 그의 제자 징효가 영월 흥녕사로 옮겨오면서 부터 가장 번성한 문파가 되었다.

법흥사는 신라 선덕여왕때인 7세기 중엽에 자장 율사가 문수 보살 진신을 친견하기 위해 강원도 세 곳을 돌며 사리를 봉안하고 기도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곳에 들러 적멸보궁을 지었다는 성스러운 곳.

사자산문이 문을 닫은 이후 명맥만 유지해 오다가 1902년 비구니 대원각 스님이 중건을 하면서 흥녕사에서 법흥사로 절이름을 바꾸었다. 옛날 흥녕사 시절에는 구산선문으로서 이름을 떨치며 전국의 도속(道俗)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었다. 하지만 오늘의 법흥사는 적멸 보궁 도량으로서 수많은 불자들이 바치는 '나무석가모니불' 정근 소리가 사시사철 그칠날 없이 도량에 메아리 친다. 월정사, 구룡사, 정암사 등이 가깝다.

■성주산문(성주사지)

성주산문은 무염국사(801~888)에 의해 개창됐다. 무염국사는 821년(헌덕왕 13) 중국으로 들어가 마조의 제자인 마곡의 법을 받아 845년(문성왕 7)에 귀국, 남포지역의 호족인 김흔과 결합해 성주산문을 열었다.

이 산문은 나말 여초에 가장 번창했으며 무염국사는 여엄·대통·삼광·자인·영원 등 많은 제자들을 두었다. 특히 이 산문은 선종의 입장에서 화엄을 융합하려는 사상 경향을 가졌다.

성주사는 백제때의 오합사(烏合寺)가 통일신라때에 개칭되면서 크게 중창된 사찰이다. 〈숭암산 성주사 사적〉에서는 성주사의 규모를 붙전 80칸, 영랑 800여칸, 수각(水閣) 7칸등 성주사의 규모를 거의 1천칸으로 적고 있다. 하지만 임진왜란때 소실돼 그 장엄하던 절이 송두리째 자취를 감췄다.

성주사터에는 오층석탑, 금당터의 석조연꽃대좌, 세 기의 삼층석탑 등 흩로된 것들만이 그 형체를 간직하고 있다. 특히 신라시대 부도비중 가장 큰 것으로 성주산문의 개창조사인 무염국사의 부도비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 제8호)는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며 옛 명성을 자랑하고 서 있다. 인근에는 무량사와 장곡사 등이 있다.

■수미산문(광조사지)

구산선문 중 가장 늦게 성립된 수미산문의 개창자는 이엄스님(870~936)이다. 그는 896년 중국에 들어가 운거의 법을 받아 911년(효공왕15)에 귀국해 산문을 열었다. 이엄의 제자로는 황보 제공과 왕유·이적량 등 전현직 고관이 있었으며 이들의 사상 경향은 대체로 왕정을 보익하는 성격을 띠었다.

광조사는 진철대사 이엄을 아끼던 태조에 의해 932년에 창건됐다. 그때 이엄의 나이가 63세에 이르렀으나 선풍을 사모해 모여든 구도자(求道者)들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며 선풍을 진작시켜 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수미산문의 전통이 확립 됐으며 이 전통은 고려 왕정을 비치는 등대로 발전했다.

산문의 중심 도량인 광조사는 오래전에 소실됐고 이엄 즉 진철대사의 보월승공비(寶月乘空碑)와 오층석탑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황해도지〉에 기록돼 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동리산문 中 서당法이어…고려창건 한몫
사굴산문 범일국사 창립…조사선 일으켜
봉림산문 마조선맥 부흥… '일심근본' 주장



◇3기의 삼층석탑만이 외롭게 옛 대가람 성주사지를 지키고 서있다.

사찰등(燈) 장엄불사-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연꽃일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다수 보유업체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 재활용 재질 사용

연등규격(지름) :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실크등, 공단등



◀새디자인의 팔모 주름등
간편하면서 눈비에 파손되지 않는 실용적인 팔모 주름등입니다.
·규격 : 13cm



(조립 팔모등) (원 통 등) (차걸이등) (연 등)

◐T자형 전선 제작, 판매합니다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인 등
※각종 인등도 주문제작합니다.
※천불전 조성합니다.

■천덕연등 장엄사찰
조계사(서 울) 용주사(화성군) 금산사(김제) 선본사(팔공산)
동화사(팔공산) 갓바위(팔공산) 약천사(제주) 봉선사(남양주)
운주사(화순군) 그외다수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T자형 케이블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원하시는 사찰에는 견본등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장엄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등개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제작 및 설치문의
☎0347/792-6288 794-4055/ FAX 0347/92-6288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천 덕 연 등 제 작 사 대표 김 기 찬 합장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자기뿌리 안믿고 어디를 믿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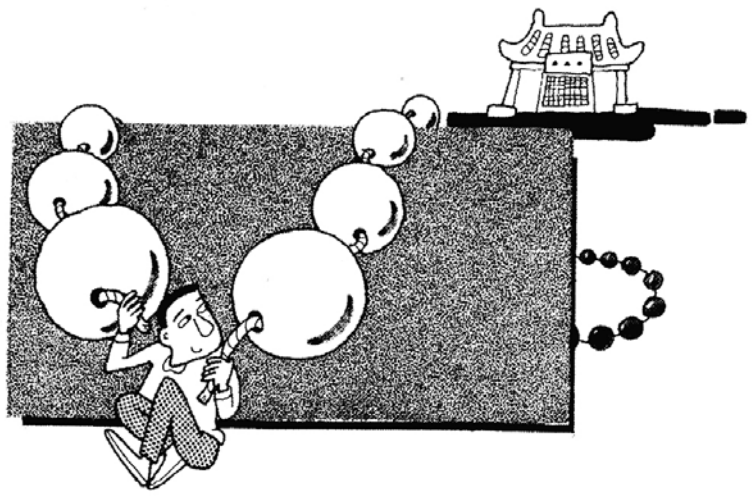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종점이 시발점 되는 도리 알면 피안행
마음의 용광로에 다 놓을때 습 제거돼요

이렇게 꽃피고 새우는 봄날에 같이 한 자리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봄날이 된다면 각계각층 어떠한 거든 막론해놓고 다 녹일 수가 있고 자유스러울텐데 하는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또 서로 토론하면서 서로서로의 모자라는 것을 메꾸어 나가는 자리이니 도반으로서 아쉬움없이 잘해 나가 봅시다.

관할때 생각 어디에 두는지요

문 질문드릴 것은 먼저 '주인공!' 하견서 정진을 하는데, 입으로는 주인공 하면서 소리를 내는데 생각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생각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선원에 계시는 부처님을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다하여 내 가슴 속을 생각해야 하는지, 과연 어디를 생각하면서 주인공을 찾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답 본래 인생이 태어났으면 자기 뿌리와 싹이 동시에 같이 태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알고 내가 미리 이 염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염주가 되기에는 줄에다 이 알을 꿰어야 염주가 돼죠? 그렇다면 사람도 이렇게 염주처럼 정신계와 물질계를 겸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어디를 찾아야 하고 어디를 믿어야 하고 이런게 없이, 본래 이렇게 꿰어져 있습니다. 육신과 정신계가, 즉 말하자면은 염주알은 어디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염주를 꿴 줄이죠? 이 줄은 정신계라고 비유할 수 있고, 이 알은 물질계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주는 불가부득이 누가 믿어라, 안믿어라 할게 없이 이 줄을 믿어야 하겠죠. 그러니 믿는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대로니까, 그대로 꿰어져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대로 염주가 되듯이 인간도 그대로 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자리에 놓여 있으니 인간된 자리의 생활을 해야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믿어라, 같이 겸해서 있으니 그대로 믿어라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면 이 줄이 다 알이다 이런 이름을 찾을 필요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비유를 하자면, 싹은 뿌리에 붙어있고 뿌리는 싹을 살리기 위해서 생겼죠. 그리고 그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서 그 뿌리로 인해서 싹이 살고 있는데 자기 뿌리를 안믿고 어디를 믿는다는 겁니까? 그대로 믿어야죠. 종교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걸 떠나서, 부처님을 숭상한다 안한다 이것도 떠나서, 그대로 자기의 싹을 내게 한 장본인인 자기 뿌리를 믿으라는 거죠. 모든 것은 그 뿌리가 흡수해서 올려보내니깐요. 싹은 또 모든 걸 흡수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고요. 이런 건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굳이 이걸 믿으시오! 이러지 않아도 그대로 결집이 돼 있다니까요. 그대로 이 염주와 같이 말이예요. 그러니 이 염주는 이 줄을 믿지 않으면 안된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 은하계나 태양계도 그렇지만 지구도 이 염주알처럼 줄에 매달려서 돌아간다구요. 이 마음의 줄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돌아간다 이 겁니다. 인간도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을 믿는다면 이 줄은 매듭도 없고 시발점 종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알은 시발점이 있고 종점이 있죠. 그러니 모든 것은 이 안에서 훌떡 벗어나야, 정신계 물질계를 벗어나야 자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물질계에서는 이 테두리 안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신계로 하여금 무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광대무변한 묘법입니다.

그러니 이걸 내가 믿으란다고 믿고 믿지 말란다고 믿지않고 또 누가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무조건 자기 뿌리는 자기 싹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부처님의 뜻과 인간의 생활자체가 같이 돌아가면서 바로 이것이 진리와 합류화되어야 진리지, 만약에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이것은 부처님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누가 하라하고 하지말라 하고를 떠나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자기 염주알이 자기 줄을 믿듯이… 그래서 이 염주알은 말입니다. 이 염주알을 이 줄에다 튼튼하게 꿰어놨기 때문에 염주는 걱정도 안해요. 줄 끊어질까봐 걱정도 안해요.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대로 줄을 믿고,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이 그냥 하면 그대로 움죽거려져요. 그러니까 그대롭니다. 그대로… 여러분들도 지금 뿌리와 싹이 그대로 한 몸입니다. 그러니 못믿고 믿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믿으시고 거기에 맡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해서 맡겨봤다가도 또 못믿어서 뺏아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한번 맡겼으면 맡긴 그 자체가 아주 뚜렷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좀 시일이 가서 풀릴 수도 있고 단박에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천차만별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조급해서 아이구, 요렇게 맡겨도 안돼! 안돼! 안된다고만 합니다. 그렇게 못 믿을려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뿌리로 인해서 싹이 났는데, 자기 영혼의 뿌리가 자기를 형성시켰는데 그렇게 못 믿어서서야 어찌 삶을 보람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꼭 배워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본래 꿰어져 있으니까 믿어라 이겁니다. 이제 꼭 믿고 맡겨 놓아야 할 때가 바로, 아주 가까운 내 윗 눈썹과 아랫 눈썹 같은 거라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하여튼 아주 정당합니다.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이 세상에 누굴 믿겠습니까? 부부지간에도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해야되고 자식한테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슬프고 즐겁고 한 것은 자기 뿌리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하자면 마음은 마음내기 이전이다, 이럴때 그 마음은 죄알고 있는 겁니다. 마음내는 건 아무렇게나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마음을 내겠지만 마음 내기 이전의 마음은 아주 정확합니다. 더하고 덜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낼때 마음의 선장이 마음을 잘못 낼 때는 다스려서 거기 놓고 잘 낼 때는 '잘 내게 해서 감사하구나! 나를 가르키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즐겁게 내주니 감사하구나!' 하고 거기다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지 누가 죄를 주고 안주고가 없습니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지 누구가 해라 말아라, 지어라 말아라 이런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라면, 그래서 부처님 될 수 있는 자격이 99%가 된다, 한 찰나 생각만 잘 한다면 말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무식하고 무식 안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못나고 잘나고 간에 이 줄은 반드시 꿰어져 있는 염주알과 같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염주알을 꿴 그 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다스리고 행하고 거기 놓고, 잘못된 것도 거기서 나오는 줄 아시고 바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줄 아시고 되 그 자리에다 놓으신다면 앞서의 것이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가면서 새 삶에 대한 보람있는 삶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못 믿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나 사나 죽을 병이 들었으나 죽을 병이 안들었으나 진짜로 믿는다면 정말 죽는다 하더라도 웃을 벗고 바로 승천이 될 것이고, 즉 쉽게 말해서 이 어항 속에서 벗어날 거고 또 산다 하더라도 그냥 살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래도 건지고 저래도 건지는 건데, 왜 겁을 내느냐 이겁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누구나가 한번 옷 벗기는 마찬가진데, 부처님께서도 그 깨달으신 과정과 열반하신 과정이 어땠습니까? 염주알을 시발점에서 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종점까지, 종점까지 오니까 다시 시발점이 되더라. 그죠? 다시 시발점이 돼죠. 그러니까 종점이 됐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점이 됐다하면 시발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었다 하면은 한 찰나에 그대로 마음공부 한 사람들은 그냥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공부 못하고 바깥으로만 끄달린 사람들은 그 차안(此岸)에서 즉 차단 속에서 감옥 아닌 감옥 속에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세생생에, 그 의식, 관습에 의해서, 인과에 의해서 그냥 매달려서요.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개구리로 살던 습이 누적이 돼 가지고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개구리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생각을 하되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용광로에 다 놓으십시오. 이 줄은 용광로와 같고 자가발전소와 같고 불바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 놓기만 하면 모든 것은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놓고 맡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자기 뿌리라는 것을 아셨으면 무조건 믿

☞ 16면으로 계속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한번 맡겼으면
맡긴 그자리가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의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10)

나 하나 죽는다면 계율은 절로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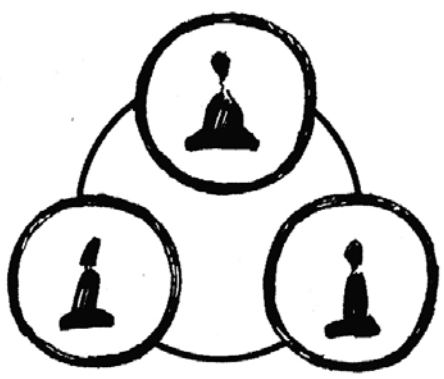
더러우면 닦고 흐트러져 있으면 가다듬고 망가지면 고치고 하는게 계행이니 생활속에 하나부터 열까지 계율 아닌 것이 없다.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행하며 사는 것이 계행이다.

부처님의 계율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말라' 가 본 뜻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많이 하다 보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용도와 분수에 따라서 한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오계만 해도 '하지 말라' 로 일관되어 있지만 요즘에 와서는 긍정적으로 '살생하지 말라' 를 '평등한 자비심으로 생명을 사랑하라' 로, '도둑질 하지 말라' 를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지어라' 로, '사음하지 말라' 를 '몸과 마음으로 청정행을 닦으라' 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를 '진실만 말하고 신뢰를 지켜라' 로 '술 마시지 말라' 를 '언제나 밝고 바른 지혜를 가져라' 로 해 놓으니까 계율이란 안 함으로써 지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뜻을 받아 행해서 지키는 것이 된다. 근본 마음이 청정하고 바르면 따로이 세울 게 없다.

계율을 세우려면 2백50개가 아니라 수천개도 세울 수 있다. 세상 전체가 계율 아닌 게 어디 있는가. 문제는 겉으로 세워놓은 계율이 아니라 근본 마음이다. 가령 남을 조금이라도 해롭게 하는 행을 한다면 계율을 범한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한번 일으켰다면 그것 또한 계율에 어긋나는 것이다. 모든 계율이 한군데서 나고 드는 걸 알면 계율이 몇 개이든 전체 계율을 다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모른다면 전 계율에 다 어긋나는 것이다. 2백50계다, 3백48계다 할 것이 없이 전체가 계율이니 한 마음으로 지키고 행해야 한다.

계율은 주어지면 짐이다. 그러나 일체 경계를 다 근본 주처에 놓아 가면 구태여 계율의 자로 재지 않아도 저절로 계율이 지켜진다. 그때의 계율은 자유의 날개이다. 계율에 자기를 맞추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 계율이 우러나 오도록 하라.

모든 것을 주인공 자리에 맡겨 놓는다면 구태여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사성제니 십이인연이니 따지지 않더라도 계율을 다 지킬 수 있고 더불어 다 같이 유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일일이 따져서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렇게 들어야 한다, 이렇게 정진해야 한다는 식으로 모든 소리를 다 해야 하고 그렇게 행해야 한다면 복잡해서 언제 자기를 알 수 있게 되겠는가. 그러기에 이론 따지고, 경전 따지고, 학식 따지고, 옳고 그름 따지고 할 사이 없이 '곧바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다.



중생인 나를 못 미더워 한 나머지 나를 부정하며 계율로 얽어 매기보다는, 부처인 나의 근본을 믿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라. 그것이야말로 계율을 초월하여 계율을 지키는 긍정의 방법이다. 본래 부처인 우리들은 자신의 빛으로 사는 것이다.

불법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공부이다. 자유인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계정혜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자유인이 되기 위한 계정혜가 새로운 굴레가 되어 부자유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주객이 뒤바뀐 일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계율이 이러하고 청규가 이러하니 이렇게 해야만 한다, 저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계율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는 계율을 다 놓은 사람이 진실로 계율을 지키게 된다. 그렇다고 계율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인연 줄이 얽히고 설킨 데서 일어서려면 먼저 관념의 굴레를 벗어 던지는 작업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상대와 때와 장소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데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려야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중생들은 모르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나온다. 그때에 다시 굴려서 되놓고 또 놓고 가면 바로 굴레에서 벗어나려 애쓰지 않아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니, 따라서 남이 주는 계율에 매이기 전에 먼저 안으로 놓는 작업부터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직접 들어가는 순리이다.

마음으로부터 계율이 우러나오려면 모든 경계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누구로부터 까닭 없이 한대 맞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 안으로 굴려서 녹여야 한다. 그때야 자연스런 계율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고로 마음법에서는 인욕이 이미 인욕이 아니다. 그것은 참는 게 아니라 이미 '참을 것도 없음' 이다. 그렇게 크나큰 마음, 대장부의 마음으로써 세상을 보아야 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불법의 생활화인 것이다.

원통을 벗어난 사람인 경우에는 자재로이 통 안팎을 들고 날 수가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걸림이 없다. 그러나 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에 한해서는 통 안의 이치로 보고 듣고 행동하고 느끼고 하니까 걸림이 많다. 따라서 제가 걸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귀에 거슬려 그로 하여금 마음에 걸림이 있게 해서는 안된다. 제아무리 저 언덕을 넘나든다 해도 일체는 개별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돌아가므로 모르는 사람에게 죄업을 지어 주어서는 안된다.

협찬 : 주 인 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한생각 놓고 돌리면 구정물도 새물 돼

☞ 15면에서 계속

어야죠. 뭘 누가 믿어라 말아라 할 때까지 있을 필요 있나요.

한마음 자리에 들려면…

문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사구게가 있는데 머무르는 바 없이 생각하기 이전의 마음이 소소영영한 마음 자리인가 합니다. 한 생각하기 이전의 마음이 한마음 주인공이 나투는 자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자리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지금 그 말 대답한 말이나 똑같습니다. 마음내기 이전은 마음의 내선장이고 마음 내는 것은 바로 중생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다스려서 몰록 놓을 수만 있다면, 몰록 놓되 그냥 돌록 놓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놓고, 돌려서 놓고 구정물을 새물로 만들어서 놓고 그럴 수만 있다면 벗어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 구정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다 이런 말도 전부 경(經)에 있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가르치면 더디니까, 아예! 그 구정물을 맑은 물로 그냥 대치해서 써라! 이겁니다.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을 새삼스럽게 거치고 거쳐서 이렇게 한다면 더디니까 그대로 집어 먹고, 그대로 맛을 알고, 그대로 행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기 생각내기 이전이 자기 뿌리 이니까요. 그대로 믿고 양면을 다 거기다 믿고 놓으면 그 가운데서 아주 샘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 샘물이라는 것은 만법의 근본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이며 또 생활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염주알이 염주줄에
그대로 꿰어져 있어
둘이 아니듯
무조건 믿으세요
그 마당에서는
의심도 근심도 없어요

'이심전심' 몇식에 해당됩니까

문 마음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의 유식론에 보면 인간의 인식은 대개 열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다섯가지는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다섯가지는 정신적으로 인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범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안식·이식·후식·설식·신식 또 우리가 교육으로 통해서 아는 의식입니다. 이 여섯가지는 보통 범인들이 느끼는데 일곱번째·여덟번째·아홉번째·열번째 되는 것은 우리 범인들이 일반적인 공부를 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칠식·팔식·구식·열식에 도전하는 많은 불자들이 있어왔고, 또 일생을 바치는 대덕 고승들도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인 인물 한 두어 사람에 대해 조사어록에 나오는 것 중에 한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마조사와 양무제의 대화에서 나오는 달마어록에 보면 '심심상련', '교외별전', '이심전심' 이런 대화가 어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제 몇 식에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항상 여러분한테 이심전심이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죠. 그건 열가지든 백가지든, 천가지든 만가지든 그건 하나로만이 돌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로만이! 내 근본 진실한 내 그 곳처에서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만물이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말과 행이 그대로 이렇게 뜻으로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체가 통하죠. 전체가 통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심전심으로서 사는 거죠. 그대로.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본다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다 돼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런데 이 정신세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것이 그 감각이라고도 하지만 육감적으로도 이렇게 오죠. 사람을 벌써 보기만 해도 '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구나! 아, 어떻게 저 사람은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뭘 좀 어떻구나 어떻구나.' 하는 거를 대략 짐작하죠.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도 생활속에서 있는가 하면, 이 마음공부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대로 마음과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심전심'이죠, 즉 말하자면 영과 영이 한데 합치면 그대로 없으면서 맑은 물이면서도 그것은 둘이 아니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를 알고 있다. 꽃을 볼 때에도 이심전심이 돼죠. '야! 너는 왜 낮이면 피고 밤이면 오그라 드느냐?' 고 물어보세요. 반드시 대답이 있을 겁니다. 또 '밤에는 피고 낮에는 왜 오그라 드느냐?' 고 물어보세요. 반드시 회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심전심이라는 것은 비밀의 행이면서도 이심전심은 아주 묘한 광대무변한 법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깨달아야만이 자기가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버선목이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처님처럼 금방 이 자리에서 요 문밖을 나갔다 들어왔다, 또 지구를 한바퀴 돌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죠? 또 물 속의 생물들을 다 만나고 왔다, 한 찰나에 만나고 왔다 하더라도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심전심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이심전심의 그 묘한 도리를 체크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는 도리는 자기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아마. 얼른 쉽게 말해서 이심전심으로 통해서 그 천백억화신이 나투면서 각계각층의 중생들을 다 응하시느니라! 이런 것을 거기에 포함하는 말이죠. '이심전심'요.

10식 되면 생사 자유로운지요

문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칠식은 말라식, 팔식은 아뢰야식, 구식은 암마라식, 열식은 백정식인데, 어느 책에서 보니까 백정식 정도되면 생사 거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말씀 주십시오.

답 백정식은요 그 의식까지도 없어야 백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아뢰야식이니 뭐 이것이 아주 몰록 다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정식'이라는 건 '아주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깨끗한 무(無)가 돼야, 이것이 무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서 큽어서 부스럼을 만들지 말고 모르는대로 그대로, 이 알은 반드시 줄에다가 다 놔라 이겁니다, 의식까지도. 지금 직행으로 들어가는 코스지, 이거는 거쳐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만법유심은 몇식 해당되나요

문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인 원효대사의 어록에서 보면 '심생즉 종종기요, 심멸즉 종종멸이라, 일체유심이라, 일체유심 심외무법 만법유심 우주 일체는 오직 마음에 있다'이런 어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식에 해당되는 건지요?

답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정신계와 물질계 이런 소리나 똑같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 아주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염주알과 염주줄이 둘이 아니고 그냥 일심으로서 통하느니라, 이러는 거와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가 둘이 아닌 도리가 바로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어떻게 내느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내기 이전은 항시 좋고 나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깐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주어진 그 마음내는 거는 이 콩 육체 안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지금. 생명들의 중생, 의식들이. 그래서 그 마음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다스려서 두 마음으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의 모든 그 생명이 다 있기 때문에 처처불이요. 또 사사불공이라고 했죠? 불공이라고 한 그 자체가 바로 처처불이기 때문에 생활자체가 그냥 움쭉거리는 그 자체가 바로 공했다, 찰나찰나 공했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었는데 금방 돌아서면 저기 보고, 금방 돌아서면 딴 거 보고 이러죠? 내가 항상 말을 했죠? 가정에 들어가도 여보! 하면은 남편이 됐다가, 금방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가 됐다가, 얘, 아무개야! 하면은 아들이 됐다가, 여보게! 하면 사위가 됐다가, 형님! 하면 형님이 됐다가…, 이렇게 그냥 찰나찰나 바뀌지 않습니까? 생활도 모든 일체가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육체 안에 들은 생명체들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용하는 것이 전부…, 어떤 땐 이런 게 들어오고 어떤 땐 저런게 들어오고, 어떤 땐 딱딱한게 들어오고 어떤 땐 물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작용하는 것도 사사건건이 달라요, 이건. 들어오는 대로 사사건건이 다르니까 사사건건이 어떤 건 이렇게 내보내고 어떤 건 저렇게 내보내고, 어떤 건 모자라는 대로 이렇게 메꿔서 내보내고, 그러다가 고장이 나면 메꿀 수가 없게 되는 이치가 되기 때문에 병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누덕누덕 붙여가지고 오히려 큽어서 부스럼을 만들지 마세요. 생명이 있는 모든 일체는 즉 풀 한 포기도 불이죠, 처처불이다! 또 일체가 다 마음으로 통하고 뜻으로 통하고 말로 통하는 게 교다. 그리고 그 일상생활 자체가 그대로, 삼천대천세계가 전부 공했어요! '불공' 하는데, 이게 '평등불공!' 이렇게 해도 되구요,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배워야죠, 너무 어렵게 배우면 어깨가 무거워서 더 안돼요, 왜 집안에서도 이런 게 있죠, 너무 닥치는 게 많아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 땐 어깨가 무거워서 '어휴! 멋대로 되라' 이러고 내팽겨쳐지죠. 그렇듯이 너무 무겁게 만들지 마세요. 오히려 무겁게 만들면 오히려 불성이 가려집니다. 발견이 돼야 할텐데 오히려 척척 붙어서 눈을 가려놔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떼야 될텐데 붙이면 됩니까?


그림 · 최주현

돌장승이 아기 낳는법

문 저는 불가에 귀의한 지가 한 25년 됩니다. 최근에 어느 책에 보니까, '불법을 알려고 한다면 돌장승이 아이 낳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런 귀절이 있었는데 무척 공감이 가서 저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예정으로요. 그래서 스님께서 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돌장승이 아이 낳는 도리를 알아야 된다 이랬죠? 그럼 여지껏 말씀드린 것이 헛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돌장승 뿐만 아니라 꽃나무도 애기를 낳을 수 있어요. 이 고목나무도 애기를 낳을 수가 있고, 일체 만물이 다 애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육체가 탄생을 했지, 정신이 탄생을 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는, 육체가 탄생을 해야 정신을 탄생할 수 있다. 내가 탄생을 해봐야 장승이 어린애 낳는 도리를 알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 이 소리입니까? 그러면 선생님께서 애기를 낳아 보세요. 그러면 돌장승이 애기를 낳는 도리를 알 수 있을 테니깐요. 정말입니다! 돌장승이 애기를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여덟개도 낳고 마흔개도 낳고 이래요. 마흔개가 하나도 됐다가, 하나도 없기도 했다가 이러거든요.

그러니 그 도리를 완전히 터득하실려면 계획이 없이 하세요. 계획을 없애고 지금 그대로. '돌장승이 애기 낳는 것도 너만이 알고 있어!' 하고 거기다가 자꾸 돌쪼듯이, '깨닫게 하는 것도 너고, 이끌어 주는 것도 너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너고, 장사가 잘되게 하는 것도 너고, 못되게 하는 것도 너니까 잘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말이죠. 물 먹어본 사람이 물 맛을 알듯이요. 꼭 그렇게 하세요.

식물도 감정 있습니까

문 스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요즘 한마음선원은 '부다피아'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현대불교신문에 스님들의 글도 올라오고 큰스님들의 법문 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수행담 체험담 등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다피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읽은 내용인데 어느 스님이 쓴 글 중에 윤회에 관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이 지구상 생물에는 유정물 즉 감정이 있는 생물과 무정물 즉 감정이 없는 생물이 있다. 동물은 감정이 있는 유정물이고 식물은 감정이 없는 무정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고 그 '식물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윤회를 못하고 동물만 윤회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선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해하기로는 여전히 식물도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식물 역시 지구상의 생물이며 그 윤회선상을 떠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나는 거는 정말 식물이 감정이 없는가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스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답 왜 감정이 없겠어요. 내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요. 산에 다니다 보니깐요, 손가락도 잘라질 정도로 말어들이는 식물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건. 이렇게 스치고 가는데 그 순간에 잎파리가 이만큼 넓었는데 또르르르 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요상하다 이러구선 그냥 막대기 작은 거 하나를 집어가지고 그걸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냥 쫙 말리면서 막대기를 물고 영 놓지를 않는 거에요. 그러기를 한 2시간 있으니까 놔줘요. 놔주는데 보니깐 그 나뭇가지가 은근히 잘려졌어요. 부스러졌어요. 그런데 감정이 없다고요? 이 모두가 참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다 놓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다 놓아서 내 마음이 큰 바다로 이룬다면 수증기로 해서 올라가서 이 정수봉에서 정화를 해서 다시 그것을 모든 만민에게 내린다, 물을.

지금 현실이 그렇듯이 비가 오면은 초그만 풀도 다 먹어요. 요만한 풀도요. 그렇죠? 적으면 적은 대로 먹고 크면 큰 대로 먹죠. 벌써 생명이 있으면 생각이 있어요. 이 소나무가 땅이 모자라서 뿌리를 내리는데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얼만큼 그 뿌리를 내려가지고 땅에 닿게끔 해요. 땅에 닿아서 다시 뿌리를 박고서 살아나요. 그런데 생각이 없어요? 허허허허…. 그건 언어도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다가 그냥 아파서 죽게 되니까 풀을 손으로 이렇게 뜯으면서 "나 좀 살려줘. 나 죽겠어." 하고 애원을 하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그 옆의 풀들이 다 그냥 얼굴을 내밀구선 자기 액을 빼주더라는 거죠.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다 생명이 있기에
처처불이요
생활자체가
고정되지 않아
사사불공입니다

자기 잎파리 하나씩 빼서 입에다 넣어주더래는 거예요. 그래 그 꿈을 꾸구선 살아났는데 그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겪어보구서 이 세상에 모든 생명있는 풀들은 다 생각이 있고 다 사랑이 있고 의리와 도의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죠. 또 악하게 쓰면 악한 업이 그대로 자기가 요 다음 생에 나올 때 모습을 달리 해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구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예전에 누가 버드나무를 잘랐는데 피가 나더라는 거예요. 도끼로 한 번 땅 쳤는데 피가 주르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르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꿈에 약 좀 발라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네 생명만 중하지 내 생명은 중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걸 만약에 끝까지 잘랐더라면 그 식구 중에 하나는 죽었을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할 수 없거든. 모두가 다 그래요. 사람은 보통 다양하게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짐승들은 채식하는 게 있고 육식하는 게 있죠. 그렇게 채식하는 동물은 인간으로의 진화가 빠르고 육식하는 동물은 남의 생명을 마구 잡아먹기 때문에 인간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게 나와요, 이거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무의 세계에 정신세계를 알려면 관속에 들어가봐야 안다고 하죠. 죽어봐야 아니까 죽어라, 여러분들이 다 죽어라 이런 소리예요. 죽는 것이 죽는 사이 없이 죽으라는 소리지 아주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나무도 풀도 생명체에는 다 생각 있어요
이심전심은 전체가 통하는 광대무변 法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간병인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02)363-7884
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당뇨완치
대한불교원융종 세운정사
0671)626-4984
011)696-4848
전북 남원시 하정동 226번지

강좌

易학교육전문학원 육성교재
집에서 배우는 **易학** 학습지
좋은 스승, 좋은 교재를 만나야 제대로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8주 완성
역학계의 혜성 박규명 (전직교사·59)원장이 만들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는 것도 인연이지만….
농협 037-01-298413 (예금주) 글향기
易학교육전문학원 (02)332-7001 (042)525-5774

사주 명리수강생 모집
⊙사주·신수·궁합·택일·작명·방위
⊙진로 선택 등을 자신있게 간명할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저렴한 수강료의 강의는 최고수준
⊙주2회 (1회3시간씩) 3개월 완성
⊙초급 중급 상급 각 1개월씩
⊙수시개강, 연중계속강의
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명리연구원 02)713-4852-3

동양사상 공부하실 분
◆과목 : 참선지도, 불교경전 역원문, 노장사상, 관상, 육효, 사주, 풍수지리, 가상(家相)
※전강 탄허스님 문하에서 수학
◆강사 : 김 소 호 거사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술장상담도 해드림)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12호 **달마정사선원**
011)755-5333/02)914-6551

中國 頭鍼療法 강좌 안내
「두침 요법」의 저자이신 중국거주 이동철 교수님께서 방한하시어, 한의사 및 침구사, 병의원 의사 분들의 특강 요청에 의하여 강의중에 중풍환자를 직접 시술하여 두침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함이 확인 된 바, 참석자들의 지대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본 강좌기간에는 두침연구에 뜻이 있는 10명을 선정하여 교수님의 두침요법을 전수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내강의 일시 : 1999. 4. 9~4. 13(5일, 20시간)
■중 국 연 수 : 7일 (1999년 5월 중 예정)
■국내강의 장소 및 강의료는 접수시 통보예정
■접 수 처 : 011-687-6979
■판매제품 : Video : 1 이동철 교수님의 두침강의 및 중풍환자 각종 처방시술
2 중국 중의원에서 강의용 시술실기 각종 처방녹화
■저 서 : 중국두침요법(1만원) ■頭鍼用 針(1만원)

구인

사주 명리 수강생 모집
▶ 사주·신수·궁합·택일·작명·방위
▶ 진로 선택 등을 자신있게 간명할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해암사 서울포교원 법성스님 직접지도
02)962-9871
이문동 외대앞

절운영 맡겨주실 분
◆모든 불치병치료 능통함.
◆기치료법 전수함.
광 명 스 님
016)385-7455

여생을 편안하게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곳에서 부처님께 기도정진하며 살고싶은 두 분을 모십니다.
병환중에 계셔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미륵산 골짜기에서
비구 석 천 합장
0371)761-9410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에 한함
5년 이상 수행하신 분
02)359-7766

신심 있는 보살님을 모십니다.
(40~50대, 숙식제공)
◆ 기념품 전시관 0명
◆ 법당 0 명
0638)432-0837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32)868-2989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기타

정신병 신병 집중치료
환자 및 가족비밀 절대보장
1.약물 치료가 아님
1.가정에서 관리 어려운 환자
1.요양치료가 필요한 환자
1.병명없이 아픈 사람
1.돈을 마구 쓰며 구타를 일삼는 사람
1.굿을 하고 이상이 생긴사람
1.신병 들린 사람
1.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사람
1.병명이 바뀌는 사람
본 스님은 27년간 수도한 분
묵계사 고찰정법 기도도량
0595)884-1789/011)883-9144

국산 토종 목암주 묘목
※업가분양※
02)222-6003(주간)
02)224-8895(주간)
02)234-0095(야간)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관리국 기능보유자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하고 그외도 조각 장여부연 이며 40미터 이하는 거의 육송을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진관사 승가사 용화사 용주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연사 보광암 비봉사 현재 은선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보이차 직판합니다.
■100g×10봉지(10만원)
■100g×1봉지(1만2천원)
02)911-6798
017)406-6682

달마보급 안내



죽림포교원 051)361-6662

당신의 자녀 무엇이 문제입니까?
키! 성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18)
326-5978

大慈大悲 달마도는 자연의 기운입니다
(KBS 2TV 달마도의 신비출연-98.7.24)



▶ 수성사
02)540-5926
무하합장
이사, 삼재 차량운행
수맥차단
5회의 불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관음보살도 보급중>

탈종공고

탈 종 공 고
한국불교태고종 귀하
■사찰명 : 승도사
■주 지 : 이지은(법명 : 혜천)
■소재지 : 용산구 한남동 739-21
본 사찰은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9. 3.

개발지(땅)투자
국제공항, 항만, 공단
배후신도시 상업지 및 주거예정지
02)539-3232
017)310-4153
담당 : 박 수 진 (법명: 명주)

사찰안내

사찰 운영안내
◇위치 : 부 산
◇부지 : 300평 ◇법당 : 26평
◇요사 : 38평 ◇가액 : 2억 9천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서울 서대문구
◆법당 : 15평(즉시법회가능)
◆부처님 삼존불, 방2, 주방 2, 화장실 1
◆가격 : 스님과 면담후 아주 저렴한 전세가로 드립니다.
※탁발하시는 스님 원합니다.※
02)823-0788
019)218-0788

양평 서종 부지
◆소재 :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408번지 409번지
◆지목 : 토임 630평(2필지)
◆가액 : 1억2천
◆특징 : 서울에서 40-50분거리
0338)772-7235
016)341-7235

연화봉 밑 사찰터 안내
◆소재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68-2
◆평수 약 3천 7백평
(대지 1천 5백평 - 건물 주택60평 황토불한증막 300평 창고100평)
◆현재 이화 사슴목장 불한증막
◆불교의 상징인 연화봉 밑 최적의 사찰터
0338) 773-5719
011-750-5719

지리산 터
◆위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임야 3000평 밭 560평 준 농림지
◆계곡 옆 차량 출입가능
◆가액 : 5500만원
0591)758-5541
018)413-4096

사찰(급) 안내
◆위치: 서울 노원구
(전철역 2분거리 버스정류소 2분)
◆실평수: 대지 65평
(서울 APT내에 위치 전평 100평)
◆2층 - 법당 / 1층 -요사채
◆가액: 3억 5천
(융자 1억 2천만원)
02)3391-4845
011)752-4842

사찰안내
■위치 : 전남
■법당 : 16평 ■요사 : 20평
■부지 : 3,330평
■가액 : 1억 7천만원
● 남해의 바다와 300m 거리, 산 승림 속에 자리한 해수분음 청정 기도 도량입니다.
●전국 사찰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지리산 명당 소개
◆ 함양군 마천면 소재
◆ 약 2천평, 약간의 대지,
◆ 토굴(초막)
012)587-6233

사찰(급)안내
◇위치 : 장호원(서울 약1시간대)
◇대지 : 438평
◇총건평 : 85평
- 법당 약 15평(방3),선방 약27평(사무실 포함)
- 요사채 고시원 약 30평(방 10개)
- 식당 약 8평(독채), 화장실 약 5평(독채)
◇가액 : 3억 5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 (고속도 신설, 서울 근린지역)
※ 직접면담(조절가) ※
0336)643-9051/012)925-6118

포교원 안내
◆위치 : 충의 5거리 일심사
◆방 3, 주방, 법당 17평, 옥상사용가능 45평
◆가격 : 전세 1,000만원
◆시설비 : 별도 상담
◆삼존불 있음
0343)425-0974

사찰 급 안내
◆위치: 전남 고흥군 과역면 소재지 5분거리
◆부지: 대지 약 500평+전 700평 대웅전 및 요사 80평, 부지창고 및 샤워실 10평, 종각 및 미륵3불, 석등15평
◆한국감정평가: 1억5천 (50%이상 상환절충가)시설비 1000만원
1. 1994년 1월 준공된 사찰
2. 포교, 중앙 최적지
3. 사찰입구까지 차량진입 (아스팔트)
4. 교통오충지 (고속터미널, 차량1분거리)
02)836-3822/019)277-7072
0666)832-3903, 3904

사찰(급) 운영하실 분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 바닷가
◆부지 : 200평(대지)
◆법당 : 25평 ◆요사 : 40평(방4칸)
◆주차시설 완비, 즉시 입주가능◆
가격 : 매매·전세 가능
(담사후 절충요망- 최저가격으로 드림)
◆특징 : 감천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천마산 기도도량
051)291-8483
011)560-8483

사찰터 안내
◆위치 : 대전시 동구 상소동 (대전역 20분 거리)
◆평수 : 임야 9,800평 밭 320평(준농림지)
◆용도 : 암자, 납골시설
◆가격 : 1억 2천(시세절반가)
042)525-5373
011)428-0805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산청군 금서면
◆부지 : 약 2113평
◆건물 : 5동 (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샬터, 창고 및 화장실1동)
◆가액 : 2억 5천만원
◆특징 : 소박 편안하며 조용한 지리산 자락으로 식수에 수질이 좋고 양이 풍부함, 사찰경내까지 도로 포장 및 주차장 있음
053)651-9363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합천군 묘산면 (면에서 5분거리))
◆평수 : 대지 300평,법당 10평, 요사채 2동(삼존불, 산신각, 철성각 모셔져 있음. 용왕당)
◆사찰 경내 차량진입 가능
◆가격 : 7천 7백만원(절충가능)
0599)932-6278

사찰 안내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가정집 주택 기와집
◆대지 : 20평(방1 부엌1 법당大 1)
◆전세 1300만원 시설비 없음
053) 653-4846

사찰 안내
◆경주, 울산공항 10분 거리
◆경내지 : 35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 옥외석조대불 : 매가 2억3천만원 (매가 절충가능)
※ 경남 김해시 고려시대 3층석탑 (경상남도 문화재)
▶1,200평(매가 1억 8천만원)
연락처 011)9593-6670
경 주 0561)746-216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10분, 삼천포 10분, 진주 30분
◆ 건물 : 40평 (요사채 3칸, 욕실완비)
◆ 사찰부지 : 400평
◆ 가격 : 매매 및 전세 상담
0344)911-1641
016)303-3114

포교원 안내
◆위치 : 도봉구 방학2동
◆평수 : 25평
◆법당 주방시설 스님거처할방1
◆가격 : 전세 28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2)954-1289

사찰 월세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신도극장 뒷편
◆ 평수 : 45평(법당,요사채), 단독주택
◆ 가격 : 500만원(보증금) 월세 16만원
◆ 시설비 : 1,300만원 (집전체수리비) 절충가능
011)705-2806/02)379-0117

사찰 안내
◆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형불사 가능)
◆부지: 100,000평 ◆법당: 21평
◆요사: 65평 ◆가액: 35억
◆위치: 경북 고령군
◆부지: 5,800평 ◆법당: 22평
◆요사: 60평 ◆가액: 5억 5천
※ 전국 사찰 암자 다량보유, 운영하실 분 전화 바랍니다.
좋은 인연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경남 합양군 지곡
◆대지: 1100평 ◆법당: 터만 있음
◆요사: 전원주택 60평(인법당 가능)
◆계류마퐈 석간수 수도 정진 할 수 있는 곳
◆가액: 1억 9천
◆위치: 충북 괴산군
◆부지: 400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가액: 2억8천
※전국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한국 불사 (02)561-7020

사찰(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지 : 430평
◆건평 : 100평(아래층 75평, 위층 25평)
◆ 가격 : 1억 9천(가격절충)
◆ 덕산온천 옆(교통편리함)
0458)337-6348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밀양에서 25분거리)
◆ 평수 : 242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2개, 차량진입 가능, 약사여래 부처님, 미륵존불, 관세음보살님 모셔져 있슴.
◆ 가격 : 1억 2천(절충가능)
0527)391-5369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마산 지역내 교통중심지
◆부지 : 500평이상(주차장 포함)
◆법당 : 31평(목조건물,단층필,3포5포)
◆요사채 : 100평, 주지실 10평, 명부전 15평(단층필)
※시설일체 무상기증, 주차무제한
※경남지역 개인사찰 또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으로 스님의 신병으로 인하여 불교발전을 위해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총공사비 13억이나 병환관계상 8억 5천만원으로 드림
011)885-2876 정수스님
※장난전화 사절

포교원 안내
◇ 위 치: 부산 온천3동 수덕포교원(최고위치)
◇ 건물: 30평
◇ 가액 : 전세5천, 월세가능 (시설비 일체포함)
051)503-0177
018)311-3744

사찰 안내(급)
이민으로 급히, 현시세 1/3가격으로
◆ 위치 : 충주댐 입구 원효종 "불암사"
◆ 대지 : 700평(진입로 포함)
◆ 요사채 : 34평 (교회당, 주방, 방6개, 현대식 사워장)
◆ 법당, 산신각, 석굴암 합 34평
◆ 부속물 : 5층석탑, 석가모니 석불상, 해수보살 좌불석상
◆ 발췌작 하실 분 2,000평 - 3년(300만), 5년(500만) (귀농인 정착 희망자 우대)
0441)848-1766/019)485-1766
0431)211-9546(자택)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4월부터 LPG 7% 인하

(생활) 산업자원부는 연초 국제 유가 하락과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평가절상으로 가정 취사용과 택시 연료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4월1일부터 7% 내린다. 이에 따라 가정용 프로판가스 가격은 Kg당 종전의 690원에서 642원으로, 충전소에서 공급하는 부탄가스는 495원에서 460원 정도로 인하된다.

토큰사용 10월부터 폐지

(교통) 서울시는 버스카드 확산으로 이용이 줄어든 토큰을 오는 10월1일부터 폐지하며,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판매를 중지키로 했다. 그러나 사용은 9월말까지 가능하다. 시는 또 2천5백여곳인 버스카드 충전소를 2배 이상 늘리고 현행 최소 5천원인 충전금액도 2천원으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청소년 국악문화 탐방

(문화) 청소년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체험케 하기 위한 '청소년을 위한 국악 문화 탐방-친구야 모여라 국악원 가자' 행사가 4월3일부터 12월18일까지 국립국악원 예당악에서 개최된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부터 오후 1시까지. 이번 행사는 민요, 국악가요, 민속놀이, 탈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악박물관 관람도 하게 된다. 참가비는 학생당 6천원. (02)580-3053~9

서울 도심 미술관 순환버스

서울 도심의 미술관들을 순환하는 버스가 생겼다. 이 버스는 가나아트센터에서 연장 운행하는 19인승 소형버스로, 인사동~평창동을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 휴일 및 공휴일에도 운행하며 하루 5회 왕복 운행한다. 1000원짜리 미술관 순회 관람권으로 승차권을 대신하며, 승차회수에 관계없이 하루종일 이용할 수 있다. (02)3217-0237

학교 컴퓨터 실습조교 모집

(모집) 정보통신부는 대졸 미취업자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고교 컴퓨터실습 조교 1천3백80명을 모집한다. 지원자는 교육부 산하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02-3488-6293)에 접수하면 된다.

'동양의학으로 보는 몸'

(방송) MBC-TV는 동양 의학의 실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다큐멘터리 '논픽션 11, 동양 의학으로 보는 몸'을 내보낸다. 1부 방영될 '몸속에 우주가 있다'(4월1일)에선 국가 차원에서 기 연구를 진행중인 중국 상하이시 경락 연구소에서 침으로 마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부 '몸과 마음은 하나다'(4월8일)에선 마음과 질병의 관계를 조명했다.

'쥐아기' 출산…안전성-윤리 논란 거세다

"사람은 사람이어야 한다"

'유전자 부작용' 등 생명질서 파괴…생명공학 윤리법 제정 서둘러야

설사 허공을 땅으로 만들고 땅을 허공으로 만들 수 있다해도 이미 뿌려놓은 인연의 씨앗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나니 인연이 무르익는 날에는 반드시 받아야 하리. 〈증일아함경〉

인간(人間)이란 글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이다. 나는 것도 사람과 사람사이에서요, 죽는 것도 사람 사이에서다. 부처님께서는 일찌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설하면서 인간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제 인류에게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사람의 정자를 쥐의 정소(精巢)를 이용해 출산에 성공한 사례가 지난 17일 의학계에 보고됐고, 온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 '쥐아기'를 탄생시킨 출산법은 인간의 정자를 추출해 쥐에서 추출한 고환과 결합시켜 시험관에서 배양한 후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이다. 즉 순수한 인간과 인간사이에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쥐가 인간생명의 매개체로 이용된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이탈리아에서 3명, 일본에서 1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우리나라에도 1명의 여성이 '쥐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얼마전 복제양 '돌리'가 태어난 뒤 인간복제의 위험성을 경고해 온 인류는 이제 다른 동물을 매개로 한 인간 생명 창조라는 또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생명공학은 양날의 칼이다. 인간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반면,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려 엄청난 환경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쥐아기'에게도 이런 위험성이 내포돼 있음을 경고한다. 우선 ▲유전자 이상 가능성이다. 따라서 기형아 출산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감염에 따른 제2의 에이즈 유발 가능성 등 예측불허의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생명질서 파괴라는 윤리적 문제도 있다.

생명공학자들은 자연을 전부 파악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자연의 90% 이상이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설사 그들이 자연을 전부 안다 하더라도 정작 알아야 할 생명의 신성한 가치를 잊는다면 생명공학은 인류에게 절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익산신경정신과 박남진 원장은 "이번 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불교적으로 보면 자연스런 순환의 이치를 말하는 윤회설에도 맞지 않는다. 윤회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임 치료방법으로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은 의학윤리에도 어긋난다"고 말한다.

불교는 모든 생명에 차등이 없다고 가르쳐왔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생명체가 갖고 있는 질서에 근본을 두었을 때다. 그리고 이를 깨뜨릴 때에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된다. 이것이 연기법의 가르침이요,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동강 살리자" 33일 밤샘농성 각계 인사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동강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며 33일간의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이 농성에는 신경림·김지하씨·변호사 이세중씨, 연세대 권숙표 명예교수등이 참여한다.

오염된 물때문에 한해 530만명 사망

유엔환경계획 보고서 '충격'

"세계에서 연간 5백30만명이 오염된 물 때문에 숨지고 있다." 지난 22일 제7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유엔환경계획(UNEP)이 내놓은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보고서는 수질 오염으로 인해 어린이만도 8분당 1명꼴로 숨지고 어종의 5분의 1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 개발도상국 인구의 절반을 비롯한 연간 33억명이 오염된 물이나 물에 오염된 음식으로 콜레라·설사 등 질병에 감염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명우 기자

학습운동 안하면 뇌신경세포 소멸

美 프린스턴대 연구결과

"학습과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 신경세포가 새로 생겨나더라도 곧 소멸한다." 〈네이처 뉴로 사이언스〉 최근호는 미국 프린스턴대 엘리자베스 굴드 박사팀의 이같은 연구결과를 전하고 있다. 굴드 박사팀은 시·공간 학습을 받은 쥐의 뇌속 '해마'에서 새로 생겨난 뇌세포의 생존율이 학습을 받지 않은 쥐에 비해 2배나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쳇바퀴 돌리기 운동을 한 쥐에서 더 많은 뇌세포가 만들어져 오래 살아 남았다는 연구결과도 덧붙였다.

커피 마실까 말까



'뉴욕타임즈매거진' "건강에 도움" 발표

커피는 몸에 좋을까 나쁠까. 일부 학자들은 "커피를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뉴욕 타임스 매거진〉 최근호는 그동안 발표된 연구결과를 종합, 커피가 인체 장기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머리·뇌-커피는 진통효과를 40%가량 높여준다. ▲간-하루 네 잔 이상을 마시면 간경변증에 걸릴 위험이 80% 정도 줄어든다 ▲폐-하루 세 잔 정도는 천식환자의 기침을 완화시켜 준다. ▲정신건강-카페인은 항우울 효과가 있다. ▲혈압-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의 혈압상승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시론

서로를 비추는 거울



박승원 〈시스템경영硏 소장〉

"삶속에서 부처님 가르침 실현하는 주인공 되자"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집기사에서 우리의 금속활자가 지난 천년간 지식의 전파에 기여한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보도하였다. 더구나 앞으로 전개되는 사회가 지식사회라는 전제에서 볼 때, 우리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지식의 전파와 축적에 뛰어난 민족이라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또한 미래사회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이 얼마나 많은 세계적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을 선점하느냐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21세기를 열어갈 세계적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구태여 세계적 기준을 논할 필요도 없이 불교는 국가적 기준에서조차 점차 멀어져 가고 있다. 사회적 제도와 규범으로부터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방식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새롭게 이식된 가치에 그 지위를 내놓고 있다. 또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불교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다.

문제는 불교인의 고루한 의식과 실천력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은 타종교인에 비해 화장이나 장기기증 등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으로는 자비와 육신의 해탈을 논하면서도 행동은 극히 이율배반적이다. 그동안 타종교가 사회현실에 몸을 던져 헌신하고 있을 때 불교인들은 이웃의 아픔조차 외면한 채 자신만의 기복에 매달려 왔다. 기독교인들이 로고스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라틴어를 던져버리고 완전한 한글성경을 가지고 우매한 민중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데도, 까막눈의 노보살이 의미도 모른 채 한자와 범어로 가득한 불경을 읽어야만 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또한 환경, 인권, 사회복지, 소비자 문제 등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 부닥치는 중대한 사안마다 자발적으로 나서는 시민단체의 주체도 대부분 타종교인이다.

그 뿐이 아니다. 작년 전세계 언론과 인터넷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보도되어 세계적 망신거리가 되었던 조계종사태에 대한 불자들의 수수방관적 태도는 불교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폭력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을 외면하고 대학입시백일기도에 매달리는 이기적 태도는 뜻있는 불자들을 허탈케 하였다. 어느 시인은 금강경을 땅에 묻었노라고 통곡하였지만 우리는 과연 분노할 자격이나 있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면 해인사 고려대장경같은 세계적인 보물을 자랑하지만 이를 그저 신성한 경배의 대상만으로 여긴다면 한낱 박제(剝製)화한 나무조각에 불과하다. 선가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다른 종교 차원에서 본다면 큰일 날 소리이겠지만, 이는 스스로 참구하지 않고 부처의 가르침에 안주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려는 현상을 경계하는 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도자기의 골동품적 가치가 아니라 밥을 먹는데 필요한 밥그릇의 역할처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붓다의 사상은 장경각이나 박물관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속에서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위대한 것이다.

오랜 세월 침묵을 깨고 드디어 재가자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우매한 재가를 두고 승가만이 홀로 위대할 수는 결코 없는 일이다. 앞으로 재가자 모두는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 아울러 승가에 대해서도 공정한 비판자가 되어야 한다. 오직 실천하는 것만이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길이다. 아니 주인공은 못되더라도 최소한 치가 떨리는 현실 앞에 분노할 자격이라도 갖추는 일이다. 새로 출범하는 범불교재가연대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초등·중졸·고졸(4·5·8월 실시)
검정고시

▶ 좋은 교재·질높은 교육
▶ 체계적인 학습관리 시스템
검정고시에 대한 가슴 흐뭇한 숨은 이야기는 많습니다. 누구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분/비밀보장)
변경사항
고입 · 사회(국사 포함)
대입 · 공통사회(정치, 경제, 한국지리 통합) · 공통과학(과학 I, 과학 II 통합)

(등록시 제공되는 유형검정고시 강사진이 집필하고 본원이 제작한 최신교재)
한글반 입교, 쓰고, 외우고
중검반 속성, 초등학교 과정
고검반 속성 중 학 교 과정
대검반 속성, 고등학교 과정
시 험 안 내
· 주관: 감사도 교육위원회
· 4점 이상 평균 60점이상 합격 (과목합격 제도)
· 100%객관식(4개중 1개 고르기)
· 정규학교 졸업과 동등인정 상급학교 진학가능
저렴한 가격으로 질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
한국직업교육원
전국무료전화 ☎ 080)010-4100

건강에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 玉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정신적으로도, 병고에도 너무힘들때는 옥을 갈이 사용하세요!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관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심장병, 당뇨, 뇌졸증(중풍), 동맥경화등의 순환기장애에는 90% 이상의 효과. 제일 못하다는 신경통에도 60%의 확율입니다. 50%의 효과면 선약이라고들 합니다.(한방의 세계적인 권위인 북경중의병원 임상보고서)
제품 옥목걸이, 반지, 팔찌, 108염주, 단주, 참선용옥방석, 환자용 옥찜질매트, 침구류, 복대, 무릎대, 옥비누와 기초화장품, 녹차잔외 옥도자기
신제품 옥분 108염주 (10mm알, ₩60,000) 목걸이 겸용 옥분 혼합제, 무거운 것을 싫어하시는분 적합, 건강보전 기경팔맥 通氣용. 마음자리를 잘 볼수 있고, 탐진치의 瞋心을 줄일 수 있어 좋다.
* 옥에는 기(氣)옥과 맹물같이 기가 안나오는 벌옥이 있습니다. "옥을 했는데 나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요?" 하면 그 옥은 이미 기옥이 아닌 벌옥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셔서 체크해 보셔요.
서울올지로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 보일러보다 약 1/3~1/4 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겨울철 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2)883-7400(代)
· 영업부 : 02)877-6090
· FAX : 02)876-3378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상 그림, 龍지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묵가협회 추대 작가로 추천함.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시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현대불교 · 생명나눔회 공동캠페인

장기기증 33명 화장서약 302명



◇21일 지장도량 심원사에서 열린 생명나눔실천 캠페인.

심원사법회 1천명 동참
"생명나눔은 무량공덕"
영도스님 장기기증 솔선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와 본사가 연중 캠페인으로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 대법회가 서울 도선사, 울산 학성선원에 이어 21일 지장기도도량인 철원 심원사(주지 영도스님)에서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법회에서는 주지 영도스님이 '화장 유언 남기기 및 장기기증 서약 운동'의 교리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솔선수범해 사후각막 · 뇌사시장기 · 사후시신기증 등을 서약해 신도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조상령 및 유산아 천도 49일 지장기도법회 입재식'을 겸해 열린 이날 법회에서 생명나눔의 무량공덕에 대한 영도스님의 법문이 끝나자 마자 33명의 신도들이 사후 장기기증을, 3백2명의 불자들이 화장유언에 서약했다.

한편 제4차 생명나눔 실천 대법회는 4월 18일 오전 10시 광주증심사(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부)에서 증심사를 비롯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대불련 광주지부등 광주지역 교계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거행되며, 무등산 등산로 일대에서 가두 캠페인도 펼쳐진다. (062)226-0107

철원 심원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육신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

주지 영도스님 법문



한 해 여의도 3배 면적에 달하는 국토가 묘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산 자도 살 곳이 없는데 죽은 자의 공간만 늘어납니다. 피고름 망태기, 똥자루인 이 육신이 무엇이 그리 소중해서 죽어서까지 호화분묘를 마련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 · 수 · 화 · 풍 4대는 모두 무상한 것이며, 생명이 다하면 본래의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불교의 전통장례의식인 다비제는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도록 합니다. 묘지 부족, 명당의 폐습, 비싼 장례비용 등 장묘제로 인한 온갖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장의제도인 것입니다. 장기기증 역시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의 삶을 회향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보시하는 무량공덕의 생명공양인 것입니다. 생명의 보시는 그 어떤 간절한 기도보다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법회 이모저모

가족 3대 화장서약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이정희(66) 보살은 자신 뿐만 아니라 아들 며느리 손자 등 일가족 4명, 3대가 모두 화장유언에 서약했다.

장병 80여명 동참 눈길

○…휴일을 맞아 인근 군부대인 1기갑여단 불자 장병 80여명이 법회에 동참, 이 가운데 황인건(21 · 불명 혜해) 이병이 사후 장기기증에 서약하고 홍보활동을 펼쳐 눈길.

성지순례단 120명 참가

○…불교방송 성지순례단 1백20명은 심원사를 참배하고 법회에 동참한 후 화장유언에 서약했다.

부부 함께 장기기증

○…경기도 군포시에서 온 조창식(60) · 한덕선(47 · 여) 부부는 "그간 장기기증 방법을 몰라 신청을 못했다"며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을 함께 서약했다.

장기기증자 명단(33명)

서금하 서효정 임형순 최옥희
윤명심 신영순 최효순 황인건
조창식 한덕선 정영도 박영희
안효헌 이영숙 임영화 오승복
조형자 이은숙 한석희 곽필주
김종희 정분례 우영상 오광초
김대원 황영선 김철환 강태영
조성정 이문희

화장 서약자 (302명)

이동규 홍성애 조정숙 이선심
한상녀 신창순 배흡성 박희자
양영순 지영의 이영자 박경희
조온이 김남순 이동국 이명재
이진석 오영선 박태임 김월배
김순희 박봉남 김창제 이영옥
이수희 이규하 이길산 송수혜
이화진 이윤모 이진석 이정희
이재희 권경섭 강명자 박양배
이의현 박혜정 정문백 최효순
변채영 김희정 김종난 편병숙
이호진 신성균 박현정 김정현
이송현 최옥희 김문태 김영희
법덕성 오영록 김옥순 박시옥
박영화 김수영 이연주 이동순
김진수 최형옥 김영진 조월희
이예숙 정래옥 유정란 장성순
하동영 유 숙 송영희 이진규
함윤재 이애순 강신례 김경애
최영숙 이경일 이은숙 양성례
이성복 조소분 서금하 정명오
김영애 백태일 박경자 김윤근
김정숙 김정례 김미숙 신혜원
안효원 김영희 변인선 정동수
김명희 신복희 이춘자 민순희
심옥자 서보순 김덕기 이남희
조옥선 이근자 홍복초 고숙자
유경자 진미자 이순자 김혜숙
김순희 홍성연 이이순 김은주
정수희 김수경 유춘자 문영근
이종수 박정멸 이명숙 신영순
김점술 허점례 임남선 신춘식
최숙자 정용수 이청자 김삼랑
이영실 이남조 백순희 박혜윤
박영자 정민자 이명화 한윤경
최문자 노휴자 홍종렴 김유자
오승목 김용한 윤종근 반정기
최만영 박건실 김동국 현재명
최선숙 한영길 박문식 서정훈
김무메 백정지 김진숙 김명길
황인건 박태권 김규성 함길례
신정호 반정님 박형오 우수라
김영옥 노윤자 윤명숙 김정선
박성란 류효순 류효련 양관일
지연실 단정애 원난형 오창숙
오영근 박영숙 김명숙 노순옥
한덕선 조창식 한상기 이효길
허유순 이양자 조광자 이상종
장영철 전명순 최봉린 박경화
이상점 이재수 유제임 정형자
김정순 함동수 박민영 이재유
박정자 손순자 김영희 오세옥
조순득 정택수 김순복 김종수
박연옥 최필순 서재원 임형순
승기양 윤진현 전옥경 김정숙
이동희 공영애 이영남 한승화
강희선 김연이 조승래 최명숙
김선용 이창우 김정순 백순옥
김진덕 심윤숙 박소영 윤충의
이정희 김진영 김일순 김승연
이정훈 김세동 이덕규 김숙희
이충희 정시복 박영순 박옥정
즈영자 최복순 박복예 구정애
이순용 송명희 최인숙 최수항
이수영 박정자 김재근 이영숙
류봉선 조은진 황갑도 장정동
태선주 김옥자 이난규 서형란
조순희 박종명 오현숙 김명환
이길자 임수진 임병희 이재근
이재웅 손흥인 장용환 홍성식
이원희 양재혁 정옥분 박선영
현재옥 정진성 이준화 안연지
성병근 송일선 송준업 신영채
윤명선 윤선영 윤상언 이명주
김영자 안웅렬 최헌수 정대련화
임대련화 한일심행

자비와 젊음의 Y세대 잔치

창원 한가람 청소년 어울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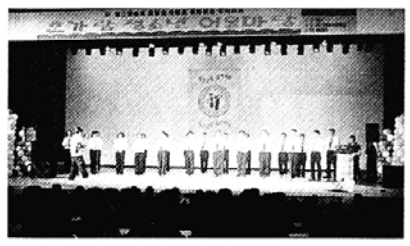
중고생 1천여명 수화 · 춤 · 사물 공연
불우 청소년 돕기 벼룩시장도 열어

"죽비, 목탁 등으로 노래 반주를 맞추니 더 흥겨워요. 여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즐거웠습니다."

20일 창원 늘푸른전당 공연장에서 열린 '한가람 청소년 어울마당'의 무대는 청소년 동아리의 다양한 공연으로 봄바람 같은 싱그러움이 넘쳐났다.

특히 죽비, 목탁 등을 들고 무대에 올랐던 신은실업(창원여고 2) 등 보현노래패는 사물(四物)을 이용한 노래반주와 춤으로 학생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사물로도 멋진 반주가 된다는 사실에 청소년들은 신기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청소년들의 지혜와 열정으로 새천년을 맞이하자'라는 주제로 창원시가 주최하고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이사장 원정스님)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마산, 창원, 진해의 중 · 고등학생 1천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청소년들은 십대들의 우상 그룹 HOT의 공연을 보는 듯한 격렬한 춤으로 객석을 사로잡는가 하면 '하얀 손짓' 수화로 마음과 마음을 나눴다.



◇20일 한가람청소년 어울마당에는 1천여명의 청소년이 참가,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너희가 중딩을 아느냐'라는 비디오 상영과 다양한 공연들이 어울마당에서 다채롭게 펼쳐졌고, 불우청소년돕기 벼룩시장도 마련돼 인기를 끌었다.

17개팀이 경합을 벌인 어울마당에서는 보현노래패를 비롯, 사이클론 등 다양한 팀의 흥겨운 춤, 노래, 사물놀이, 가야금 산조가 청소년들의 흥을 돋우며 알차게 진행됐다.

특히 무대에서 혹은 객석에서 마음으로 하나된 청소년들은 이미 학교, 성별, 나이를 넘어서고 있었다. 청소년들 자체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문화를 가장 잘 표현한 팀'으로 수화 노래를 했던 한돌과 beyond silencn가 각각 1 · 2위를, 춤을 선보였던 싸이클론이 3위를 차지했다.

이사장 원정스님은 "불교의 틀에 갇히지 않고 청소년들이 그들의 문화를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바르고 밝은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었다"며 "앞으로 청소년을 부처님같이 만들기 위한 체육대회, 5월 문화행사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천미회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교방송 5일 봄철 프로 개편

법륜스님 1백일 법문 신설
7년 방송 '살며 생각하며' 폐지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이 봄철을 맞아 4월5일부터 일부 프로그램을 새롭게 단장한다.

이번 개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밤11시5분부터 새벽1시까지(월~토) 방송되는 법륜스님의 1백일 법문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담당PD 박상필). 이 프로는 인간성 상실, 공동체 붕괴, 자연환경 파괴 등 현대문명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인용해 가며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이 주제별로 해결책을 설명해 준다.

음악평론가 송혜진씨가 진행하는 '우리가락의 향기'(일 오후 2시~2시50분, 담당PD 김학주)는 화제의 전통문화 예술가들을 초청해 우리 문화의 얘기를 들어보는 '우리가락 초대석', 명쾌한 해설과 함께 국악을 감상하는 '창작국악 감상실', 사찰의 재의식 · 법공양의식 등을 소개하는 '불교음악 순례' 등의 코너로 꾸며진다.

이외에도 장애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신체 장애자들을 초대해 그들의 진솔한 삶을 들려주는 '꺼지지 않는 등불'(담당PD 안희경)은 일요일 밤 11시5분부터 새벽 1시까지 전파를 탄다.

한편 7년동안 청취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심야프로 '살며 생각하며'는 이번에 폐지됐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청소년 단신

전국 부처님 그리기 대회

월간 〈불광〉과 목아불교박물관은 제5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5일 어린이 날을 맞아 열리는 이번 대회의 참가대상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이며 4월25까지 선착순 1천명을 접수 받는다. 행사는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열리며, 행사당일 오전 10시까지 미술도구를 갖고 참가하면 된다. (02)420-3200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

한국청소년개발원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4월2~6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펜싱경기장에서 '99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한다.

서울지역 중 · 고교 3백여 개교가 동참할 이번 행사에서는 효율적 봉사활동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전시 △봉사활동 시연 △참여기관 홍보 등으로 꾸며진다. (02)578-2188

'무지개 걸린 나무' 제7호

부처님을 닮으려는 사람들의 모임(회장 지거스님)이 펴낸 청소년 소식지 '무지개 걸린 나무' 제7호가 나왔다.

△'왕따' 무엇이 문제인가? △'왕따'를 추방하자 △학교가 삭막해져 가고 있다 등 청소년들이 학교와 생활 속에서 겪는 고민과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무료로 배포. (053)783-4478

대구파라미타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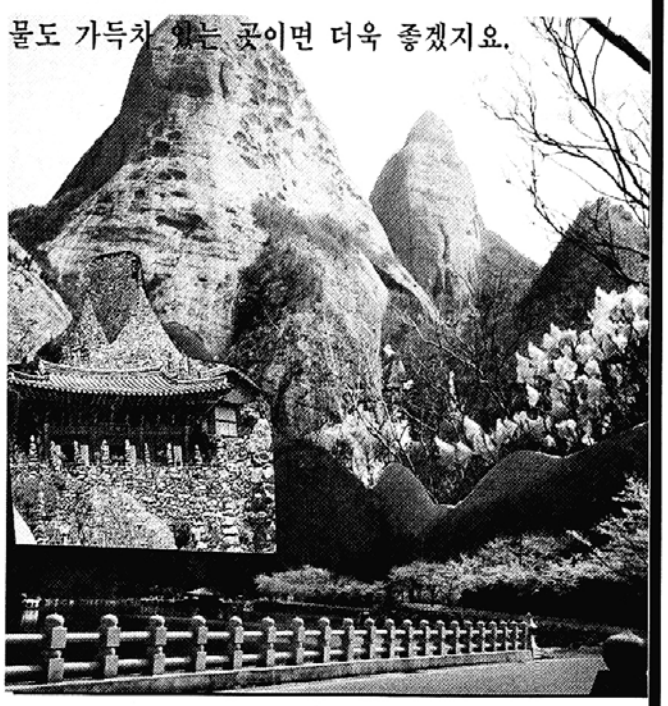
파라미타 대구지부는 4월4일 능인중 ·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청소년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흥부네 박터트리기' '최후의 강자' '인간 윷놀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53)254-6966

◇기사내용 '명사들의 건강비결' 입니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관광과 방생을 한 곳에서 ·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 (0655)33-2900, 0303
(0655)32-0652, 0072

■ 약도


종도에게 드리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제 29대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발생한 지난 종단 사태는 국민들과 사부대중에게 깊은 아픔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종단분규가 승가의 본분에 맞게 화합으로 해결되었어야 했으나, 원만하게 수습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에 본인은 중진의 한 사람으로서 종단의 문제에 대해 깊이 참회하며, 하루속히 종단이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1999년 3월 22일

법련사 현호 합장

전통황토방 특허 출원중

"흙은 만물의 모체다"

황토에는 병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데....
순수 황토만으로 시공하며 화학재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음.

地 水 火 風



그 옛날 시골 초가삼간을 기억하십니까?
흙 냄새 몸에 젖는 황토방에서의 생활을,

자연과 인간 + 흙과 인간 = 건강한 내일

※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황토방으로 개조하며, 도배나 장판을 깔지 않음.

흙 벽돌 생산판매 및 흙 벽돌 집 건축 함

지정황토산업
TEL : 032)427-7898, 7899
FAX : 032)427-5634
PCS : 016)360-2236
智井 송백호 합장

불·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인터넷 불교 백화점 mall. buddhapia는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몰. 부다피아에서 만나십시오.

다기함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126,000
크기 : 50×39×15cm

찻 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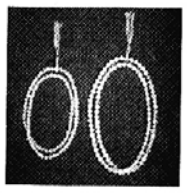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찻 상2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기도 청자 세트

₩ 25,000
·청자향로(8cm×5cm) 1개 · 청자촛대(6cm×4cm) 2개
·양초, 향 각 한질, 촛대 바림막이2개

건강 옥 염주

종 류 : 청옥·백옥염주(小) ₩ 30,000
청옥·백옥염주(大) ₩ 40,000

수월관음좌상

가격 ₩ 120,000

사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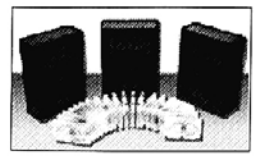
가격 ₩ 120,000
최고급 입질
타월로이드 판 / 253폭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350,000
(개금)₩ 5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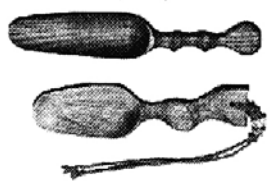
경전카드

가격 : ₩ 15,000
순금 99.9%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 금강경 강의 : 45,000원
■ 지장경 강의 :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4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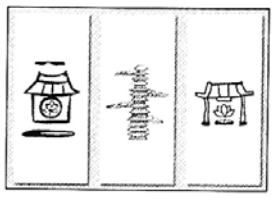
묘법연화경(전7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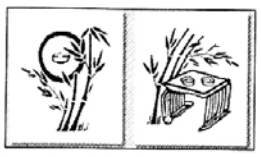
가격 : ₩ 140,000 (복장용)

차 시

재질 : 참나무,고목,등 / 가격 : ₩ 15,000(1개)

화엄큰스님의 달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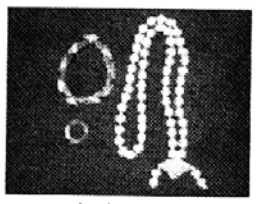
가 격
₩ 20,000
순금 99.9%

기도포

가격 ₩ 1,600 / 기장 84cm 폭 39cm

다포

기장 50cm 폭 39cm
재질 면
가격 ₩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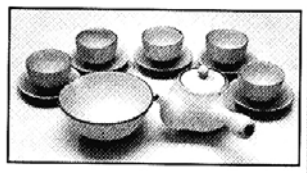
수암옥 단주

가 격
₩ 45,000

수암옥 장미, 옥팔찌, 반지 세트

가 격 : ₩ 4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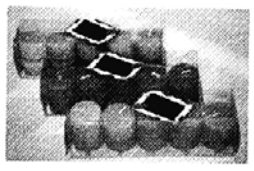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가 격 : ₩ 98,000

고산다기

가 격 : ₩ 1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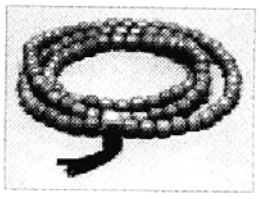
대나무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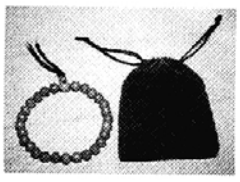
크기 : 9(세로) 5~7(지름)cm 가격 : 낱개 ₩ 8,000

리틀 향초

가격(10개입) : ₩ 5,000

연꽃 향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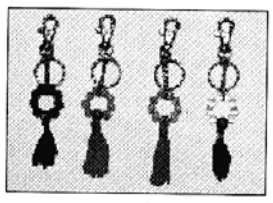
가격 : ₩ 2,500

생광석 108염주

가격 : ₩ 35,000

생광석 단주

가격 ₩ 10,000

반야심경 종 차걸이

가격
낱개 ₩ 9,000
색상 :금색,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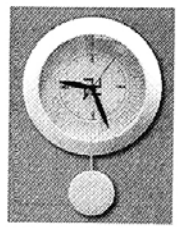
단주 열쇠고리

종 류 : 검정, 빨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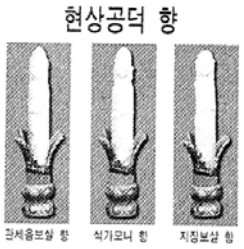
반야심경 향로

가격 : ₩ 25,000
크기 : 4(높이)×7(지름)cm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색상 진녹, 검정
크기 55cm(가로)
140cm(세로)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육바라밀 시계

가격
₩ 15,000

현상공덕 향

관세음보살 향 석가모니 향 지장보살 향
가격 ₩ 9,500 (1개당)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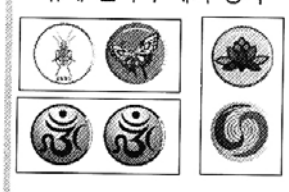
재질 : 통
특징 : 수공예 작품
규격 : 39cm×43cm
가격
₩ 50,000

촘부다라니 불

재질 : 통
특징 : 수공예 작품
규격 : 39cm×43cm
가격
₩ 50,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유해 전자파 제거 장치

가격 : ₩ 9,000(1세트)

청화대선사 법회 비디오

가격 : ₩ 15,000

부처님 일대기

가격 : ₩ 10,000
어린이용
만화 비디오 테잎

우리 기슬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거산 죽염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쑥 액기스

가격 : ₩ 50,000 (100g×60개입)

강화사자발쑥

·1달분 1통(1,500정) ₩ 55,000
·2달분 2통(3,000정) ₩ 80,000

작설차 (우전 · 세작)

우전 ₩ 80,000 / 세작 ₩ 45,000

작설차 (중작 · 대작)

중작 ₩ 60,000 / 대작 ₩ 40,000
(2통 한세트)

한국불교 총람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참선 명상 방석

·실용신안 1998-025009
·의장등록 14387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 보호
·휴대기 간편함
가격 : ₩ 27,000
규격 39cm×43cm

경 상

가격 : ₩ 85,000 / 재질 ASH(느릅원목)
규격 72cm(가로)×34cm(세로)×32cm(높이)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 : ₩ 600,000

한국불교 총람 CD롬

가격 ₩ 60,000

시나브로1집

가격 ₩ 9,500 (CD)

참 선(명상의 말씀)

가격 ₩ 9,500 (CD)

일면스님 경

가격 ₩ 9,500 (CD)

珍珠佛像 및 動物像

관음상(中) ₩ 1,146,000 /15cm×11cm×39cm
관음상(小) ₩ 836,000 /13cm×7cm×30cm

소(大) ₩ 594,000 / 38cm×12cm×20cm
소(中) ₩ 458,000 / 30cm×10cm×15cm

돼지 ₩ 606,000 / 35cm×12cm×21cm

상품설명
1) 진주 불상 및 동물상은 순수 진주로 장식한 국내 유일의 작품입니다.
2) 작품에 사용한 진주는 민물 담수 조개에서 채취한 것이며 다섯가지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3) 이러한 진주를 다발로 묶어 像에 장식하는 과정을 거친후 국내 유일의 작품이 만들어 집니다.
※진주 감정평가서 첨부
4) 진주 채취기간 : 4~8년

호랑이(大) ₩ 1,215,000 / 70cm×20cm×45cm
호랑이(中) ₩ 472,000 / 45cm×23cm×15cm

사슴(大) ₩ 634,000 / 50cm×20cm×22cm
사슴(中) ₩ 476,000 / 31cm×20cm×22cm
사슴(小) ₩ 282,000 / 18cm×7cm×22cm

말(大) ₩ 620,000 / 35cm×11cm×36cm
말(中) ₩ 440,000 / 25cm×9cm×26cm

토끼(大) ₩ 486,000 / 33cm×15cm×16cm
토끼(中) ₩ 418,000 / 11cm×14cm×25cm

지상갤러리

1

3

2

4

5

작가 : 최재수(崔在洙)
한국 공모전특선 3회, 입선 3회
일본 국제공모미전 입선 1회
/일본 미전 특별상/국제교류 H.M.A전(백상갤러리)
KOREA H.M.A.회원 /일본 국제공모미전 회원
/국제공모미전 수상작가초대전(롯데미술관)

초대가 ₩ 120,000 / 고급액자 포함 ₩ 170,000

법회안내


무비스님 (은해사승가대학원장)4월 2,3일 오후 2시 혜원정사 화엄경 대설법회. (051)866-7771


성열스님 (강남포교원 원장)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어린이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중고등학생회 법회. (02)539-2631


혜경스님 (무설정사 주지)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전국염불만일회 〈관무량수경〉 정토법회. (02)732-1215


본각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3일 오후 3시 우리는선우 토요법회. (02)2278-8672


박완일법사 (전 전국신도회장) 2일 오전 10시 부산 소림사 법회. (02)391-6344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3월31일 (수)

■항공사령부 비승사 낙성법회=경기도 이천 항공사령부 호국 비승사(주지법사 차준호) 낙성법회가 오후 2시에 열린다. (0336)634-2202(교6510

■결식아동돕기 공연=화엄불교대학에서는 결식아동을 위한 장사익씨의 소리판 공연을 오후 7시 30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연다. (0652)232-0325

4월1일 (목)


◇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낙산사 해수관세음보살.

■생명방생나무 나눠주기=다례원은 5일까지 동방원예종묘에서 '맑고 푸르른 세상을 만듭시다'를 주제로 생명방생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갖는다. (02)428-6222

■낙산사·홍련암 성지순례=용진신행회는 밤 8시 무박 2일간 강원도 양양 낙산사와 홍련암으로 참배법회를 떠난다. 관음도량 홍련암에서 새벽예불을 올릴예정이다. (02)2279-1191

4월3일 (토)

■실직자돕기 조상천도 구병시식 대법회=대명사는 낮 12시 전 태안사 조실 청화스님을 초청, 실직자돕기 조상천도 구병시식 대법회를 갖는다. (02)876-3337

■남해 보리암·지리산 칠불사 참배=용진신행회는 오전 7시 남해보리암과 지리산 칠불사로 출발한다. 보리암에서 철야정진을 하고, 지리산 칠불사를 참배한다. (02)2279-1191

■송광사·선암사·흥국사 참배=동산반야회는 5일까지 송광사, 선암사, 흥국사, 향일암, 대원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2)732-1206

4월4일 (월)

■〈서장〉 특별법회=대전 보현문화회관은 9일까지 매일 오후 4시 〈서장〉 특별법회를 갖는다. 율산 학성선원 조실 우룡스님이 지도한다. (042)624-6555

■가족과 함께 꽃동산 꾸미기=천중사는 오후 2시 경내에서 가족과 함께 꽃동산 꾸미기 행사를 갖는다. (02)914-3558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새내기 새 배움터=대불련 대구경북지부는 5일까지 대구 은해사에서 새내기 새 배움터를 연다. (053)255-3941

4월5일 (월)

■뇌허불교학술상 시상식=오전 10시 뇌허불교학술원에서 제14회 뇌허불교학술상 시상식이 열린다. 정병삼교수(숙명여대 한국사학과)가 수상한다. (02)742-1231

■나무심기대회=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오후1시 가족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현장체험을 실시한다. 가족단위 나무심기와 자연보호활동, 협동작품그리기등을 한다. (02)421-6077

◇5일은 식목일. 온가족이 식목행사에 동참해보자.

종단소식

조계종

월정사 진부유치원 개원

평창 월정사(주지 현해)는 28일 월정사 포교원 진부 연꽃유치원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정원이 141명인 진부 연꽃유치원은 700평 규모로 놀이동산등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0374)335-8853

은해사 정기교구 총회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22일 심검당에서 정기교구종회를 열고 98년 결산과 99년도 예산을 심의했다. 이날 교구선관위원장에 부용스님(은해사 사회국장), 위원에 법은(제석사 주지) 혜안(수도사 주지) 스님을 임명했다.

불국사 스님-신도회 상견례

경주 불국사 신도회(회장 변영우)는 15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본사 스님들을 초청, 첫 상견례를 가졌다.

신도회는 불국사 사부대중이 불교중흥의 견인차가 될수 있도록 스님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갖기로 했다.

태고종

강원교구 8일 방생법회

강원교구종무원(원장 백운)은 4월 8일 영월군 고수부지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행사에는 강원교구 산하 각 사찰 주지, 교임 및 신도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동방불교대 총동문회 정총

동방불교대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4월 3일 낮 12시 성북구 종무처 설법전에서 열린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선출, 99년도 동문회 사업계획 시도지부 결성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봉원사 인공스님 진산식

신촌 봉원사 제36세 박인공스님의 신임 주지 진산식이 4월 10일 오전 10시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봉행된다. 이날 진산식에는 홍인곡 태고종 총무원장을 비롯 종단의 임원스님들과 봉원사 신도 등 1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태종

보성 흥교사 낙성법회

보성군 벌교읍 흥교사(주지 거호)는 4월 9일 오전 11시 관음존상 봉안 및 낙성식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종정 도용스님, 운덕 총무원장 스님 등 종단 스님들이 참석한다. (0694)858-1685

진각종

대구 길상심인당 기공

대구 칠곡 길상심인당은 지진불사를 25일 봉행, 본격적인 전당건립불사에 들어갔다. 연건평 245평, 심인당 2층 정사 2층으로 신축되는 길상심인당은 전통양식으로 외형을 꾸미고 수행도량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건립되며 심인당 내부는 다도실, 수행실, 법담실 등이 갖추어질 예정이다.

일붕선교종

해탈복지재단 발족식



대구시 중구 소재 해탈포교원(원장 도상)은 14일 포교원에서 '해탈복지재단 발족 및 추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정각스님(부산 미륭사 주지) 일암스님(대구교구 명예회장) 법성스님(대구교구원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동참했다.

부산교구 가사점안법회

부산교구종무원(원장 혜지)은 가사점안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17일 연제예식장 5층 대연회장에서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혜지스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사점안식과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올 한해도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 시 판

♣ 알림

△〈하리완쉬랄 뿐자〉 법보시=자기탐구회는 마하리쉬의 제자 하리완쉬랄 뿐자의 수행체험담을 담은 〈하리완쉬랄 뿐자〉 책을 법보시 한다. 원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02)762-3021

△무료한방진료=개금사회복지관은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요일~토요일까지 무료한방진료를 실시한다. (051)893-5034

△노인대상 침술서비스=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침술서비스를 제공한다. (02)365-3677

△할지골청소년 열린무대=할지골청소년 수련원은 4월 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층 강당에서 고교, 대학 밴드 등의 열린무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051)405-5223

△나눔의 쌀 모금운동=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결식아동과 청소년 도시락 지원, 장학사업을 위한 나눔의 쌀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02)421-6077

♣ 강좌

△한국차문화 특강=초의문화재단은 제10기 한국차문화 특강 기초반 강좌를 4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연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에 실시되는 이 강좌는 이론과 실습을 함께한다. (02)732-2317

△주역·명리학 초급과정=수효사문화원에서는 4월 2일부터 주역과 명리학 초급과정 강의를 시작한다. 주역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에 맹란자씨가, 명리학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강청옥씨가 지도한다. (02)313-5047

△장애아동 방과후교실=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학령기의 정신지체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연다. 오후 2시~5시에 운영한다. (02)806-1377

△참선반=관음사는 매주 화, 목, 토요일 저녁 7시 참선반교실을 연다. 참선수행을 원하는 이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051)294-9300

△머리미용 자격증반=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컷트, 파마, 드라이, 신부화장 등 4개월 과정의 머리미용 자격증반을 운영한다. 매주 월~금요일오전 10시에 진행되며, 수강료는 월 3만 7천원. (02)817-8052

△자아강화프로그램=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자아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2)421-6077

△독서지도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교 1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월, 수요일 오후 3시 30분 독서지도교실을 연다. (02)852-0525

△청소년문화교실=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4월 청소년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놀이로 배우는 영어교실, 뇌호흡, 컴퓨터기초, 엑셀, 경락마사지, 종이접기취미반, 영어회화, 수지침등이다. (02)405-5223

△꾸러기 영어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 꾸러기 영어교실을 연다. 첫주 발음교정후 회화위주 교육을 실시한다. (02)852-0525

△좌선과 건강반=보조사상연구원 목우회는 4월 첫주부터 6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법련사에서 좌선과 건강반 강좌를 실시한다. 요가와 〈아함경〉을 집중 지도한다. (02)733-5335

♣ 모집

△한울문화원 회원=우리민족문화를 답사하고 발굴해 미래 문화발전에 기여코자 설립된 한울문화원이 회원을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우리의 자연속에서 역사와 문화를 함께 느끼고자 하는 이면 누구나 환영한다. (02)723-4794

△이미용 자원봉사자=강북종합장애인복지관은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미용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의 동참을 기다린다. 활동시간은 매주 월, 목요일 오후 2시~5시. (02)989-4215

△염불만일회 회원=전국염불만일회는 사찰,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한다. 염불수행을 원하는 이는 누구나 동참 가능하다. (02)732-1215

△청소년 자원봉사단=개금사회복지관은 지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속적인 봉사활동에 동참 할 청소년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051)893-5034

△시간제 탁아 자원봉사자=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주 2회 시간제 탁아방을 돌봐줄 자원봉사자를 기다린다. (02)817-8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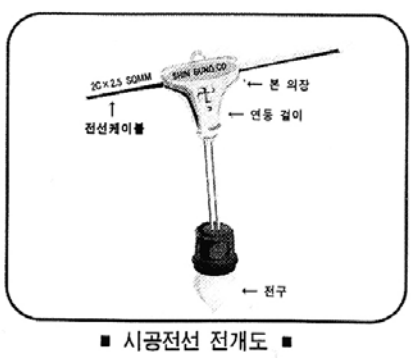
△복지관 물품후원자=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방과후 교실에 중고 라디오, 비디오를 기증해 줄 물품후원자를 모집한다. (02)806-1376

△차량지원 봉사자=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거동불편자를 위한 차량지원 봉사자를 모집한다. 주 1회 차량지원을 통한 관공서 동행을 하게 된다. (02)571-2988

봉축연등 · 법당 기도등용 일체형 전기배선

(기존의 제품에 비해 전선은 굵고 크기는 작게 "T형 일체형 전선" 탄생)
{의장 제 16525호}


▲ 전기배선 시공한 법당



■ 시공전선 전개도 ■

▶ 규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사용용도
· 사찰 연등용

▶ 특징
1. 일체형으로서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2. 연등 설치시 편리하게 연등고리를 만들었습니다
3. 불자 기업으로서 卍 표시를 하였습니다.
4. 재료 절감과 정교한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5. 설치 수거하실 때 기존의 제품과 비교해 한층 더 수월합니다.

안전하게 제작에서「시공」까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신성기획 TEL: 02)3141-3789 / 02)332-3786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97-17호 H.P: 019)380-3786 FAX:02)322-3785

경기 북부 대리점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317-4
TEL 0356)584-5663 FAX 0356)584-6300
H.P 011)758-7329

한의학 특수비법

대체의학의 혁명 공개 수료생 모집

우리 인간은 100세 이상 살 수 있다.

모든 짐승은 자기 성장 과정의 10배 이상을 살고 있다. 집에서 키우는 개는 1년안에 다 성장하여 15년을, 거북이는 100년을 성장하여 천오백년을 산다. 우리 인간도 다같은 동물이며, 그렇게 살 수 있다. 인간은 25세까지 성장하니까 10배면 따라서 250세 이상이 천수인 것이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자기 성장과정의 10배는 커녕 5배 이상도 살지 못하고 사망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짐승들보다 뇌가 1개 더 있다 대뇌라는 정신중뇌 전자오락 기계의 키판과 같은 정보시스템이 뇌에 자극을 주어 내인(內因)의 병인, 암·당뇨·뇌졸증·협심증등 불치병을 유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짐승에게는 이런 병이 없다. 또 외인(外因)의 병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저항력이 짐승들보다 부족해 병에 걸리기도 한다. 정신적인 내인의 병(노·사·비·정·공·우), 외인의 조절을 잘못하여 병으로 발전하여, 실증과 허증으로 몸에 병이 전이되어 오장육부에 깊이 병든다.

모든 병 치료에 앞서 내인의 병은 마음을 다스리고 약을 써야 하며, 외인의 병은 생활환경에 있어 균형된 온도 조절과 청결이 필요하며 저항력을 길러야 한다. 또 식생활에서도 몸에 맞는 음식물을 먹어야 한다. 실증이면 운동량을 많이 하고 힘을 빼주어야 하는데, 허증인 상태에서 운동량을 많이 하여 힘을 빼면 몸을 더욱 해치게 된다.

실증과 허증으로 병이 발전하면 오장 육부가 상생 상극에, 에너지 공급 순행의 조화가 깨지고 곧 병으로 크게 발전하며 어떠한 부위에 자연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 이는 오장 육부가 자기병을 고쳐 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이치로 보면 된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서, 신장이 허증으로 병들면 식욕부진, 치루, 소변 자주보기, 위하수, 위염, 조루증, 양기부족, 뒤가 무거운 후중기, 어깨통증, 허리 유추 4·5번이 협착되고 통증이 발생한다. 여자는 어깨통증, 생리불통, 허리 요추 4·5번 협착통증, 식욕부진, 치루, 위염, 위하수, 자궁근종이 발생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신장이 좋아져야 사라지며 협착부위가 펴진다. 통증부위를 아무리 치료해도 임시방편이며 원인치료는 안된다. **한의학종합편, 연공척추교정법, 소림복권, 내공일지선법, 자발기공치료법, 백회타통 타인에 발공치료법, 텔레파시치료법,** 교육후 수료증, 지부설립 할 수 있습니다.

운암한의학 연구학회 사단법인 키와니스 기공협회 TEL 2238-4038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한의학 무료공개강좌 H·P : 016-221-2250
위치 :신설동 마사회 골목 미림식당 앞 오성빌딩 201호

대둔산 태고사 50년 중창불사 회향

극락 · 관음 · 지장전 등 완공 4일 기념법회
밀린다왕문경 · 법문테잎 보시 · 방생 행사



◇도천스님의 원력으로 반세기에 걸쳐 진행돼온 도량정비불사가 마무리된 대둔산태고사.

도천스님 원력실현

50년간 두문불출하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행에 전념한다는 조계종 원로의원 도천스님(88 · 화엄사조실)이 이뤄온 중창불사가 마침내 마무리 됐다.

대둔산 태고사(주지 도천)는 4월 4일 오전 10시 지장전에서 50년 불사기념법회와 만일기도회향및 천일지장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스승인 수월스님이 내려준 청정한 계행수지와 철두철미한 공부, 보살행의 가르침을 50년간 실천 해온 결실로 이날 도천스님은 특별히 법문도 한다.

6 · 25동란 당시 전소한 태고사는 77년 대웅전인 삼불전 불사의 완공을 시작으로 극락전(79년) 관음전(81년) 삼성각(84년)에 이어 88년 시작한 지장전(98년)이 완공됐으며 88년부터 시작된 백팔계단 공사는 내년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충남 문화재자료 27호로 지정된 태고사는 소실 이전의 모습을 복원키 위해 앞으로 범종각과 요사채 불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천스님은 "오직 앞으로 공부할 후학들을 위해 도량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밤낮없이 불사를 한 지가 50년이 됐다"며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바쳐 쉬지않고 하루하루 정진하겠다"고 부처님전에 발원하면서 "그저 일하고 밥먹고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천스님의 맏상좌인 정안스님이 지난 68년 입재한 중창만일기도 회향식을 4일 갖고 바로 새법당 지장전에서 천일기도 입재를 하게 된다.

태고사는 50년불사를 기념하는 부대행사로 불교문답경인 〈밀린다왕문경〉 1만2천부 법보시와 정안스님 법문테잎(2시간용) 1백20개를 모아 총 1만2천개 경보시를 실시하고 4월 28일 강원도 등명해수욕장에서 물고기 12만마리를 방생한다.

정안스님은 "십이인연을 깨치라는 뜻에서 '12'라는 숫자에 의미를 뒀다"며 "스님들의 수행과 불자들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발심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고사는 전국 12승지의 하나로 신라 원효대사가 터를 잡고 좋아서 가사 장삼을 수한채 3일간 춤을 추며 '세세생생 도인이 끊이지 않으리라'라는 말을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후 고려말 태고보우국사가 중창하고, 조선중기 진묵대사가 삼창했다고 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대구 보현사는 20일 평생교육대학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현판식 장면

대구 보현사 평생대학 열어

법당 24시간 개방…교양강좌 10여개 개설

대구 보현사(주지 지도)는 24시간 개방하는 평생 교육대학을 개설해 직장인 불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평생교육대학및 신행단체 사무실 개원법회를 개최, 한지공예 성혼따주기등 10여개 교양강좌가 진행되고 있어 도심포교및 수행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보현사 주지 지도스님은 "사찰을 24시간 개방하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교육및 수행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3층 법당은 시민선방으로 24시간 개방하여 매일 두차례 입정시간을 갖는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 보현사 총무 유광스님, 이재용 대구남구청장, 최동원 대구신도회장, 유상종 신행단체협회장, 이상번 전 대불청회장, 이달철 대구경북불교음악인협회장, 류진수 개인택시정법회장등 사부대중 8백여명이 참석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日 오부치총리 해인사 참배

팔만대장경 감탄 · 전통사찰음식 맛봐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가 21일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보광)를 방문해 한국불교의 정신을 대표하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놀라고, 한국 전통사찰음식에 감탄했다.

역대 일본총리가 방한중 해인사를 찾은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번 방문은 불교신자로 알려진 오부치 총리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오전 10시 30분 해인사에 도착한 오부치 총리는 대적광전에서 삼배를 올린후 팔만대장경 판전을 둘러봤다.

이자리에서 오부치총리는 "세계적으로 앞선 고려의 목판인쇄 문화에 감탄했다"면서 "이번 방문으로 양국간의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오부치 총리는 "한국불교계와 일본불교계와의 왕래가 있느냐?"고 묻는 등 한일 양국 불교교류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지 보광스님은 "오늘 좋은 인연을 맺었으니 앞으로 젊은 스님들과 청년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청화당으로 자리를 옮긴 오부치 총리는 '구명불견암(求明不見暗)(큰 깨달음으로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다)'이라고 쓴 휘호를 해인사 원로 송암스님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송월스님은 서산대사의 선시를 직접 써서 화답했다.

이날 오부치 총리는 해인사에서 특별히 준비한 21가지 전통 사찰요리를 맛보고, 한국의 전통문화보존에 또한번 감탄했다.

점심공양에 선보인 연근곤약졸임, 고구마줄기찜, 구절판, 탕수이, 김장김치, 인삼튀김, 대추튀김, 호박선, 머위찜 등은 전통 산사 음식으로 고기와 오신채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것이 특징.

음식을 마련한 해인사 원주 정오스님은 "요리도 일종의 문화라는 생각에서 최대한 정성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해인사의 오찬처럼 한일관계도 부드럽게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점심공양을 마친 오부치 총리 일행은 오후 1시 해인사를 떠났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지난 21일 해인사를 방문한 일본의 오부치총리가 청화당에서 송월스님이 쓴 휘호를 받아들고 기념 촬영했다. 앞줄 오른쪽부터 해인사 주지 보광스님, 한사람 건너 오부치 총리내외, 송월스님.

진각복지재단 낙동종합복지관 개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성초)는 30일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광수)을 개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등 종단 간부들과 부산시 강서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지역민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뤄진 낙동종합복지관(051-271-0560)은 치매노인 보호시설, 어린이집, 대강당,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피아노실, 어린이도서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비행청소년예방 치료, 치매노인 보호, 여성직업훈련교실 등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의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간다. 이경숙 기자

원명선원 주말수련 '호응'

훼불사건이 일어났던 제주 원명선원에서 '참 나' 찾는 선수련회가 개최되고 있어 호응을 받고 있다.

원명선원(회주 대효 스님) 참선생활 운동본부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20일 '삼매체험 선수련회'를 개최했다. 이어 4월 17일(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5시까지) '주말 삼매체험 선수련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매월 두차례씩 정기적으로 선수련회를 개최한다. 문의 064) 55-3322
김원우 기자

고산사 청년회 창립

제천 고산사(주지 함현) 청년회는 14일 응진전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회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고산사 청년회는 서울, 청주, 제천 등에 거주하는 직장인 50여명이 참여하며, 매월 둘째 일요일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김정은 기자

조선시대 사명대사와 승의군(僧義軍)이 마셨다는 금강산 건봉사 경내 '장군샘'이 확인됐다. 건봉사주지 해장스님이 백화암지 발굴 도중 발견한 이 샘에서 사명대사가 승의군을 모집 훈련 시키면서 이 샘물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전해내려오고 있다.

건봉사 출신인 설산스님(정토사주지)은 "당시 '장군샘터', '장군수'로 불리운 승군들의 감로수인 샘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수량이 많고 맑은 것으로 보아 장군샘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해장스님은 "이번 장군샘 발견이 건봉사 역사복원하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명대사 행적과 연관이된다"면서 "빠른시일내 샘터주변 정리작업을 해서 불자및 일반인들에게 생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명대사 쓰던 우물
건봉사 '장군샘' 복원

도보건 환경연구원의 성분분석결과 장군수에는 일반세균(중온)과 대장균 녹농균 납 비소 수은 아연 카드뮴등 유해성분47개 항목중 36개 종목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우 기자

해인사-통도사-쌍계사 관광벨트화

경남도 기획…"전통문화 알리고 수익도 얻고"

경남도가 사찰을 중심으로 관광벨트화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다.

이같은 계획은 경남도 3대 사찰인 합천의 해인사, 양산 통도사, 하동 쌍계사를 하나로 묶어 순례코스화 한다는 것으로 일본 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두고 있다.

김혁규 경남도지사는 13일 합천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1의 불론 일본인들의 정서에 맞는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라"며 사찰을 중심으로 한 관광 상품개발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3대사찰 관광벨트화 사업은 일본인들이 고려대장경판과 불교문화에 심취했었다는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에 착안하여 우리문화를 상품화하기로 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일본인들은 연중 두번씩 국내외 유명사찰을 순례하며 국가와 가정의 길흉화복을 기원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혜원정사 화엄산림
20일간 큰스님 법문

부산 혜원정사(주지 효명)는 22일 대웅보전에서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화엄경 산림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학성선원 조실 우룡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불자들 모두가 생활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혜원정사 화엄경 산림법회는 4월 10일까지 20일간 계속되며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하여 12명의 대덕스님을 법사로 12일간 〈화엄경〉이 설해진다. 천미희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선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함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가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갈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지구촌에 경주남산 소개

석불연구회 올내 홈페이지 개설
시-그림-사진 등으로 석불 소개

"아낌없이 지워버린
내 얼굴을 생각마
마주친 그 얼굴이
내 얼굴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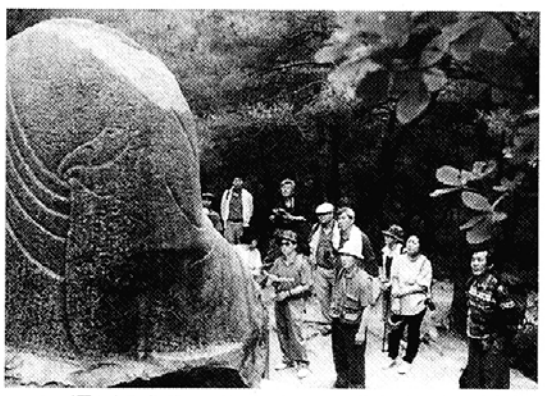
경주 남산 냉골 초입에 자리잡고 있는 목없는 부처님. 김문억 시인이 이 냉골부처님을 친견하고 이렇게 시로 읊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추진되고 있는 경주 남산. 한국인의 영원한 귀의처 경주 남산 곳곳에서 우리 민족의 얼굴을 닮은 친근한 미소의 석불 87구를 만날 수 있다. 이 돌부처들이 시로, 그림으로, 관화로, 사진으로 재탄생된다. 또한 예술작품으로 형상화한 남산 돌부처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옮겨져 세계인에게 소개된다. 이렇게 경주 남산의 돌부처들을 예술작품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 이화여대 의대교수).

지난 수년간 경주 남산을 답사해온 석불연구회는 남산 부처님들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해 놓고 있다. 김문억시인이 현재 30여 석불에 대한 시 30여편을 짓고있으며 김복실 시인 또한 관련 시를 준비하고 있다. 김대규화백은 부드러운 선의 동양화로, 하호숙화백은 서양화와 관화로 옮기고 있으며 박성윤화백과 대구의 노춘애화백은 남산관련 그림을 슬라이드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규화백은 5월 1일부터 6월까지 삼청동 '예띠의 집'에서 석불소품전시회를 가지며, 2000년까지 경주 남산의 사계절을 그린 10m 크기의 전도 4폭을 완성한다.

석불연구회가 준비하고 있는 인터넷에는 남산석불에 관한 모든 자료를 망라해 놓을 예정. 석불 관련 시와 그림 관화 사진뿐 아니라 남산 지도를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하며 석불과 관련한 설화까지 발굴 수록하겠다고 석불연구회 서현 부회장은 밝힌다. 이미 신라 월명스님이 향가 '제망매가'를 짓고 읊은 장소가 선각마애삼존불상 앞이라는 조사를 마쳤다.



◇경주 남산의 석불들이 시와 그림, 관화로 재탄생되고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소개된다. 김문억 시인이 경주 남산 냉골 목없는 부처님을 소재로 시를 읊었다

석불연구회 이근후회장은 "경주 남산의 석불이야말로 세계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의 귀중한 성보"라면서 "으리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승가대학인 군종장교 지원 가능

국방부 군종실 밝혀

중앙승가대학교 학인스님도 군종장교요원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국방부 인사 참모부 군종실(실장 박병욱 목사)은 지난 2월1일 중앙승가대 기획실에서 보냈던 군종장교 임용자격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3월4일)을 통해 "군종장교의 임용은 고등교육법(법률 제5439호)의 규정에 따라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소속 종교단체에서 승려, 목사, 신부의 자격이 인정되고 당해 종교단체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중 선발을 거쳐 임용하고 있으며, 선발대상자 응모자격 등에 관하여는 11월말경 발표되는 군종장교 요원 선발계획을 참고하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는 교육부에서 지난해 3월1일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중앙승가대학이 학사학위 수여에 이어 군종장교요원 선발지원 자격도 가능해 짐에 따른 것이다.

김재경 기자

4월 9일~5월 28일 매주 금요일 조계사서

한국불교 근현대사 강좌 연다

범불교연대회의, 조계사가 주최하고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가 주관하는 한국불교근현대사 강좌가 4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조계사 제2교육문화회관 강의실에서 열린다.

'불교사 바로보기-개항에서 불교정화까지'라는 전체주제로 6차례 열리는 이번 강좌의 첫 강의는 4월 9일 도법스님(남원 실상사주지)의 '불교의 역사 그리고 민족'이다. 제2강은 16일 '근대불교의 시각과 전개(정광호, 인하대 사학과 교수)', 제3강은 23일 '근대불교교단사의 이해(박희승, 조계종교육과장)', 제4강은 30일 '불교계의 민족자각 불교계의 저항(임혜봉스님)'이 개설된다.

5월7일에는 제5강 '불교개혁의 시도와 좌절(김광식, 근현대불교사 연구가)', 28일 제6강 '불교정화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오성스님, 선우도량 연구실장)'의 강좌가 열린다. 교육비 2만원. (02)736-0386

김원우 기자

뉴스 & 뉴스

조계종 행자교육원 273명 입방

조계종 제16기 행자교육원이 25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개원됐다.

이번 행자교육에는 총지원자 307명 중 34명이 서류심사와 신체검사에서 탈락, 남행자 160명 여행자 113명 등 총 273명이 입방했다. 이윤호 기자

군위 마애불 첫 발견 아니다

3월 18일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군위군 소보면의 마애삼존불(본지 215호 2면 참조)이 이번에 처음으로 발견된 불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영주(계명대 역사학과 박사과정)씨가 94년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 논문으로 제출한 '통일신라시대의 팔공산 지역 석불상 연구'에서 위성리 마애삼존불의 실체를 처음 소개했기 때문. 조씨는 또 97년 11월 간행된 〈현대불화〉 제 1집에도 '군위 위성리 마애삼존불 연구'라는 9쪽 분량의 논문을 게재했었다. 오종욱 기자

은해사 계율도량 지정 건의

조계종 계단위원회는 12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은해사를 계율도량으로 지정할 것과 종단사태와 관련 통도사 밖에서 거처하고 있는 전계대화상 청하스님이 조속히 통도사에서 주석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단 중흥의 초석이 될 계율도량이 시급하다"며 "은해사를 계율도량으로 지정해 행자교육과 단일계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중앙종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은자 기자

통일준비 불교정책 워크숍

민족화합불교추진위는 24일 오후3시 조계종포교원 회의실에서 '남북농업협력과 발전전망'을 주제로 조성범씨(남북농발협 사무총장)를 초청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불교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민족화합 불교추진위는 이날 북한에 '비료보내기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종교간 대화의집 개원

종교간 대화의 집 '위로의 샘터'가 4월 5일 부천시 옥길동에 개원한다. 꼰솔라따 수도회가 운영하는 '위로의 샘터'는 종교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고 타종교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누구든지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다. (02)685-1803 이경숙 기자

봉축기념 서울 열기구축제

조계종 봉축위원회가 주최하고 중앙신도회·한국사회체육진흥회가 공동주관하는 '부처님 오신날 기념 서울 열기구 축제'가 5월 20~21일 여의도 63빌딩 앞 고수부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열기구 30대에 선수 2백여명이 동원된다. 이틀간 1만여명의 시민이 탑승할 수 있는 이번 축제에는 최소 2억원의 예산이 기업체의 협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법당불사금 뇌물 아니다"

김태복장군 선처 탄원서
종단협-조계종, 청와대에 전달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 총무원(원장 고산)·포교원(원장 정련)은 23일 청와대와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 앞으로 최근 수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복 前 17사단장(53·소장·육사26기)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김태복장군과 관련한 공소 내용 5건중 4건은 법당 건립과 관련된 것으로 법당 건립 불사금 등을 뇌물 수수로 기소하여 종교적 편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개인적 비리가 드러나지 않은 무리한 기소임으로 기소 취하 및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소내용중 시주금이나 시주물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부대 장병들의 정신 전력에 도움이 되는 법당 건립이 쓰여졌고, 시주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을 뇌물수수로 기소하는 것은 보시를 한 사람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무리한 법적용이란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사단장직에서 보직해임된 김 장군은 국방부 법당 총무 등을 역임하는 등 각 부대 근무시 적극적인 불교활동을 전개했다.

육군 검찰은 98년 2월 101여단 재직시인 96년도에도 건축물 허가 관련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98년 11월 천용택 국방장관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김 장군이 이를 거부하자 가택수색은 물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는 등 혹독한 재조사를 받아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포교원 관계자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교편향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국방부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선암사 탱화 또 도난

선암사(주지 인곡) 팔상전 화엄변상도가 24일 새벽 도난당했다. 도난당한 선암사 팔상전 화엄변상도는 1780년에 조성됐으며 세로 269.2㎝ 가로 247.5㎝ 크기로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돼 있다.

한편 선암사는 7일 대웅전 탱화도난에 이어 또 탱화를 도난당하자 경보장치 설치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순천경찰서는 이번 2건의 선암사 탱화도난사건과 관련 내부와 외부 문화재 전문털이범들의 소행으로 보고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경북사찰 연쇄훼불 용의자 18일 검거

영주경찰서는 지난해부터 경북 영주 이산면 관음사(주지 도기), 보광사, 영주 포교당 등에서 잇달아 발생한 훼불사건의 용의자 조병묵(32)씨를 18일 검거했다. 조씨는 특수절도 전과가 있으며 정신이상 증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무당이 운영하는 사찰인 광명사에서 기도를 했으나 기도 효험을 받지 못하자 이같은 훼불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경 기자

문화재 도굴-밀매단 검거

기림사복장등 유물 2백여점 압수

불상의 복장유물을 다량 훔쳐 암거래한 일당 9명이 검찰에 검거돼 기림사 대적광전 석가모니불상 복장유물 등을 비롯해 문화재 200여점(1백억원 상당)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검 형사5부(담당검사 최선용)는 21일 문화재 도굴·매매업자인 손수석(64) 김만태(42)씨 등 6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매매업자 오모씨(5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도굴범 이모씨(52)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97년 3월 기림사 석가모니 불상을 파손하고 금니천룡탱화 등 복장물 14점을 빼낸데 이어 98년 2월 선암사 응진전·불조전의 후불탱화를 오려내 훔친 혐의다.

검찰이 압수한 문화재 가운데 성보문화재는 총 33점. 기림사 복장유물 11점과 선암사 53불회도중 '7불도'에서 절취한 부분 탱화 3점 외에도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불상 4구에서 훔친 복장유물', '탱화 2점', '전적류 13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압수된 성보문화재 33점은 대검찰청 압수창고에 보관중이다. 이에 대해 교계는 성보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불교계로 귀속되길 바라고 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문화재에 대한 법원의 관결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성보문화재 향방이 주목된다. 손씨 등에 대한 재판은 5월중 열릴 예정이며, 손씨 등과 압수 문화재의 최종 관결까지는 약 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11면〉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불교TV 살리기' 기획팀 결성

캠페인 광고등 4개프로 신설
'경영정상화 대책' 연속좌담도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TV(대표 신허스님)가 8일 결성된 기획팀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방송 제작 재개, 캠페인 전개 등 재기의 의욕을 보이고 있다. 불교TV는 캠페인 광고를 포함한 4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해 29일부터 방송에 들어가는 등 프로그램 제작 재개로 '불교TV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15분부터 50분간 방송될 '연속좌담', 박광서교수(우리는선우 공동대표)의 사회로 교계 인사와 방송 전문가들을 초청해 불교TV 경영 정상화와 교계 현안을 위한 대책을 들어본다.

'이영숙의 만나고 싶었습니다'(매일 오전 10시15분)와 봉선사에서 대중스님들이 봉행하는 '사시불공'(월~토, 오전 10시45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한 신행 활동을 펼치는 불자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참회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초야에 묻혀 수행 정진하는 스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TV 부처님 이야기' 등 영상 캠페인 운동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획팀장인 이현오PD는 "고승대덕 초청 법회, 후원회 조직, 700서비스를 이용한 천원 모금운동 등 각종 이벤트를 활용해 경영 여건 향상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완벽하게 절하는 비법
◈염불 금강경 독경하는 법 :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몸에 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립고 지겹고 침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자성의 운율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에 한맺힌게 풀려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힘차게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업.
◆ 장궤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와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 정진 (토요일 10시~ 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봉독2회, 석가모니불 염불 정근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와선호흡법, 수행상담 점검, 축원 기도 7회

출가예정자 수행체험, 특별소원성취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용맹정진 수행자를 모십니다.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검,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식,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고학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차돌 암벽에서 다량의 약수가 나옴 (일년 두어도 이끼가 끼지 않는 특급수)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미얀마 큰스님 초청

- 위빠싸나 산림 안내(위빠싸나 수련회) -

미얀마의 양곤 참매 선원의 조실이신
우·자나카 사야도(큰스님)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위빠싸나 산림를 개최합니다.

미얀마에 가지 않고 세계적인
위빠싸나 지도자이신 사야도의 지도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이번 산림에
수행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 : 비구·비구니·일반인(종교 관계 없슴)
◐ 일시 : 1999년 5월 6일 ~ 5월 19일(2주간)
◐ 장소 :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다대리 반야사 (이천시내에서 20분 거리)
◐ 회비 : 30만원
※ 알찬 산림 위해서 남·여 각 10명씩만 선착순 접수합니다. (단, 스님은 접수 순위에 예외임)
◐ 문의처 :
서울(02)548-2914, 652-6376
511-6070~4(봉은사)
여주(0337)884-0107~8

출판 전문가 모집

능인출판부 에서는
법음을 편찬하는
성스러운 작업에 함께할
출판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사 항

● 자 격 :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예정자로 취재, 편집, 교정 등 실무에 능한 자
● 구 비 서 류 :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 제 출 처 :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전화 : 577-5800 교)442번
팩스 : 577-5840

자기 PR을 할 수 있는
자료나 작품을 첨부해 주십시오.

달마 보급 안내



본 개운사에서는 천불전 건립기금 조성 일원으로 달마도를 보급합니다.
승납 40여년 수행하면서 서예, 동양화, 달마 등 많은 작품을 해 왔고 2,000년도 제2회에도 달마전시전을 가져서 많은 불자님들께 보급코저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산59

가야산 **개 운 사**

0348)958-1276
018)359-1276 스님 直
02)511-7579

신행수기 당선작(관음종 총무원장상)

나의 탈바꿈 ①

김형신 〈대구 달서구 상인동〉

언니의 부처님 이야기는 가랑비에 옷젖듯 조금씩 조금씩 젖어들었다 그리고 어느 스님의 팔만사천 법문을 다 알아도 한가지 행함만 못하다는 말씀을 듣고 실천을 내 신행의 기본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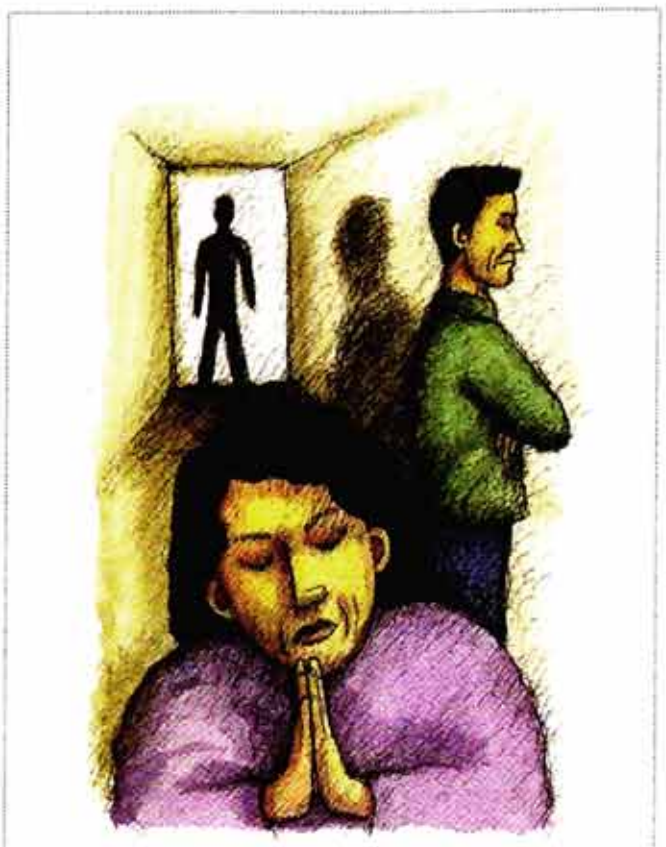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무엇이 내자식을 반항하게 만들었을까 매일 새벽 아들 방앞에서 삼배를 올리며…

이것도 인연인가? 가끔씩 만나는 큰언니가 해주는 불교 이야기가 고리타분하게만 느껴졌다. 불교는 할 일 없는 노인들이 내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부처님 앞에 불전 놓고 복을 비는 그런 종교로만 알았다.

만날 때마다 언니의 부처님 이야기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이도 사십대 후반이 되니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마음이 들 때였다.

정말이지 불교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다. 그래서 불교교육원에 등록을 하고 1년동안 불교의 기본교리, 사상, 문화, 예술, 역사, 참선과 생활 등 여러가지를 배우고 교육을 수료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서적도 사서 보고 〈반야심경〉 〈천수경〉도 외우고 〈금강경〉 독송과 강의도 듣고 혼자서 재미나게 불교에 점차 젖어 들었다.

공소에도 내 생각은 어떤 종교를 가지든 정신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철저한 불자인척 하지만 알고보면 실망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느 스님에게서 팔만사천 법문을 다 알아도 한가지 행함만 못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나의 신행생활은 행함을 기본으로 하자고 다짐했다.

처음엔 절에 가서도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대중공양할 때 부끄러워 공양도 못하고 집으로 그냥 오기도 한 숙맥이었지만 매일 108배도 해보고 아침밥 하기전 몸 단정히 하고 간단한 예불도 해보았다. 그러나 뭔가 잡혀지는 것 없이 지냈다. 그러던 중에 한가지 체험을 하게 되었다. 차를 몰고 큰집에 가려고 하는데 뭔가 불안하고 어떤 좋지 않는 기운이 내 마음을 잡고 있었다. 이럴땐 스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관해 보아야지 하며 운전석에서 조용히 앉아 심호흡을 하고 관하기 시작했다. "주인공 당신이 있다면 신장이 되어 나를 지켜! 너만이 할수 있잖아."

큰집에 가서 불일을 보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우고 있는데 정말 참나에 큰 사고를 면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내 뒷차가 내 차와 부딪칠 상황인데 순간에 핸들을 꺾어서 내 옆차를 들이받다니! 참 놀라운 일이었다.

그 뒤로 불교 공부에 신이 났으며 환희심에 젖기도 했다. 그러나 내 자신 공부가 좀 되나보다 하고 생각하면 작은 경계에 부딪쳐서 나가 떨어져 본래자리로 와 있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무슨 공부가 되나 하고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다.

그럭저럭 1년반쯤 되어서 생각지도 않게 우연히 왕초보 신도인 나는 구역 신행회 회장일을 맡게 되었다. 많은 행사와 일을 하면서 절집의 일도 익히게 되고 알게 모르게 스님의 말씀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중심이 잡혀 가기도 했다.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맞아야만 사물이 분명해지듯 말이다.

그럴 즈음 나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막내아들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다.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마침때쯤 사춘기가 왔다. 항상 신경질적이고 반항하며 얘기도 없이 시내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오기도 했다. 타이르기도 하고 고함도 쳐보고 매도 들어보았지만 더욱더 나와의 사이는 멀어졌다. 어쩌다 부드럽게 말을 걸어도 냉냉하게 예, 아니오 로 더이상 대화가 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앉아 내 마음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무엇이 내자식을 그렇게 만들었나 하고….

나는 내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집착이 많았음을 깨달았다. 그것도 자식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나의 허영된 마음이었으니, 그것부터 놓기로 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다 하나 마음뿐이면 무엇하나, 행으로 옮겨보리라. 그 방편으로 매일 새벽 밥하기 전 막내방 앞에서 반배로 삼배를 올리며 오늘 하루 막내의 마음과 같이 되며 좋은 말로 다스리고 이해하자며 간절히 마음을 내었다. 그러나 어쩌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오는 막내와 마주치면 아들은 "어머니 나에게 절만 한다고 되는줄 아세요" 할 때는 힘이 풀렸다. 그러나 아무소리 하지 않고 그것도 내모습 이겠거니 하고 뒤돌아 부엌으로 가기도 했다. 그리고 학교갈 때와 집에 올때 따뜻한 눈길로 인사하고 갈 때에도 머리 쓰다듬고 엉덩이도 두드려 주고 뽀뽀도 해주지만 얼어붙은 마음은 쉽게 녹질 않고 손으로 툭 뿌리치거나 돌아 눕기도 했다. 그럴 때에는 그래 이건 철저히 죽는 일 뿐이다 하며 그렇게 지냈다.

1년 조금 지나고 아들이 고3이 되었다.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특별반에 몰려서 따로 늦게까지 선생님 감독하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어느날 담임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우리 애가 일주일에 나흘을 하지도 않는 과외를 하러 간다고 일찍 나간다는 것이었다. 오후 6시에 나가 밤 12시까지 무얼 하다 오는지 기가 막혔지만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고 아직 우리애가 내가 타이르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막내방을 청소하다 보면 어른들이 신는 앞이 뾰족한 겨자색 구두를 발견하게 되고 대학생인 누나와 형한테도 없는 휴대폰이 나오고 삐삐며 외제상표의 비싼 옷도 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앉아 있어보면 고등학생들이 어른들이 입는 옷을 입고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는 것을 보고 그집 부모도 어지간히 속이 타겠다 하며 생각했는데 내 아들이 그 지경이라니! 그래도 왜 그러느냐고 묻지 않았다. 진실된 마음으로 막내를 위해 마음을 낼 뿐이었다.

(계속)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 전통經床의 실용화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원 · 스는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 읽기 · 자녀들의 학습

■재질 : ASH(느릅 원목)
■규격 :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가격 : 8만5천원



구입문의 :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주문(http://mall.buddhapia.co.kr)

불佛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연등의 미학 장엄 팔각등

장엄 팔각등은 전통적 미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켜 가장 산뜻한 색상과 편리한 사용, 견고함을 자랑하는 연등 입니다.
- 정성을 다해 제작한 이 전통연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접식 팔각등은
풀칠과 조립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한번의 동작으로 펴서 사용하고,
접어서 사용하는 연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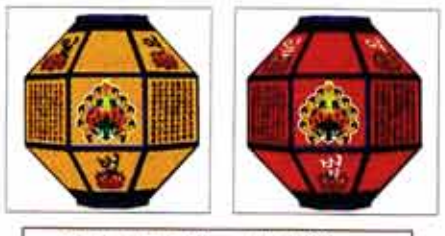
■팔상성도 (八相成道)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에서의 여덟가지 중요한 중생제도를 위한 모습
①도솔래의상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
②비람강생상 룸비니동산에서 탄생하는 모습
③사문유관상 사방의 문으로 나가서 중생들의 고통을 관찰하는 모습
④유성출가상 성을 넘어 출가하는 모습
⑤설산수도상 설산에서 수도하는 모습
⑥수하항마상 보리수 아래에서 마군들을 항복시키는 모습
⑦녹원전법상 녹야원에서 최초로 불법을 설하시는 모습
⑧쌍림열반상 사라쌍수 아래에서 마지막 설법을 마치시고 열반에 드시는 모습

접 등

· 팔상성도 장엄 팔각등(원색 칼라)



· 반야심경 장엄 팔각등(원색 칼라)



◆규격 : 大 폭 310mm / 높이 330mm
◆가격 : 2,300원
◆규격 : 小 폭 270mm / 높이 280mm
◆가격 : 2,100원

● 연등이 변하고 있습니다. ●
장엄팔각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에 찢어지거나 장대비 속에서도 결코 젖지않고 본래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 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어우러진 장엄 팔각등은 선명하고 밝은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장기간 사용후 물세척으로 새 것처럼 깨끗이

● 주문전화 : 02)732-1522/737-8881(대표)
● 주문 팩스 : 02)737-0697
● 인터넷 주문 : http://mall.buddhapia.co.kr
● 납품방법 : 신청하신 곳으로 직배 · 택배 발송
※ 촛대, 등걸이, 이름표 포함

조 립 등

◐ 봉축 장엄팔각등(원색칼라)



◐ 만다라 장엄 팔각등(원색칼라)



◆규격 : 폭 230mm ◆높이 : 230mm
◆가격 : 2,300원